2ㄱㄱ1~2ㄱ_Aug_Rev 2012-02-12 ㄱㄱ9:04 Page 1

www.snuaa.org

서울대미주동창회보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214호 2012년 2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225W.190th St.#465
Gardena CA.90248 USA.
Tel.310-515-7888 Fax.310-515-7883
E-Mail:snuaausa@yahoo.com

← '중부 텍사스 서울대 동창회' 회원들이 모임 후 한 자리에 모여 기념촬영했다. 뒷줄 왼쪽부터 노일후·김성근 동문, 이영재 회장, 홍순협·이기철·조은득 동문. 앞줄 왼쪽부터 김정윤·이선애(김성근 동문 부인)·김청자(이영재 회장 부인), 한명숙(홍순협 총무 부인), 김성희(이기철 동문 부인).

'중부 텍사스 서울대 동창회' 창립

와코·템플·킬린·샌 안토니오 지역 거주 중심
초대 회장에 이영재 동문, 총무 홍순협 동문

새해들어 '중부 텍사스 서울대 동창회' 가 창립됐다.

지난 1월 14일 Texas주 조지타운시에 거주하는 이영재(상대 58) 동문 자택에서 동문 10명이 모여 이같은 동창회를 새로 발족한 것이다.

이들은 텍사스 중부지역인 Waco·Temple·Killeen·Austin·San Antonio 등지에 거주하는 동문들로 구성돼 있다. 동창회원은 이영재(상대 58)·김청자(사대 60)·김성근(법대 78)·홍순협(사회 78)·이기철(음대 78)·임찬순(인문대 82)·이선애(경영대 85)·노일후(법대 94)·김정윤(경제 95)·조은득(음대 01) 동문 등이다.

이들은 이날 이영재 동문을 초대 회장으로 홍순협 동문을 총무, 노일후 동문을 서기 및 회계로 선출해 임원을 구성한 뒤 회칙을 제정했다.

이처럼 '중부 텍사스 서울대 동창회' 가 창립됨에 따라 텍사스에는 기존 달라스 동창회와 휴스턴 동창회의 3개 동창회 조직으로 세분화 됐다.

이영재 초대 회장은 "거주 지역이 텍사스 한가운데로 북부 달라스와 남부 휴스턴과는 각각 자동차로 3시간씩 걸리는 불편이 따랐다. 게다가 어느 동창회에 가입해야 할 것인지 선택이 어려운 점도 커 이처럼 새로운 동창회의 필요성을 느껴 새로 조직하게 됐다" 고 말했다.

두 동창회와 관계에 대해 이 회장은 "물론 달라스·휴스턴 동창회와 적극적으로 긴밀한 교류와 협조를 하고 미주 동창회에도 협력을 해나갈 것" 이라면서 "미주 동창회 가입을 요청, 승인을 바라며 미주 지역 모든 동문들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홍순협 총무는 "사실 동창회를 조직하기에 앞서 달라스와 휴스턴 동창회와의 관계를 가장 우려했다" 고 말했다.

홍 총무는 "그러나 위의 동창회 두 곳 모두 자동차로 3시간씩의 거리라 젊은 동문들에게도 부담이 큰게 사실이다. 그런데다가 특히 연세가 많은 동문님들에게 부담을 덜어드리는 의미에서도 필요성이 컸다" 고 말했다.

'중부 텍사스 서울대 동창회' 의 미주 동창회 가입요청에 대해 김은종 미주 동창회장은 기존 달라스 동창회와 휴스턴 동창회의 각 동창회장 등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수렴했다.

이에 대해 휴스턴 동창회 탁순덕(사대 58) 회장은 "동창회는 될 수 있는 한 가까이에서 모일 수 있어야 서로 편하고 더욱 우의가 깊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 멀리까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새로운 지부가 생긴다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라고 말했다.

또 달라스 동창회의 이준(공대 73) 회장은 "이영재 회장님과는 미리 전화로 통화를 한 바다. 크게 축하할 일로 동의한다. 다만 Waco에 거주중으로 현재 달라스 동창회에 참여하고 있는 동문의 의견(앞으로 어느 동창회에 참여할지 등)을 들어볼 것" 이라고 말했다.

김은종 미주 동창회장은 이같은 답신을 받은 후 미주 동창회 임원회의를 통해 '중부 텍사스 서울대 동창회' 의 창립을 축하하고 만장일치로 가입을 승인했다.***

<중부 텍사스 동창회 관계기사 16면·편집주간>

새 기획
이 달의 초대석
강수상 전 동창회장·15면

미주 동동창회 2012
Alaska Cruise
관계기사 23면·광고 32면

NON-PROFIT
US POSTAGE PAID
GARDENA, CA
PERMIT No. 177

윤지영 동문

'뮤지션스 인스티튜트' 학장에 선임

세계적인 음악학교 'MI'
학사학위 수여과정 총괄

실용음악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가진 음악 전문학교인 할리웃의 '뮤지션스 인스티튜트(MI)' 의 교수로 재직중이던 윤지영(42·사진·미국명 레이첼 윤) 동문이 이 학교 학사과정 학장에 선임돼 화제다.

윤지영 교수는 이 학교에서 그동안 작곡과 키보드 등을 가르쳐 오던 중 지난 1월 4일자로 이 학교의 학사학위(BA) 수여과정을 총괄하는 학장으로 선임된 것이다.

윤지영 신임학장은 앞으로 이 학교의 학사학위 과정 프로그램 운영과 발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윤 학장은 "한인으로 학사학위 과정 전체를 담당하는 학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며 "경영진이 새롭게 구성되고 비공연학과 개설 등 학교의 변모가 기대되는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나름대로 책임이 무겁다" 고 소감을 밝혔다.

윤 학장은 타드 버호스트 프로그램 개발 부총장과 에린 워크맨 교육담당 시니어 디렉터의 지휘 아래 프로그램 확장에 관여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학장은 "현재 MI에는 준학사(AA)와 학사학위(BA) 과정, 수료증 과정이 있으며 학사학위 과정은 연주 전공, 보이스·기타·키보드·드럼과 베이스 기타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

음악인들을 배출하고 있다" 고 소개한 뒤 "이와 함께 부전공으로 오디오 제작이나 산학 과정을 병행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윤 학장은 모교 음대와 대학원에서 작곡을 전공한 뒤 UCLA에서 작곡 이론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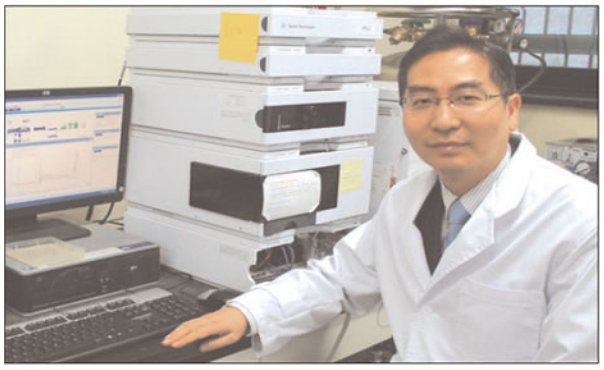
그 뒤 지난 2005년부터 뮤지션스 인스티튜트(MI)의 교수로 재직해오며 서양 음악사·세계음악사·이론·작곡·키보드 연주 등을 강의해 온 윤 학장은 재즈밴드 '옐로재킷', 리듬앤 블루스 프로듀서 와-와 왓슨 등 유명 뮤지션들과 함께 오케스트라 편성 작업을 하는 등 주류사회 음악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음악가 집안 출신인 윤 학장은 가곡 '언덕에 누워' 의 작곡가인 고 윤양석 교수와 이연희 교수(피아노 전공)의 장녀로 오빠는 숭실대 윤준성 교수, 여동생은 국악 작곡가 윤혜진씨이다. ***

특집 <암>황성주 박사의 '암은 없다' / 김의신 박사의 '중류별 치료' ..... 4~5면

'미주 동창회보' 는 동문들의 정성어린 회비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회비 납부 안내는 22면)

2ㄱㄱ1~2ㄱ_Aug_Rev 2012-02-12 ㄱㄱ9:04 Page 2



모교 약대 오동찬 교수

'국제 젊은 과학자(HHMI)' 첫 선정

미생물 연구에 총 71만 달러의 지원 혜택 주어져

모교 약학대학 오동찬(39·사진) 교수가 미 하워드 휴스 의학연구소(HHMI)의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인 '국제 젊은 과학자(HHMI International Early Career Scientist)' 의 첫 지원대상자 중 한 명으로 최근 선정됐다.

오동찬 교수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5년간 간접비 6만5천달러를 포함해 총 71만5천달러의 연구비 지원을 받게 됐다.

HHMI는 영화 '에비에이터' 의 실제 주인공인 하워드 휴스가 1953년 의학 발전을 위해 만든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사설 연구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연구기금을 지원하는 곳 중 하나로 꼽힌다.

'국제 젊은 과학자'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학위를 받거나 박사후 과정을 이수한 전세계 18개국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신설된 것이다.

이 연구소가 미국 이외의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이 프로그램에 지원한 전 세계 과학자는 총 760명으로 이중 오동찬 교수를 비롯해 중국·포르투갈·스페인 등의 과학자 28명이 첫 수혜자로 뽑혀 올해 2월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오 교수는 '미생물의 화학생물학과 유전자 분석에 기반을 둔 신규 생리활성 저분자물질 발굴' 을 주제로 미생물이 생산하는 항생 물질의 구조와 약제 사용 가능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모교 학부와 석사 과정에서 해양학을 전공한 오 교수는 제주도 근해 해저 퇴적물이나 국내 염전 등에서 발견되는 미생물, 곤충과 공생하는 미생물 등을 배양해 새로운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연구를 해 왔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소속 스크립스 해양과학 연구소에서 해양 천연물화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하버드 메디컬 스쿨 강사 등을 거쳐 2009년 모교 약대 교수로 부임했다.

오 교수는 "미생물 기반 신약 개발은 천연물 중에서도 지속적인 유효물질 재생산이 쉽다는 점에서 유망하다" 며 "기존에 사용하던 항생 물질의 내성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미생물의 화학물질 생산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모교 약대의 한 교수는 "HHMI는 특정 과제에 대한 지원보다 연구자 당사자의 업적과 능력을 보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 교수의 연구 비전과 약대의 연구력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노벨상 거론됐던 컬럼비아대 김필립 교수

3월부터 모교 물리학부 석좌교수

2년간 교수들과 공동연구

차세대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그래핀(Graphene)' 연구로 지난 해 노벨상 후보로 거론된 컬럼비아 대학의 김필립(45·사진) 교수가 모교 강단에 선다. 모교는 "김 교수가 올 3월부터 2년간 서울대 초빙 석좌교수로 활동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모교 물리천문학부 소속으로 연간 1~2개월 모교에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모교는 물리학과 안에 그래핀과 관련된 '응집 물리' 를 연구하는 교수가 전체 절반에 이르는 만큼 협동 연구를 통해 상당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핀은 기존 물질보다 가볍고 휘어지며 전기가 잘 통하는 신물질이다. 양산될 경우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등 혁명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김 교수는 모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2001년부터 컬럼비아대 교수로 재직해왔다.

김 교수는 당시 최고의 수재들이 몰린 모교 물리학과에서도 눈에 띄는 학생이었다. 석사과정 지도를 맡았던 김정구 교수는 "당시 김 교수는 아주 특별한 학생으로 전공 강의만 듣던 다른 학생과 달리 고체물리를 전공하면서 입자물리 강의까지 듣는 등 물리학 전반에 관심을 보였다" 고 했다.

김 교수는 1990년대 후반 하버드대 박사과정 때 '멤스(MEMS)테크놀로지(미세전자제어기술)' 라는 새로운 기술에 주목했다.

이후 '나노튜브' 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래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 교수의 연구가 막바지에 다다랐던 2004년 경쟁 연구팀이던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안드레 가임·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가 그래핀을 흑연에서 분리해내는데 성공했다. 2010년 가임 교수 등은 그래핀의 존재를 처음 입증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다.

김 교수는 노벨상을 놓친 직후 "아쉽지만 과학자의 최종 목적은 상이 아니다. 연구과정을 통해 많은 걸 배웠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고 말했다.

지난해 모교를 방문했을 때는 "과학자에게 중요한 건 수식이 아니라 말로 설명해내는 것이다.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소통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 고 학생들에게 조언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김 교수가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의 롤모델이자 멘토가 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모교-하버드대' 로스쿨 학생 교류

모교가 하버드대와 법학 전공 학생간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모교 법학전문 대학원(로스쿨)은 최근 하버드대 로스쿨과 학생 교류협정을 맺었다고 지난 1월 26일 밝혔다.

모교 로스쿨에 따르면 두 학교는 오는 3월부터 매년 같은 수의 학생을 선발해 교환학생으로 1~2학기씩 상대 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하기로 했다.

모교 로스쿨 학생들이 추가로 학비를 내지는 않으며 현지에서 수강한 강의는 본교 학점으로 인정된다.

모교 정종섭 로스쿨 원장은 "최근 마사 미노우 하버드 로스쿨 원장과 이 같은 내용의 교류 협정서에 서명했다" 고 밝혔다.***

←러시아 측에서 밝힌 '털북숭이 유카기르 매머드' 의 상상도.

황우석 박사 매머드 복제 계획

러시아서 매머드 DNA 제공에 합의했다고 밝혀

황우석 박사가 매머드 복제 연구를 위해 러시아 과학자들로부터 맘모스 DNA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한국 사하 매머드 조직위원회' 가 최근 밝혔다.

한국 사하 매머드 조직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특설전시장에서 '2012 러시아 야쿠트 매머드 대탐험전' 을 개최했다.

황우석 박사는 지난 해 이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 러시아 연방 사하공화국의 북동연방대학교(North & East Federal University) 미하일로바 예프게니아 총장, 사비노프 그리고리 연방 대학박물관장, 표도로프 세르게이 수석연구원 등과 미팅을 가졌다. 이 미팅에서 매머드 DNA 제공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한국 사하 매머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황 박사팀에 제공될 매머드 DNA는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유카기르 매머드' 에서 추출될 예정이다.

유카기르 매머드는 2003년 영하 71도까지 내려가는 빙하층에서 발견됐는데, 뼈와 살, 뇌의 일부가 언 상태로 그대로 보존된 세계 유일의 매머드 원형이라고 이 위원회는 주장했다.

황우석 박사는 지난 해 10월 '코요테 복제 성공' 을 발표하면서 차기 연구목표로 매머드 복제를 언급한 바 있다.***

시사만평

박준창(인문대 79·변호사)

차 례

3.동학 민중봉기와 정한론/ 민족 통일을 기다리며
4.특집<암>황성주 박사의 '암은 없다'
5.특집<암>김의신 박사의 '종류별 치료'
6.새로운 세계를 보는 눈/ 서울대인과 애교 쇼비니즘/ 원점
7.Mad Scene,Opera 'Pirata Ana Bolena' 에서/ 동문 시 감상(고향 유정)
8-10. 미주 동문 동정
11.2012년 동포사회의 과제/ 모교소식
12.부러울만큼 발전중인 양안관계/ 동문 시 감상(나무)
13. 법창일화<6>전복위화(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
14.인류학<6>치사한 사냥꾼 인간의 진화/ 정치 철학의 소고<2>
15.이달의 초대석<3>강수상 전 동창회장
16-18. 지역 동창회 소식
19.단일민족에서 다문화 가정/ 피렌체 '꽃의 성모' 대성당의 등근 지붕<1>
20.<이명묵 동문 독일 여행기<1>역사의 현장에서 당시를 돌아보다
21. 고국 동문 동정
22-23. 동창회비·후원회비 명록/ 미주 총동창회 2012년 7월 Alaska Cruise 안내
24-29. 동문 업소록
30. 동창회 조직과 각 지부 회장단
31-32. 광고

2□□ 3~21□_Aug_Rev 2012-02-12 □□ 10:33 Page 1

<기획> 동학(東學) 118주년

동학 민중봉기와 정한론(征韓論)

민상기(의대 60졸)

1894년 2월(서적에 따라 1~3월)의 동학(東學) 민중봉기는 흔히 알려진 대로 조선내 민중과 정부 사이의 단순한 충돌 관계가 아니라 일본의 '정한론(征韓論)' 실천 과정으로 비밀리에 조종돼 왔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한다.

▶천진조약= 갑신정변 다음 해인 1885년 일본과 중국(청) 두 나라는 어느 쪽이든 조선에 군대를 파견시 서로에게 통보하기로 합의한 천진조약을 맺게 된다.

이미 정한론에 따라 기회만 노리던 일본으로서는 1894년 동학 농민 봉기가 일본군 파견의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다. 조선 정부가 동학 농민 봉기 제압을 위해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이자 일본군이 천진조약을 빌미로 곧 따라 들어온 것이다.

일본은 이미 천진조약이 있기 4년 전인 1881년 조선 정벌을 위한 선발대로서 비밀 사조직인 현양사(玄洋社)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동학 민중봉기의 발생지= 동학 민중봉기는 왜 전라도에서 일어났을까.

당시 조선 지방 관리들의 부패상은 전국적 추세로 전라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으며 고부 군수 조병갑류의 부패 관리는 팔도강산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유독 전라도에서 동학 민중봉기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동학 민중봉기가 있기 2년 전인 1892년 전라도 삼례(參禮)에서 종교(동학)의 자유와 동학 창시자 최제우의 명예 회복을 위한 대회에 수천명이 모였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당시 수천명이란 민중 모임은 어마어마한 힘의 과시였고 이들의 요구사항이 정부에 의해 좌절됐을 때 불만은 대단했을 것이고 잠재적 폭발력을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일본은 당시 조선의 반일친중 정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런 정부를 피롭히고 전복할 절호의 기회로 맞이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둘째, 당시 동학 조직은 전라도 중심의 전봉준으로 대표되는 남접(南接)이 민중봉기의 적극적 세력이었으나 충청도 중심의 최시형이 지도하는 북접(北接)은 초기에는 평화적 저항세력으로 알려졌다.

셋째, 동학 민중봉기는 전봉준 한 사람이 자기 정치이념을 실천키 위해 민중을 설득, 집단봉기를 일으킨 하향식(下向式) 사건이 아니라 다수 민중들이 의분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어나 전봉준을 지도자로 받들고 봉기한 상향식 사건이었다.

정부 심문관이 전봉준에게 묻기를 "왜 당신은 반란군을 지휘했는가?" 하니, 그는 "민중이 봉기해 지휘를 부탁하기에 그들 말을 들었다. 수천명의 민중들이 나의 집을 둘러싸고 부탁했다. 나는 그들을 따랐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모이고 봉기의 뜻이 있었으며 그 뜻을 받아들인 지휘자가 있었기에 전라도에서 봉기가 가능했을 것이다. 일본 밀정들이 이런 기회를 지나칠 수 없었을 것이다.

▶일본 비밀 사조직(玄洋社 Genyosha, Dark Ocean Society)= 이 조직은 1881년 도요마 미츠루(頭山滿 1855-1944)에 의해 만들어진 비밀 극우 세력단체로 중국과 만주, 특히 조선 정벌을 위한 선발대원으로 지형정찰과 정보수집, 테러 행위 등 온갖 수단으로 일본 제국주의 침략행위를 지원했다.

이미 지적했듯이 동학봉기를 부추겼고 명성황후 시해에도 가담했다는 기록이 있다. 도요마의 제자 우치다 리오헤이(內田良平 1873~1937)는 스스로 조선에 들어와 동학 민중봉기를 도왔다고 한다.

일본 육군 참모부의 가와가미 소로쿠(川上操六 1848~1899)는 "일본군 참전을 합리화 하기 위해 조선에 불안을 조성하라" 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반일 단체로 위장한 밀정들이 일본인들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동학의 반정부 운동을 시작했다는 기록도 있다(Japan's Dark Background).

특히 강창일(姜昌一) 선생의 논문초록(天佑俠와 조선문제:조선 낭인의 동학 농민전쟁의 대응과 관련해서. 東京大學 1988)은 주목할만 하기에 일부 소개한다.

'…외국군의 주둔으로 조선 독립이 위태롭게 되자 농민군들은 관군과 타협, 자발적으로 해산했다. 이즈음 일본 낭인(浪人)들 집단이 부산에 '오자키 법률 사무소' 를 이용, 온갖 정치활동을 해왔다. 이들은 농민 봉기를 반정부 투쟁으로 인식해 동학군에 협조, 명성황후 정부를 타도하려 했다. 1894년 14낭인들은 天佑俠를 조직, 폭발물로 무장하고 전라도 동학군에 가담했다. 이들은 전봉준을 만나 다시 일어설 것을 종용했지만 실패해 이들은 명성황후 살해에 가담하게 됐다.'

대부분, 아니 내가 접한 역사 교과서들은 이런 일본 관여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인들 서적에는 비교적 소상히 기록돼 있다.

미국 MIT교수 John W. Dower의 'Origins of the modern Japanese State 1975' 에서 많이 배웠다.

▶동학 민중군과 관군의 휴전= 동학 민중들이 봉기한 것이 1894년 초(서적에 따라 1월 10일, 2월 19일, 또는 3월 21일)이고 전라도 고부에서 북진, 전주를 점령한 것이 그해 4월 27일, 조선 정부 요청에 따라 청군이 도착한 날이 그해 5월 5일이며, 일본군은 5월 6일로 기록돼 있다.

민중군과 관군이 휴전에 합의하고 민중군이 전주에서 철수한 날이 그 해 5월 6일경이라고 한다. 사실 1894년에는 조선에서 민중봉기, 청군과 일군 도착, 휴전, 청일전쟁, 일본군 경복궁 점령과 친일 내각, 동학 민중 재봉기 등 중요한 사건 등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는데 정확한 날짜 기록이 없다(우리 나라 역사 서적의 허술함과 대충 대충 넘어가려는 태도가 시정되기 바란다).

중요한 것은 전주 휴전의 이유가 무엇이냐에 있고 이는 동학 민중봉기 평가의 열쇠가 된다. 내가 접한 역사 서적들은 민중과 관군이 각기 자기들 이해득실에 따른 국내적 시각에서 휴전 이유를 기록하고 있다.

예컨대 '사기저하' '화폐개혁 약속' '남접과 북접의 대립 불화설' 등이다.

이기백 교수는 그의 책(한국사 신론 1976)에서 '청군이 들어오고 뒤이어 일본군도 출동해 양국 사이에는 점차 험악한 정세가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하루 속히 민중 동학군을 회유해 해산시킬 필요를 느끼고 휴전교섭을 제의했다' 고 기술, 정부 쪽에 휴전의 공(功)을 주는 인상을 보였지만 이는 이미 지적된 강창일 선생의 논문 초록 내용(외국군의 참여로 조선 독립이 위태로와져 자진 해산했다)과 다르다.

노정선 교수도 논문(Religion and just Revolution 1984)에서 '전봉준의 철수 동의는 일본의 군사 점령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한 순수한 생각 때문' 이며 '휴전 정신이 일본 간섭에 어떤 합리화 기회를 제공치 않으려는 것' 이라는 평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동학 민중봉기가 일단 끝났으면 (휴전) 외국군은 철수해야 마땅했으나 일본군은 조선과 중국의 철수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 주둔해 경복궁을 점령하고 친일 내각을 구성해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말이 청일전쟁이지, 조선 영토(아산만과 평양)에서 청군을 몰아내고 조선을 독차지 하려는 수단이었다. 일본 천하에 동학 민중들이 재봉기했으나 일군과 관군에 의해 피해 동학 민중봉기는 막을 내리게 됐다.

▶동학 민중봉기의 성격= 동학 민중봉기는 권력의 편에서 기술하는 '난(Rebellion)' 이 아니었다. 조선은 맹자의 민본사상(民本思想)이 저변에 흐르는 나라였다(정도전의 건국이념). 부패한 지방 관리들의 폭정에 시달릴 대로 시달리던 민중들이 더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일어난 것이다. 즉 맹자사상의 발로였다.

그러하다고 해서 동학 민중봉기를 혁명으로 평가하는 것은 비약일 것이다.

동학 민중봉기 때의 창의문(倡義文)이나 12개 요구 사항 어디에도 혁명적 요소는 없다.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주장하고 '서정(庶政)에 정부와 협력할 것' '왜(倭)와 간통하는 자를 엄징할 것' 등을 명시했지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권력체제를 추구하지는 않았다.

순수한 뜻에서 동학 민중봉기가 일본의 불순한 침략 야욕에 악용됐음은 비극이었다.

▶일본의 정한론= 1868년 일본의 명치 유신 이후 정한론은 일본 정계에서 꾸준히 논의돼 왔으며 "당장 정벌하자" 는 급진 극우 세력으로 사이고 다가모리(西鄕隆盛 1827~1877)가 밀려나고 점진적 정한론자들이 집권하면서 40년 동안 계획돼온 것이었다.

그 과정으로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청일전쟁(동학 민중봉기), 1904년 노일전쟁 등 10년 주기로 일을 벌여 왔던 것이다.

망국적 갑신정변이 첫 신호탄이 된 것이다. 정한론이라는 먹구름이 조선의 하늘을 가릴 때 권력욕에 사로잡힌 인물들이 일본을 등에 업고 제 나라 정부에 칼을 휘둘렀던 것이 갑신정변이다. 그것이 '개혁이며 독립세력' 이라고 역사서적은 기록하고 있다. 식민지사관의 절정이다.

▶우리의 반성= 우리의 글과 말이 있고 조상들이 물려준 몇 천년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들이라면 일본인들이 써주고 세뇌시킨 역사의 틀에서 벗어나 자주적 역사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니면 일본 현양사(玄洋社) 후예들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한반도를 바라볼 것이다.***

←사진은 동학운동 당시의 일본 경찰과 우리 조선인들 모습이다.

민족 통일을 기다리며

박평일(농대 69)
미주 동창회 감사

진보여! 보수여 !
나는 이미
그대들의 호화찬란한 행사들에 눈이 멀었고
나는 그대들의 거창한 함성소리에 귀가 멀었다

이제 나는
그대들이 서 있는 땅 위에 피어나고 있는
한송이 꽃 향기에 취해보고 싶다

나는 지금,
초저녁 동쪽 하늘에서
내일을 채우며 떠오르는
탐욕스런 초승달이 아니라
새벽녘 서쪽 하늘에서
내일을 위해 자신을 스스로 불태우며 사위어가는
그믐달을 보고 싶다

나는 그대들이 부르짖고 있는
자유와 평등의 이상향을
더이상 믿지 않는다

나는 그대들의 현재 모습을
보고 싶다

그대들이 가정, 이웃, 교회, 사회 사이에
가꾸어 놓은 그대들의 정원을
보고싶을 뿐이다

나는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다
내가 필요한 것은 장미빛 사랑의 계획서가 아니라
빛바랜 당신들의 옛 수표뭉치다

나는 민족을 사랑한다는 그 속삭임에 지쳐 있고
요란한 구호에 병들어 있는 사람이다

그대들의 심장에서 빵 한 쪽을 나에게 꺼내달라
그 뜨거운 빵 한 쪽이 나의 배를 채워줄 것이다.

나는 값비싼 그대들의 사랑을 기대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따뜻한 이해의 눈길과
촉촉히 젖어 있는 연민의 눈동자일 뿐이다

탐욕으로 시작된 자유와 평등,
미움과 증오가 이룩한 통일은
또 하나의 지옥이라는 것 쯤은 나도 이미 알고 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새 날을 위해 사위어 가는
저 선달 그믐달의 마음을 품어 볼지라 !

<버지니아 숲 속에서 해암>

***동문 제현들이 기고해주시는 모든 글들은 본 미주 동창회보 편집 방향과 일부 다를 수도 있습니다.**

2□□ 3~21□_Aug_Rev 2012-02-12 □□ 10:33 Page 2

특집<암> 황성주 박사 칼럼

"암은 없다!"

현재 병원에서 사망하는 환자 3~4명중 1명은 암환자라고 할 만큼 암은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통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무서운 질병도 예방에 주의하거나 정기 검진으로 조기 발견, 또는 걸렸더라도 적절한 치료법을 찾을 경우 치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동문 중 암 전문가들로부터 암에 관한 특집을 연재한다.

암 재발 방지와 치료를 도와줄 강력한 지원군으로서의 면역요법

▶면역력은 암의 발생과 재발을 좌우한다= 암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최종의 목적은 건강한 몸입니다. 몸을 밭이라 한다면 매일 먹는 음식은 밭에 자라는 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암을 치료 하는 것에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더라도 우리 몸이 좋은 방법을 수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즉, 좋은 작물을 수확하고 싶더라도 밭이 좋지 않으면 좋은 수확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암 치료를 위해서는 식생활을 통해서 일단 암 치료에 적합한 최적의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건강의 밭에 좋은 열매가 열리도록 도와줄 지원군들의 투입이 필요합니다. 그 지원군으로서 면역요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암의 발생은 신체의 정상세포가 돌연변이로 발생되어 신체의 통제를 받지 않고 혼자 멋대로 자라나면서 나타납니다. 세포의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고 발생하는 경로도 매우 복합적입니다.

특별히,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도 하루에 수십~수백 개의 돌연변이 세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독성 요소와 더불어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신진대사의 저하도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매일 계속해서 발생하는 돌연변이 세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발생한 돌연변이 세포들을 즉각적으로 제거하는 강력한 신체방어 시스템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면역>이라는 것입니다.

면역은 외부로부터 가해져 오는 공격에 대항하는 내부의 저항력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생체의 내부 환경이 외부 인자인 항원에 대하여 방어하는 현상'이며, 더 쉽게 풀이하면 '외부의 침입자(미생물 또는 바이러스 등)에 대해서 신체가 저항하는 저항력'을 의미합니다.

면역을 뜻하는 영어단어 'immunity'는 '역병에서 피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immunitas'에서 유래했으며, 한자어로도 '전염병(疫)을 피한다(免)'라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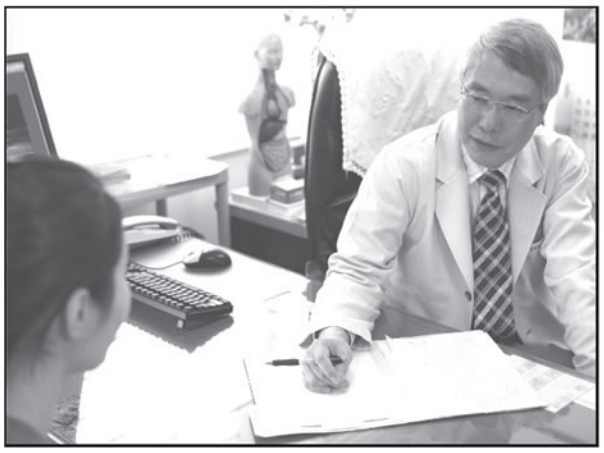
하지만 실제로 면역은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고 막아내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면역력을 외부의 침입자에 대항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의학의 발달 과정상에서 실제로 '나(Self)'가 '아닌 것(Non-Self)'을 제거하여 '나'를 보호하는 힘으로 규명되었습니다.

이 과정상에서 돌연변이 된 세포(암세포)를 '남(Non-Self)'으로 인지해 면역력을 담당하는 면역세포들이 돌연변이 세포를 제거함으로써 암으로의 발전을 막아 암이 발병하는 것을 억제해주게 되는데, 이것은 암의 재발을 막아주는 과정상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암의 발병 과정상에서 면역력은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폭격 '화학요법' vs 저격수 '면역요법', 상황에 따른 차별적 선택이 중요= 암의 치료 과정상에서 면역력의 강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작용합니다.

첫번째는, 면역력에 의해서 현재 자라고 있는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것입니다.



←황성주 박사(오른쪽)가 환자의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것은 면역세포들이 새로이 발생한 돌연변이 세포를 제거하듯이 현재 성장하고 있는 암세포들을 제거해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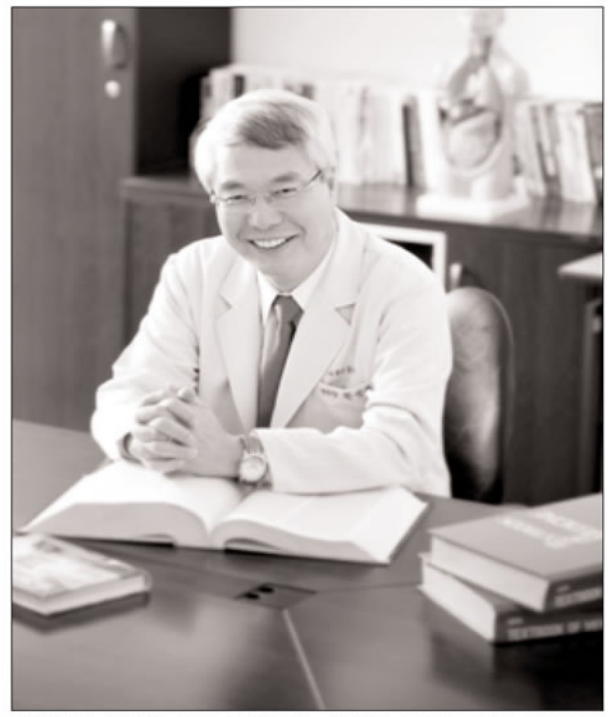
두번째는, 신체를 강화하여 신체 방어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암환자들의 치료법으로 사용되는 화학요법제나 방사선 치료법은 신체의 방어력을 크게 저하시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포함하여 건강을 손상시키게 되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암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면역력 강화를 통해 신체 방어력을 증강시킴으로써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화학요법을 포함한 암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면역력 강화를 강조하는 암 치료법을 <면역요법(Immunotherapy)>이라 부릅니다.

암 치료에 있어서 면역요법의 최대 강점은 면역력이 '나'와 '남'을 구별하는 면역력의 가장 큰 특성인 특이성(Specificity)에서 더 강조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되는 화학 요법제는 과거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강력한 기능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암세포에 대한 확실한 특이성을 가지지 못해서 암세포와 더불어 정상세포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항암제 부작용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황성주 박사의 최근 모습이다. 황성주 박사는 미주 동문들을 위해 건강과 암에 대한 글을 몇 차례 연재한다.

"'면역요법'은 암의 재발을 방지하고 치료를 돕는데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다. 최상의 면역요법은 영양면역요법+운동면역요법+정신면역요법이다"

반면에 면역력을 강화하는 면역요법은 암세포에 대한 특이성을 가지고 암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정상세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화학요법이 다수의 적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아군지역의 피해도 불사하는 전략폭격식 공격방법이라면 면역요법은 적군 하나 하나를 정밀하게 공격하는 저격수 타입의 공격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세포가 활발하게 성장하며 그 세를 키워나가고 있을 때에는 화학요법 같은 강력하고 빠른 공격방법이 유용하다고 할 수 있고, 면역요법 같은 방법은 폭격에서 살아 남은 적군을 하나씩 정밀하게 공격하거나 화학요법의 효과가 없거나 환우의 상태에 의해 화학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법으로서 유용합니다.

즉, 두 가지 방법 모두 암 치료에 있어서 유효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우의 상태에 따라서 순차적 또는 두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치료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치료법의 사용은 많은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암 치료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적절한 선택과 적용이 필요합니다.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자연면역요법'= 그러나, 암을 치료하는 데는 세 가지 불변의 원리-i)암이 발생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 ii), 발생한 암을 제거하는 것 iii), 마지막으로 암이 발생(재발)하지 않도록 면역력을 증강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암 치료의 숨겨진 열쇠는 면역력 증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이 발생했다는 것은 면역력이 정상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며 대다수의 경우 수술이나 방사선, 항암 화학 요법으로 치료를 한 뒤에 면역력이 더 떨어지고 심지어는 고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할 때나 치료 후에 반드시 면역력을 높여서 '암이 생길 수 없는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암 환자의 몸 안에서 면역세포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환자 자신이 암을 일으키게 만든 장본인이므로, 원인을 제공한 환자의 몸 환경을 면역력이 높아지도록 스스로 바꾸게 해야 합니다.

부작용 없이 면역력을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면역세포가 스스로 암세포를 찾아내어 살상하게 하는 방법, 즉 밖으로부터의 치료가 아니라 안으로부터의 면역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향을 반영하여 최근, 면역요법의 원리를 대체 의학과 접목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암을 치료하려는 자연 면역요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자연 면역요법은 발생한 암세포를 단순히 제거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암이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치료법입니다. 내 몸의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을 키워서 암세포와 힘껏 싸우게 하고 암세포가 더이상 자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체가 원래 지니고 있는 저항력을 높여서 항암제에 버틸 수 있는 힘을 길러 주기 때문에 몸 상태를 더 이상 암세포가 발붙일 수 없는 건강한 상태로 만듭니다.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한 영양면역요법= 영양 면역요법은 가장 중요한 보조 요법입니다.

식이요법의 원칙은 암의 원인이 되는 발암물질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최상의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과도한 동물성 지방이나 인공 식품, 인스턴트 식품 등을 배제하고 가능하면 자연식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암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으로 음식 먹는 것을 회피하거나 자연식을 맹종하거나 하여 결국 영양 부족 상태에 빠져서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무지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필자는 식이요법을 철저하게 지도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자연식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영양을 섭취하도록 하되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체가 과도한 손상을 받은 경우에는 육류를 포함해서 음식을 제한하지 않고 환자가 좋아하는 일반식을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5면에 계속>

2□□ 3~21□_Aug_Rev 2012-02-12 □□ 10:34 Page 3

↑미국 휴스턴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 의 의사들이 특수 장비를 이용해 암수술을 하고 있다. 미국 병원에서는 암의 상태에 따라 수술보다 약(항암제)이나 방사선을 이용한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도 많다(MD 앤더슨 암센터 제공).

특집<암> MD앤더슨 김의신 박사 칼럼<3> 종류별 치료

'튀는 암' 은 항암치료 먼저 '얌전한 암' 은 수술을 먼저

김의신(의대 66년 졸)
MD 앤더슨 암센터 종신교수

온 몸에서 증구난방 크는 암은 항암제 쓴 뒤 암 덩어리 제거, 한 곳에서만 크는 순한 암은 수술로 없애는 게 요즘 추세. 암 덩어리에 암 세포 수조(兆)개… 암 발견 당시 전이 가능성 커 무턱대고 제거하면 오히려 효과없어….

한국에서 폐암에 걸린 환자가 지난 해 이곳 MD 앤더슨 암센터에 왔다.

환자는 "폐암 덩어리와 그 주변 폐를 다 절제하면 나을 수 있다" 는 말을 듣고 왔다고 했다. 그러니 빨리 수술을 해달라는 거였다.

▶한국인은 무조건 수술 독촉= 하지만 조직검사를 해보니 암세포의 성질이 재발이 잦은 '고약한 타입' 이었다. 폐암 형태도 수술을 단박에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크기였다.

이곳 의료진은 "먼저 항암제 치료를 하고 그것으로 폐암 크기가 줄어들면 그 때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 고 했다.

그러나 이 환자는 수술을 당장 받지 못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수술에 매달렸다. CT(컴퓨터단층촬영)에서 뻔히 암 덩어리가 보이는데 불안해서 못살겠다는 것이었다. 수술을 받으면 낫는다고 들었는데 항암제를 먼저 먹어야 한다니 내키지 않는 모양이었다.

미국과 한국 병원의 암 치료법 중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 일부 한국 병원에서는 아직도 암 덩어리를 발견하면 무조건 수술로 일단 떼놓고 보자는 생각을 가진 것 같다.

▶종자와 토양설= 예전에는 수술로 암을 제거할 수 있다면 수술이 먼저라는 게 원칙이었지만, 요즘 이곳 'MD 앤더슨 암센터' 는 그런 생각을 접었다.

암세포의 행동 패턴을 설명하는 오래된 이론이 있다. '종자와 토양(Seed & Soil) 설' 이다. 쉽게 말하면 폐암 세포는 폐에 가서 살림집을 지으려 하고, 유방암 세포는 유방에 가서 집 지으려 한다는 것이다.

눈에 뜰 정도로 커진 암 덩어리에는 이미 수조개의 암세포가 있다. 그중에는 이미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다른 부위로 날아간 암세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의 유방암 경우를 보자. 암이 유방에서 발견됐다고 유방을 싹둑 절제하면, 집 나간 유방암 세포는 살 집을 잃고 뇌나 뼈 등 다른 곳에 정착할 가능성이 있다.

드물긴 하겠지만 암 덩어리부터 제거하면 뒤늦게 다른 곳에서 암이 재발할 수도 있다.

수술이 잘되어 깨끗하게 나았다고 믿고 있다가, 암이 다른 곳에 재발해 낭패를 본 경우의 상당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암은 '전신병(全身病)' 이다.

▶암세포 성질 파악이 급선무= 이곳 'MD 앤더슨' 에서는 수술하기 전 조직검사로 암세포를 소량 떼어내고 분자생물학적 검사나 병리학적 조사로 암세포의 성질을 조사한다.

암세포가 증식을 빨리하는 고약한 타입인지, 중구난방으로 자라는 '튀는 형' 인지, 암 발생에 관련된 유전자가 악성(惡性)인지 등을 파악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런 특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설사 수술로 뗄 수 있는 암 덩어리가 달랑 하나라도 수술을 먼저 안 한다.

본래 자리 잡은 '암 집' 은 당분간 건드리지 않고, 항암제 치료로 만에 하나 집 밖에 나가 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먼저 소탕한다.

수술은 나중에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치료 효과가 좋다는 것이 이유다.

그 사이에 원래 있던 암 덩어리도 크기가 줄어들기도 한다. 물론 각종 검사에서 암세포 성질이 '얌전한 것' 으로 나오면, 수술로 먼저 제거한다.

하지만 상당수 한국 암환자들은 수술에 목맨다. 종양내과와 외과가 잘 협동 진료하는 곳은 항암제·수술 복합 치료를 하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있다.

한국 의사들에게 환자를 설득해서 보다 확실한 치료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면, "환자들이 자기 몸에 암 덩어리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을 못 견뎌 한다" 고 대답한다.

대부분의 경우 수술로 확 잘라내어 CT 사진에서 일단 암이 안 보여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이다. 이는 과학적인 사고가 아니다.

▶무조건 대형병원 찾는 것도 지양해야= 암 치료법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의술도 변한다.

미국의 여러 유명 암센터가 있는데 과거에는 수술 잘하는 병원이 최고로 쳤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항암치료와 수술을 조화롭게 잘하는 암센터의 명성이 더 올라갔다.

한국 병원의 암 치료 형태 중에서 또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서울의 몇몇 대형 병원에 암 환자가 너무 집중돼 있다. 대형 병원의 유명 의사한테 수술만 잘 받으면 암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이 많아서일 것이다.

'MD 앤더슨' 이 세계 최고 암센터라고들 하지만, 다른 병원에서도 고칠 수 있는 '일반암' 을 여기서 치료받겠다고 먼 곳에서 찾아오는 미국 환자는 드물다.

다른 병원에서 고치기 어려운 복잡한 케이스이거나, 암 종류가 매우 드문 것이어서 전문가를 쉽게 찾을 수 없을 때 주로 이곳에 온다. 한국처럼 무조건 서울 대형병원을 찾는 식은 아니다.

암은 편안한 마음 상태에서 편리한 환경에서 꾸준히 치료받아야 잘 낫는다. 그런 면에서 암은 평생 꾸준히 관리하고,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다.***

<4면에서 계속>

▶암을 정복하기 위한 운동 면역요법= 운동 면역요법은 적절한 신체 활동을 통하여 최상의 신체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온열 요법·산소 요법·목욕 요법·전신마사지 등의 물리 요법은 통증을 약화시키고 면역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독일에서는 암환자들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실내에서 사이클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대체로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한 암 전문 병원들은 그 자체로 치료 효과를 더해주는 자연환경을 벗 삼아 환자들이 하루 2~3회씩 가벼운 산책을 하도록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공예·자수·그림·무용 등의 활동을 통하여 자아 회복과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한편 규칙적인 신체활동으로 자신감 있는 투병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암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정신 면역요법= 암환자들은 대체로 자기 상실감, 불안감, 우울증 증세(불면증, 식욕 상실)를 보이므로 정신적 회복이 암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암과 싸우는 것 이외에 다른 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자일수록 암 성장이 빨라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환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고통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또 환자가 의학의 한계에 절망할 때는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를 하여 환자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암에 맞서 완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한 체온 건강법= 독일에서는 암환자의 면역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환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자 또한 '사랑의 클리닉' 에서 이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은 면역 상태를 100퍼센트 반영합니다. 몸의 체온에 따른 면역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온에 따른 건강 상태

- 36.5도: 건강체, 면역력 왕성.
- 36.0도: 오한으로 열 생산을 증가시킴.
- 35.5도: 이 상태가 지속되면 배뇨 기능 저하,자율신경 실조증상 출현, 면역 반응 이상.
- 35.0도: 암세포가 증식하는데 가장 적합한 온도.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 30퍼센트 감소.

일반적으로 체온이 정상 체온보다 떨어져 있거나 불규칙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암환자가 체온이 낮고 불규칙하면 면역 상태가 약하거나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모든 암환자의 체온 측정을 권장합니다. 평균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36.5도 → 35.5도) 면역력은 30퍼센트 감소하고, 반대로 평균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30퍼센트 정도 증가합니다.

체온과 면역 상태의 관계는 정상인도 마찬가지여서, 체온측정법을 통해 자신의 면역력을 평가하고 암 발생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독일 연구자들은 체온이 저하되거나 불규칙한 특성이 나타나면 5년 이내에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암은 없다" 라는 주제로 암에 대한 기본 지식과 암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면역이란 무엇인지, 면역요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면역을 증강시키는 구체적인 실천 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암 환자들의 FAQ와 저만의 건강 관리 노하우(Gobi March Race 기행문)에 대해 집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황성주 박사 Profile
모교 의대 및 동 대학원 졸업. 의학박사. 예방의학 전문의. 독일 프리덴바일러 병원 및 외셀보른 병원 연수. 한림의대 교수 및 대통령 전용 병원 예방의학과 과장 역임.
현재 사랑의클리닉 원장. (주)이롬 회장 및 생명과학연구원장. 꿈의 학교 이사장. 국제 사랑의 봉사단 국제 대표.
저서 《암은 없다》 《암 재발은 없다》 《꿈의 씨앗을 심어라》 《황성주의 건강하게 사는 법》 《10대, 꿈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암의 재발을 막으려면》 《면역칵테일 암 치료법》 《황성주 박사의 생식과 건강》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 등.

2□□ 3~21□_Aug_Rev 2012-02-12 □□ 10:34 Page 4

<기고> 칼럼·시·수필

새로운 세계를 보는 눈

최용완(공대 57)
동창회보 논설위원·작가

아는 만큼 눈에 보인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는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서쪽으로 지구를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듯하다.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니는 원시인이 이 땅 위에 나타난 것은 수백만년 전부터" 라고 고고학자들은 말하고, 지구가 흥역을 치를 적마다 많은 씨족과 부족이 사라졌다고 한다.

"지금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현대 인류의 조상은 10만년 전쯤에 동아프리카에서 시작됐다" 고 인류학자들은 말한다.

그리고 6만년 전 현대 인류는 동남아시아에서 씨족사회로 모여 살면서 언어가 사회적으로 유통됐기에 현대 모든 민족 언어의 뿌리가 동남 아시아에 집결됐다고 고고학자와 언어학자들은 생각을 함께 한다.

처음에는 나무 작대기와 돌멩이를 도구로 사용하다가 돌을 깨 뾰족한 날을 세워 칼이나 도끼처럼 사용했기에 음식 사냥이 쉬워졌다고 한다.

음식을 불에 익혀 먹다가 숯불과 석탄불에서 쇠가 녹아나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쇠붙이 연장과 무기를 사용하게 됐다.

쇠붙이는 사람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나무를 조각하고 바위를 멀리서 끌어와 쓸모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돌집도 짓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인류는 오랫동안 의존해온 자연의 모습을 사람만이 살기 좋도록 바꾸어 놓기 시작했다. 자연을 뒤집어놓는 짓궂은 일들이 시작된 것이다.

말을 글로 쓰기 시작한 것도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다. 때와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는 소통이 이루어졌다. 넓은 세상은 작아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 속에 시간은 갈수록 짧아졌다.

물건을 주고 물건을 얻어오다가 돈을 만들어내 거래가 쉬워졌다. 숫자를 계산하고 주판이 만들어져 하늘의 별들도 셀 수 있게 됐다. 해 자리와 달 얼굴을 보고 사계절을 나누어 날짜를 세어보며 해마다 때를 가려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농사를 짓게 됐다. 하늘과 땅을 잇는 음양오행의 사상으로 사람과 자연의 연관을 더욱 깊게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자석을 발견하고 나침반을 만들어 땅 위로 먼 길을 다니고 뱃길로 원양 항해를 시작했다.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산다. 조상을 섬기는 믿음과 자연을 우러러보는 믿음으로 시작된 도교와 힌두교가 동남아시아에 서가장 오래 된 생활 종교로 이루어졌다. 인구가 늘고 나라가 커짐에 따라 왕을 모시는 제국 종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동남 아시아 문화에 뿌리를 가진 불교가 인도의 동부 갠지스 강에서 시작해 인도의 서부 인더스 강지역에 분포됐다.

그리스 역사의 기록을 보면 도시국가 왕들이 인도를 찾아와 머리를 깎고 불교를 수련해 지중해 연안에 전해주었다고 한다. 동남 아시아 문화가 지중해 연안에 전해지고 서남 아시아에 기독교가 설립된다.

그 후 기독교 교리를 바탕으로 이슬람교가 설립되며 동유럽과 북유럽의 정통 천주교에서 분가돼 서유럽에서 개신교가 시작됐다. 미국으로 건너온 개신교는 태평양을 건너 동아시아의 원점으로 다시 찾아오게 된 것이 아닌가.

한국은 미국 다음가는 기독교 전도국가다. 우리나라 석굴암이나 인도 불교건축의 원형 지붕은 그리스와 로마로 전해져 이슬람교와 천주교 건축에 원형 지붕을 짓게 됐다.

유럽과 미국의 건축물들이 원형 지붕을 갖게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인이 한국에 지은 총독부 중앙청 건물이나 해방 후 한국 정부가 지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원형지붕이 인도에서 시작돼 서남아시아, 유럽과 미국을 거쳐 다시 우리나라에 오게된 역사의 흐름이다.

유럽 땅의 대부분은 빙하기 얼음에 덮여 있었다. 2만년 전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유럽의 역사가 시작된다.

동남 아시아의 6만년 전보다 수만년 후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다. 동남 아시아에서 사람들이 이미 비단 옷에 쌀밥을 먹을 때 그들은 아직도 얼음에 덮인 주거지 안에서 검은 피부가 하얗게, 검은 머리가 노랗게, 갈색 눈이 파랗게 변화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후 동남아시아의 문화와 문명이 서남아시아를 통해 유럽 땅에 전해져 유럽문화로 시작된 듯하다.

유럽이 중세 암흑기를 겪는 동안 몽골의 칭기즈 칸이 유럽을 점령하고 세계 역사에 가장 큰 제국을 다스렸다. 900년 전에 유럽을 일깨워 세계의 현대역사는 이 때부터 반전됐다.

몽골의 침략군이 무기로 화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유럽은 총을 발명했다. 400년 전부터 총을 쏘는 유럽 국가들은 북 아시아·호주·북남미 대륙에 활을 쏘는 원주민을 몰아내고 땅을 빼앗아 식민지 국가들을 세움은 끔찍하고 슬픈 역사였다.

유럽의 여러 나라로 이루어진 미국은 1·2차 대전에서 군사력으로 승리했다. 서유럽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보급되고 무력 경쟁은 경제적 경쟁으로 바뀌었다. 세계가 한 지붕 아래 살게 된 오늘날 우리는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정보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10만년 전 아프리카에서 현대 인류가 태어나기까지를 인류의 잉태기라고 한다면 동남아시아에 이르러 자연의 젖을 먹고 자란 유년기를 지나 동아시아에 이르러 소년·소녀 기간을 지나며 세계에 문화와 문명의 성장기를 이루었다가 몽골 제국이 유럽을 일깨워 청년기의 현대 세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동안 인류의 생성·감성·지성은 유아기와 성숙하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 그리고 사춘기의 특성을 보였다가 드디어 청년기의 젊은 어른에 이르는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본다.

이러한 새로운 눈으로 창문을 열고 우리 앞에 전개되는 세계의 광장을 내려다 보면 인류의 미래도 볼 수 있게 되는 듯하다. 시험관에서 우주인이 태어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미래 인류의 성숙한 삶이 동남아시아에서 비로소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서울대인과 애교 쇼비니즘

안병찬
모교 동창회 논설위원

서울대 본부가 준 2012년 임진년 달력은 '상상의 동물' 인용 그림 12장을 올렸다. 달력 표지 그림은 충성 '충(忠)' 자를 용오름의 기세로 표현한 조선시대 후기의 문자도(文字圖)다.

목하 모든 대학은 모교에 대한 충성과 애교심을 신조로 내걸고 CEO 총장의 지휘 아래 앞다퉈 치닫는 형국이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달력의 충성 '충' 자는 그것을 실은 본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모교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하는 상징기호를 연상하게 만든다.

서울대인도 모교를 위해 기부 후원을 더 많이 하고 가진 역량을 더 많이 발휘하는 것이 지당하다. 단지 너무 과욕해 내닫지 말 일이다.

마침 1월부터 서울대는 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 '서울대학교 법인화' 는 기업으로 말할 때 독립 채산제와 같다고 비유한다. 어떤 인사는 "정부의 도움도 제재도 받지 않고 스스로 벌어서 운영해 가는 대학 체제이므로 국립의 사립화" 라고 말한다.

물론 이런 의견에 반론이 있다. 서울대는 기업화하는 것이 아니다. 국립대학교 법인은 '공법인' 이므로 일반 법인인 기업과 차이가 크다. 또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정부 지원은 끊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대는 바야흐로 법인화의 날개를 달았다는 설명이다. 비전을 말하자면 '자율적 혁신을 통해 세계로 도약하고 학문적 가치창조의 중심축을 지향한다' 는 것이다.

어느 원로 선배가 지적한 말이 있다. 서울대와 서울대인은 다른 사립대학들과 똑같이 충성과 경쟁으로 과속하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는 "마치 엘리트 주도 세력이 다른 소수세력들과 어깨를 다투는 꼴이 된다" 고 비유하기도 했다. 서울대인은 결코 경쟁 제일주의로 애교(愛校) 쇼비니즘에 사로잡히지 말자는 경구로 들린다.

서울대는 최고의 대학이다. 서울대와 서울대인은 시장주의적 대학개혁의 절정을 보여주는 법인화로 큰 과제를 안고 있다. 부디 최고답게 시장주의를 넘어서 인문주의(人文主義)와 함께 민주성 및 공공성을 지켜내면서 법인화의 두 날개로 비상하기 바란다.***

원점(原點)

박취서(약대 60)

엊저녁부터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다.

뺠강과 흑색이 교차된 천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우산을 쓰고 새벽에 집을 나섰다. 집에서 30여분 걸어서 Ralph B. Clark Regional Park 이라는 공원 입구에 7시쯤 도착했다.

공원에 들어서서 Trail 길을 따라 Interpretive Center 건물에 들어선다. 이 널따란 공원에 아직 아무도 없다. 건물 남쪽으로 나 있는 공간에 서서 비내리는 풍경을 바라본다.

부슬비를 맞으며 흰색 무녀의 갈색 오리들이 호수 수면위를 헤엄치고 있다. 아마도 100여 마리는 족히 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즐기면서 멘손체조와 내가 개발한 한(韓)윤(輪)공(功) Practice 를 30여분 동안 하면서 몸을 푼다.

공원 주위 나무들의 이파리와 가지를 타고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어느 나뭇가지에서 갈색의 예쁜 새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며 빗물을 맞으며 물놀이를 하고 있다.

공원 Trail 길을 따라 1시간 정도 걷기운동을 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 집에 오니 정확하게 2시간 20분이 걸렸다. 공원으로 오가는 길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외운다.

가톨릭 성가 177번인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 과 김국환 이라는 가수가 부른 '타타타' 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린다. 가수 박상규가 부른 '조약돌' 이라는 노래도 다시 불러본다.

이제 내 나이 만 70을 넘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7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쳐 가버린 것이다. 공자님께서는 70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慾不踰矩)' 라고 하시면서 73세에 그의 삶을 마무리 하시었다.

나는 작년 2010년까지 Rite-Aid 라는 회사에서 Floating Pharmacist(떠돌이 약사)라는 직책으로 일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일손을 놓았다.

요즈음은 일에서 해방돼 온전히 나의 시간을 만끽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제껏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의 평범한 소시민으로, 남편 노릇과 아버지 노릇 하면서 내나름으로는 열심히 살아왔다.

이제는 할아버지 노릇이라는 새로운 일거리가 생겼다. 집안에서 장남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해 돌아가신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삶은 무엇인가?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면서 나머지 여생(餘生)을 살아야 할것인가?

얼마 전에 다석 류영모와 바보새 함석헌을 나의 Mentor로 모시면서 나머지 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여생 계획표를 마선생(나는 Wife에게 '선생(先生)' 이라는 존칭어를 붙여준다)에게 보여주었다. 그 계획표에는 이제부터 무엇을 성취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목표는 없었다. 건강을 조심하며 열심히 살다 죽기 전 자서전(自敍傳)을 한 편 써서 두 외손자들을 위해 영문으로 번역해놓고 가겠다는 소박한 계획표였다.

죽은 다음에는 일평생 몸과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지은 이 육신을 지상에 묘를 만들어서까지 그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다. 나의 정신과 영혼을 더 이상 흔적을 남기면서 더럽힐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죽은 뒤 화장(火葬)한 후에 그 재를 태평양 바다에 뿌려 달라고 두 딸과 사위에게 유훈(遺訓)으로 남겨놓았다.

나의 영혼은 죽은 후에 한 마리의 커다란 새가 되어 태평양 상공으로 비상하여 고국 산천으로 날아가도록 하고 싶다. 이제부터 나의 삶은 덤의 인생인 것이다.

가수 김국환이 부른 '타타타' 라는 노래의 가사 중 '알몸으로 태어나 옷 한 벌은 건졌잖소' 라는 말 처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70평생에 그래도 많은 것을 이루고 누리면서 살아 왔다. 하느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따름이다.

하늘의 축복인 양 조용히 내리는 빗물처럼 마음 한 구석에 잔잔한 평온이 나를 감싸오고 있다. 오늘이 내가 살아가야할 25,659일 째의 날이다.

지난 달 LA 연경반(硏經班)이라는 Class에서 다석 선생의 '가온찍기' 라는 제목으로 Presentation을 한 날부터 나는 내가 살아 온 날 수를 헤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늘의 뜻이 앞으로 나에게 얼마나 많은 날 수를 허락하실지는 알 수 없으나 하루 하루의 오늘 살이에 충실할 생각이다. 지금 바로 여기 이곳이 내가 나아가야 하는 삶의 원점(原點)이다.

이 원점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내가 탄생되어야 한다.***

<LA. Fullerton 자택에서>

2□□ 3~21□_Aug_Rev 2012-02-12 □□ 10:34 Page 5

기고

Mad Scene, Oprea 'Pirata · Anna Bolena' 에서

한혜원(의대 55)

벌써 40여년이 되어버린 1969년 어느 날 보스톤 하바드 클럽에서 레코드 하나를 샀다.

Maria Callas의 Mad Scenes이었다. 그 안에 Anna Bolena, Hamlet, Il Pirata라고 써 있었는데 그 때 내가 알아본 이름은 Hamlet 뿐이었다.

훨씬 후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오페라 중 Mad scene(광란의 장면)으로 유명한 오페라들이 여럿 있는데 여자들이 미치는 경향이 많은 이유인지 오페라에서는 여주인공들이 정신이 착란돼 부르는 일이 많다.

도니제티 작곡의 Lucia di Lammermoor·Anna Bolena·Linda di Chamounix, 벨리니 작곡의 I Puritani·Il Pirata·Thomas의 Hamlet이고 남자가 미치는 오페라는 베르디 작곡 Nabucco에서 뿐이다. 그중에서 '라멜뮬의 루치아' 에 나오는 광란의 장면이 가장 유명하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 그날 집에서 레코드를 틀어 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한참 폭풍우 같은 오케스트라 음악후 갑자기 잔잔한 하프의 반주를 배경으로 오보우의 가련한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찾아보니 Bellini 작 'Il Pirata' 의 Mad scence의 첫 부분이었다. 곧 비수(悲愁)에 잠긴 칼라스의 음성이 따랐다. 그후부터 이 장면에 나도 미친(?) 것은 물론이다.

오페라 'Pirata(해적)' 은 Sicily섬에서 Imogene라는 여주인공을 둘러싸고 Gualtiero(Count of Montalto)와 Ernesto(Duke of Caldora)의 싸움으로 얽혀지는 비극이다.

구알티에로(테너)는 Battle of Benevento(Benevento는 현재 이탈리아 남부의 고장, 1266년 Charles of Anjou 군과 Manfred of Sicily군의 전쟁. 여기서 Manfred파가 패전해 Charles of Anjou가 Kingdom of Sicily를 차지하게 된다)에서 패전해 해적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해적선의 선장으로 있으면서 계속 적군(Charles of Anjou군)과 해전하면서 버티어 가는 한 가지 이유는 두고 온 애인 이모제네(소프라노)를 꼭 한 번 만나보는 것이다.

한편 구알티에로를 잃고 하필 그의 불구 원수인 에르네스토의 아내가 돼 그의 아들까지 낳고 사는 이모제네는 하루 하루가 서글프기만 하다.

에르네스토(바리톤)는 싫어하는 이모제네에게 투옥돼 있는 그녀의 아버지를 살려준다는 조건으로 그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약속까지 하면서 결혼까지 했지만 사랑을 주지 않는 아내에게 그는 늘 불안하고 불만스럽다.

오페라가 시작될 즈음에는 구알티에로가 폐해 파선된 그들의 배가 표류하던 끝에 닿은 곳이 하필이면 에르네스토의 도시국가 해변이다. 난파 선원들을 구해주려고 그곳 공작부인인 이모제네가 급히 시녀들을 대동하고 달려왔더니 바로 잊지 못하던 구알티에로가 있지 않은가.

서로를 알아 본 두 사람은 둘만 남게 되자 자기를 저버리고 결혼한 그녀를 구알티에로는 나무래며 꾸짖고 그녀는 울면서 변명한다. 그러는 동안 진행되는 대화 이중창이 안타깝고 고민에 찼으나 아름답다.

구알티에로의 해적선을 격파한 승전장군 남편은 다음 날 부하들의 찬사에 둘러싸여 개선합창이 우렁차게 울리는 가운데 돌아왔으나 아내는 아프다는 핑계로 자꾸 만나기를 피해 의아심을 품기 시작하면서 그녀 뒤를 정탐한다.

의심과 질투로 자꾸 다구쳐 묻는 남편, "구알티에로를 사랑은 하나 그 사랑은 이미 죽은 사람에게 향하는 사랑 뿐" 이라고 변명하는 그녀, 이 둘의 계속되는 감정이 점차 고조돼가는 이중창이 각각 고민과 슬픔을 담은 음악으로 아프게 들린다. 이 오페라 CD에서 이 모제네로 나오는 칼라스의 음성은 전 오페라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의 그늘진 우수에 찬 얼굴이 계속 음악을 통해 눈에 보는 듯이 비애로 깔려 있다.

조금 후 마지막으로 둘이 몰래 만나면서 구알티에로는 이모제네를 데려가려고 애걸하나 이미 에르네스토의 아들까지 낳은 그녀는 "아무리 우리가 도망치더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피해 있을 땅은 없고 결국은 잡히게 된다. 이제는 헤어지자" 고 한다.

완강히 반대하는 구알티에로를 겨우 설득해 서로 'Addio·Addio' 로 아프게 갈라지려는 찰라 분노에 찬 에르네스토가 나타난다. 서로에 대한 증오로 미칠 듯한 두 남자는 소리지르며 결투하러 무대 밖으로 뛰어 나가고 이모제네는 기절해 쓰러진다.

결국 결투에서 구알티에로에게 살해당한 공작은 부하들의 애도의 합창 속에 관에 실려 지나가고 그 뒤로 빈 무대에 나타난 구알티에로는 이모제네에게 마지막으로 사랑의 이별을 고하는 아리아를 부르고 칼을 스스로 내 던지며 달려온 부하들에게 체포된다.

바로 이 후 나오는 장면이 유명한 광란의 장면이다. 정신착란이 된 그녀는 하늘을 쳐다보며 처음 서술한 아름답고 무거운 전주를 따라 무대에 나와서는 "해변가에 누워있는 남자가 구알티에로인가" 하다가 남편인 것을 알고 어린 아들을 부르면서 "엄마를 용서하도록 아빠에게 말해달라" 고 부탁도 하다가 밖에서 구알티에로에게 내리는 사형선고를 듣고는 그가 처형당할 교수대를 상상 속에서 보며 고통스런 노래를 계속하던 그녀는 마침내 기진맥진해 쓰러지면서 막이 내린다.

27세의 벨리니가 작곡한 이 비애와 우수로 찬 오페라 '해적' 은 참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나 음악의 아름다움으로 한편으로는 즐기게도 한다.

Callas의 대단한 Fan이신 Mrs. DH Lee가 마침 Callas가 이 광란의 장면을 Concert 때 부른 DVD를 선물로 보내주어 그녀가 직접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철저한 목소리 연기는 수없이 들었건만 그 내용에 맞는 표정과 몸짓을 처음으로 직접 볼 수 있었던 경험은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안겨 주었다. 이런 귀중한 보배를 주신 Mrs. Lee에게 한없이 감사할 따름이다.

또 다른 광란의 장면이 나오는 오페라 'Anna Bolena' 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1세의 어머니이며 헨리 8세의 6 부인 중 둘째 왕비였던 Anne Boleyn에 대한 비극적인 오페라다.

바람쟁이 헨리는 앤 볼린을 왕비로 맞아 딸 엘리자베스를 낳고 왕비로 맞은지 1000일도 되기 전 여왕의 시녀였던 25세의 Jane Seymour에게 반해 앤 볼린을 간통죄의 누명을 씌워 단두대로 보낸다. 오페라에서는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 역사에는 없는 Anne의 첫사랑까지 만들어 더 흥미 진진하게 이끌어 간다.

광란의 장면은 그녀가 결국 단두대로 가는 날 시작한다.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여왕을 보며 시녀들과 부하들이 합창으로 안타까워 하는데 본인은 정신착란돼 있는 상태로 여왕의 몸인데 걸친 옷도 형편없고 머리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다.

밖에 나온 그녀는 서러워 하는 시녀들에게 오히려 "왜들 슬퍼하는가. 내가 결혼하는 날인데. 왕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 빨리 내 흰 신부복을 줘요. 그리고 머리에 장미화관도."

하니 시녀들의 더욱 슬픈 합창이 또 따른다. 여왕은 다시 "아! 내 애인 Percy, 나를 원망하지요. 용서해요. 나는 참 비참해요…" 하다가 오보우의 아름다운 전주를 따라 고향을 그리는 'Al dolce guidami castel natio(내 어릴 때 살던 집으로 데려가 주어요)' 가 나온다.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다.

호위병들이 나타나자 잠시 정신이 들면서 마침 그 때 다른 감옥에서 나오는 오빠, 애인 퍼시, 자기를 짝사랑했다는 스메론(모두 역사에 없는) 세 사람이 나오자 자기 때문에 그들이 처형된다며 슬퍼하다가 다시 정신착란으로 들어가면서 다사로운 곡 'Cielo, a' miei lunghi spasimi concede alfin riposo(하늘이여, 오랜 고생 끝에 안식을 주시기를)을 간절히 가련하게 부른다.

이 멜로디는 우리가 잘 아는 Bishop작곡의 'Home sweet Home' 을 작곡가 Donizetti가 그의 천재적인 솜씨로 멋있게 편곡한 것이다. 그 간단한 멜로디를 이렇게 멋지게 변화시킬 수도 있구나, 감탄하게 된다. 곧 이어 축제의 종소리가 들리자 제 정신으로 돌아온 여왕은 무슨 축제인가 묻다가 새 여왕의 제관식이라고 하니까 "이 범죄에 나의 피까지 흘려야 하는구나" 하면서 "나쁜 두 사람, 무덤에 들어가는 내 입에서 그래도 용서한다는 말이 나오도록 도와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도록…." 하며 주위 사람들의 합창과 함께 한참 울부짖으며 노래하다가 힘없이 기절하며 쓰러진다. 기다리던 호위병들이 와서 여왕과 3 사람을 단두대로 호위해 나가면서 막이 내린다.

최근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그동안 방치됐던 오페라 'Il Pirata·Armida·Ifigenia in Tauride' 를 되살려 공연해주어 아주 기뻤는데 금년에는 Anna Bolena' 를 공연해서 아주 즐겼다. 노래와 연기는 물론 보기도 좋은 소프라노들이 요즈음 많이 나와 Callas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자신들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 소프라노 Renée Fleming· Anna Netrebko·Natalie Dessay등이 그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별로 공연되지 않고 있던 이 오페라들은 요즈음에 와서야 Callas가 1950년 공연했을 때 현장 녹음한 것을(그것을 원하는 Callas Fan들이 많아서 인지) CD로 만들어 내놓아 들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늘 듣고 싶었던 이오페라들을 즐길 수 있게 해준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 현장 녹음한 CD의 대부분은 La Scala에서 Maria Callas가 있었기 때문에 재활된 오페라들이며 당시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이 4 오페라 외에도 Medea같은 오페라 역시 Callas가 이루어 놓은 수준에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60년도 Joan Sutherland가 한창이었을 때는 Norma, Lucia di Lammermoor, La Sonnambula, Daughter of Regiment, Semiramide 등을 공연했고, 다음 Beverly Sills 때는 그녀를 위해 Seize of Corinth, Anna Bolena, Maria Stuarda, Roberto Devereux를 연출했다. 그리고 한국 오페라 가수 조수미는 Lucia di Lammermoor의 Lucia역의 제1인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다. 그녀의 CD 'Bel Canto' 를 들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이다.

이 오페라들을 작곡해 초연후 오랜 세월 먼지를 쓰고 돌보지 않았던 소위 Bel Canto계의 오페라들(작곡가는 주로Rossini, Bellini, Donizetti)이다. 그래도 이나마 다시 관심을 자아내게 한 것은 1950년도 Callas가 이런 오페라들을 재생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가창연기(acting with voice)를 해준 공로로 믿는다.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계 오페라 가수들이 메트로폴리탄 극장의 무대에 섰을 때 관중의 한 사람으로서 설레이는 기쁨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거기 따르는 조바심도 대단하다.

이미 유명해진 소프라노들, 홍혜경·조수미·신영옥 등은 물론이고 새로 젊은 Kathleen Kim도 한창이다. 최근 그녀의 '호프만의 뱃노래' 의 Olympia역은 대단했다.

베이스 윤광철도 자주 메트에서 열연하고 있다. 마침 오늘(2011년 3월19일)메트에서 HD로 Telecast한 Lucia di Lammermoor에서 Raimondo로 나와 열연했는 데 그의 깊고 풍부한 음성과 연기가 아주 출중해 가슴이 뿌듯했다.

또 지난 2010년 12월 18일 테너 이용훈이 Metropolitan 극장에서 데뷰하면서 기막히게 아름다운 음성으로 멋있게 돈 칼로역을 부르는 것을 중계방송으로 들었을 때 가슴 뿌듯했던 기억은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다.

아직 들을 기회는 없었지만 벽이나 알려진 테너 김재형의 소식도 참으로 기쁘다. 테너 이용훈과 함께 두 분 다 음대 동문이라니 더더구나 자랑스러울 뿐이다.***

동문 시 감상

고향 유정

임용오(의대 59)

반백년 옛 정 찾아
고향으로 돌아오니

벗님네 머리 위엔
하얀 꽃이 피었구려

술잔 기울여 옛일 더듬으니

벅찬 감회 파도로 밀려오고

너도 잃고 나도 잃고
이 세상 일 모두 잊으니

여보쇼
이것이 무릉도원 아니라면
무엇이라 부르겠소

<Highland CA.>

2□□ 3~21□_Aug_Rev 2012-02-12 □□ 10:34 Page 6

동문동정(미주 중앙일보 · 한국일보 인용)

이청 교수 은퇴 뒤 몽골서 봉사활동

벧엘교회 선교사로 파견, 현지 대학서 '1인 다역' 부인은 호스피스 등 맡아

"다 쓴 제품을 재활용하듯 내 인생을 재활용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LA의 OC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은퇴 교수 이청(68) 동문과 부인 이인자(65)씨.

이청 교수는 30년을 넘게 칼폴리 포모나 대학에서 컴퓨터 학과 교수로 재직, 은퇴한 뒤 부부가 몽고의 대학에서 제2 인생을 시작해 새해부터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이청 교수 부부는 지난 해 8월 어바인 벧엘 한인교회(담임목사 손인식)의 몽고 선교사로 후레 정보 통신대학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교회에서 항상 녹슬어 못 쓰는 것보다 닳아서 못 쓰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말을 자주 들어왔다"며 "은퇴 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 교수는 몽고에서 IT 전문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는 후레 정보대학의 부총장 겸 대학원 원장, 한국 정부와 몽고 정부가 대학과 함께 공동 건립한 공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센터장, 그리고 전산과 교수 등으로 1인 4역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이 교수가 받는 월급은 매월 고작 수백 달러, 그나마 끼니를 거르는 학생들을 위해 모두 사용하고 있다.

부인인 이인자씨는 미국에서 간호사로 30년 넘게 일을 해 온 베테런 간호사다.

처음 몽고행이 결정됐을 때 이인자씨는 남편인 이 교수보다 더 반가워 했다.

←몽고에서 선교사 겸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청·이인자씨 부부(뒷줄 왼쪽)가 몽고 현지인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이 교수는 막상 몽고행을 결정하고 나서 미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은근히 아내가 반대를 해 줬으면 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이인자씨는 "평상시 선교를 위해 여러 곳으로 자주 여행을 다녀왔다"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생각에 다니던 병원도 그만두고 남편을 따라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인자씨는 몽고에서 영어 회화를 지도하고 전문 직업을 살려 호스피스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 교수는 "한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몽고의 컴퓨터 수준은 기초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가끔은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거칠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의 배움 위에 새로운 몽고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에 열정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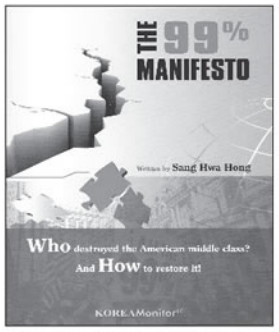
모교 농대를 졸업한 이 교수는 1967년 미국 미시간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했다.

학업을 마친 후 1982년부터는 칼폴리 포모나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해 지난 해 정년으로 은퇴했다.

이 교수는 "꿈이 있다면 몽고의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 복지센터를 만드는 것"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생활고를 벗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며 센터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상화 동문 '99%선언' 출간

중산층의 몰락을 대변한 영문 시사 평론집



작가이며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홍상화(상대 59) 동문이 중산층의 몰락으로 대변되고 있는 미국사회의 문제들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영문 시사 평론집 '99% 선언'(사진)을 발간했다.

18세기 중반 미국을 방문한 프랑스 학자 토크빌이 '계층 없는 중간층 사회'로 표현했던 미국은 한 때 '불가능한 꿈이 이뤄진 사회'로 평가받기도 했으나 21세기에 들어와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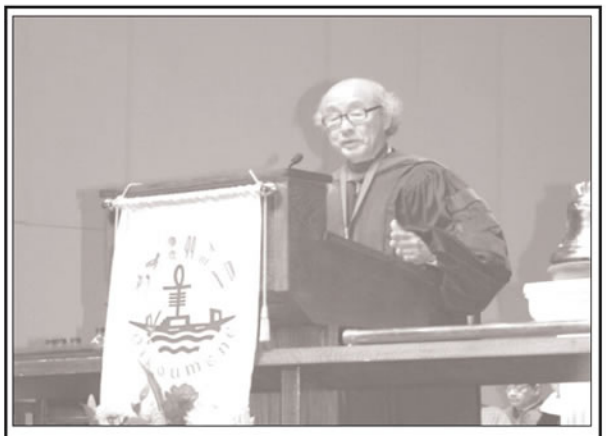
상위 1%와 99%로 나뉘는 양극화에 반대하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점령 시위' 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는 미국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에 다름 아니다.

'월가 점령 시위' 본부가 홍상화 동문이 이번에 내놓은 '99% 선언(the 99% Manifesto)'을 페이스북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일만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저자는 언어학자 촘스키와 영화 제작자 마이클 무어가 아직도 활발히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 자체는 미국에 '비극이요 저주'이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세상이 훨씬 더 나쁜 상태가 됐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세계를 이끄는 국가로서 가장 부적합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미국만한 나라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 미국적 원칙이 사라졌을 때 인류는 미국적 가치를 결국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그러나 미국이 경계해야 할 가장 큰 병은 '자기만족' 이라고 지적하면서 끊이지 않는 전쟁, 부의 편재, 일자리 부족 심화, 안전 불감증, 부채 증가, 적자 재정, 주민들 비만, 범죄 증가, 도덕성 타락, 정의 부재 등의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지 못할 때 미국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로 전락해버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인디애나 주립대에서 MBA 공부중으로 조선일보에 '불감시대'를 2년 연재했고 1989년 장편 '피와 불'을 발표, 작품 활동을 했다. 이 작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에서 최우수 각본상을 수상했다.***



박한식 교수 '미국과 북한관계' 강연

애틀랜타 국제관계위원회 박한식 교수 초청 특강 중국주제 북미관계 조명

애틀랜타 국제관계위원회(이하 ACIR)가 동문 박한식 교수를 초빙해 지난 해 11월 9일 오전1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캐피탈 시티클럽(7 Harris St NW)에서 미국과 북한관계에 대한 강연회를 열었다.

박한식 교수(UGA 글로비스연구소)는 '중국'을 포커스로 미국-북한 관계에 대해 강의했다.

박한식 교수는 CNN과 ABC의 북한문제 관련 '페이드 패널(Paid Panel)'로 미국 내 최고의 북한 문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박 교수는 모교(정치학과)와 아메리칸 대학(석사), 미네소타대(박사)를 졸업한 후 UGA에 임용돼 국제관계학에 대해 강의해 왔으며 UGA 내 글로비스 연구소를 창설하기도 했다.

그동안 북한을 50여 차례나 왕래했던 박 교수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지난 해 모어하우스 칼리지로부터 간디 킹 이케다 커뮤니티 빌더상을 수상한 바 있다.

사진은 지난 해 박한식 교수가 모어하우스 칼리지에서 강연하고 있는 모습이다.***

모교 재학생들 미 복지 프로그램 체험

KYCC 인턴 프로그램 참가

"미국의 봉사정신과 시스템을 직접 보고 배웠습니다"

전기화 · 김하림 · 주요한(모교 자유전공학부) 동문 등이 겨울방학을 이용해 LA 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의 '행정연수 및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LA에서 연수및 봉사활동을 폈다.

이 동문들은 LA 한인 봉사단체에서 비영리기구 운영과 복지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인턴 프로그램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낸 것이다.

이들은 이수빈 · 김무룡(이상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정유나(대구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조은영(대구대 사회복지학 석사과정) 등과 함께 1월 27일까지 한 달여 일정으로 LA카운티 아동보호국(DCFS), 아태여성보호센터(CPAF) 등 LA 지역 주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들을 돌며 견학 및 체험교육을 받은 뒤 귀국했다.

이들의 주요 관심 분야는 약물중독, 정신건강, 가족정책, 이민자 보호, 아동 지원, 비영리 단체 등으로 다양하지만 비영리 단체와 봉사활동 등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앞장서고 싶은 열정만큼은 모두 한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문화 탐방을 통해 약물중독과 이민자들의 정책지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힌 이들은 "미국의 비영리 단체는 한국과 다르게 서비스 제공 분야도 다양하고 영역도 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민자 비율이 높은 LA에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들을 방문해 이 기관들의 장점들을 보고 배워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의 복지제도 및 비영리단체 운영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의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4일 KYCC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의 복지제도 개선과 함께 삶의 질 증진이 관심 분야라고 밝힌 이들은 "한국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정신건강이나 질환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일반인들에게 정신건강 예방을 위한 교육이 미비한 실정"이라면서 "미국의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되는 정신건강 예방교육과 실태를 보고 느끼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하림 동문은 "4학년 진학을 앞두고 취업과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한국과 문화, 언어, 생활방식이 다른 나라를 방문해 차이점을 경험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동문은 이어 "비록 짧은 기간 LA에 머물렀지만 비영리 단체 운영에 대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가 한국 비영리 기관의 정책 개발과 봉사에 앞장서고 싶다"고 밝혔다.***

2□□ 3~21□_Aug_Rev 2012-02-12 □□ 10:34 Page 7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 동문 망명 허용

파거 김대중 정권의 대북 송금 의혹 및 국정원 도청 전담팀인 미림 팀의 실체를 폭로했던 국가정보원 전 직원 김기삼(49·사진) 동문이 마침내 '미국에서의 자유'를 얻었다.

지난 8년간 미국 검찰과 지루한 소송을 벌여온 김기삼 동문은 지난 해 12월 필라델피아 이민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망명을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7년간 재직한 국정원을 지난 2000년 10월 사직한 후 이듬해 도미한 김 동문은 2003년 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로비, 15억 달러의 불법 대북송금, 국정원의 불법도청 의혹 등 충격적 주장을 한국 언론에 폭로한 바 있다.

이같은 사건으로 한국의 국정원으로부터 국정원 직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하자 그해 12월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김 동문은 지난 2005년에는 김영삼 정부의 안기부가 특수 도청 조직인 '미림팀'을 가동해 사회 유력인사를 상대로 불법적인 도청과 감청을 해왔다고 폭로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한 바 있다.

김 동문은 지난 2008년 4월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이민법원에서 열린 추방재판에서 정치적 망명을 허용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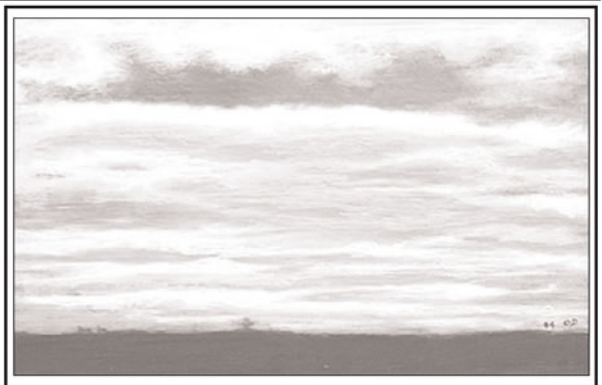
하지만 미 당국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3년여 만에 열린 2심 재판에서도 망명을 허용 받아 이제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는 것이다.

현재 워싱턴에서 가까운 펜실베이니아의 해리슨버그에 거주중인 김기삼 동문은 "지난 8년간 망명 재판이 진행되면서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해 여러 가지 힘들었다"며 "최종 망명 승인이 나 홀가분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동문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불만도 터뜨렸다. 그는 "우파 정권인 이명박 정부 출범에 기대를 걸었으나 국정원 고발 조치도 해결되지 않고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들의 바람을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좌파 정권에서 자행된 비리들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동문은 모교 법대를 나와 1993년 안기부에 7급 직원으로 입부했으며 정보학교(정규 30기), 대공정책실장 부속실, 해외공작국 정보협력과, 정보학교, 국제정책실, 대외협력 보좌관실, 대북 전략국 등에서 근무했다.

1심에서 망명을 승인받은 김 동문은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 현지에서 변호사로 잠시 활동했으며 현재는 워싱턴 지역에서 특허 관련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길을 모색중이다.***



김명희 동문 맨하턴에서 개인전

'칠판의 화가'로 알려진 김명희 동문이 맨하턴 그리니치 스트릿에 위치한 API 화랑(434 Greenwich Street)에서 지난 1월 12일부터 2월25일까지 개인전을 열고 있다.

김명희 작가는 학교에서 쓰던 칠판 위에 오일과 파스텔로 인물과 정물 등 구상성 강한 이미지를 그려내는 작가로 이름나 있다.

미국에서는 첫 개인전인 API 초대전에서 아련하면서도 낯익은 칠판 위에 자신의 경험과 시간의 흐름을 담은 풍경들을 그려냈다.

한국의 강원도 내평리의 한 폐교에 마련한 작업실에서 칠판 캔버스에 평화로우면서도 기억의 저 편을 떠올리는 풍경들을 담아냈다.

김명희 작가는 모교 미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이후부터 미국을 무대로도 활발한 전시활동을 해오고 있다.

전시회장 연락처는 전화 212-343-2599 ***

방기선 동문 신임 LA부총영사 발령

한국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서 발탁

고국 외교통상부의 개방형 직위제 도입에 따라 공개 지원으로 선발된 LA 총영사관 신임 부총영사로 동문 방기선 기획재정부 복지예산 과장이 부임한다. 고국의 외교통상부는 지난 21일 외교부 정기 인사를 통해 현 최용진 LA 부총영사 후임으로 방기선(46) 과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방기선 신임 부총영사는 지난해 연말 외교통상부의 개방형 직위 도입에 따라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들의 공개 지원을 통해 선발됐다.

방 부총영사는 모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4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등을 거쳐 지난 2008년에는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경제통이다.

방 부총영사는 2월20일부터 LA에서 업무를 시작하며, 이번 인사에 따라 최용진 부총영사는 대만 대표부 부대표로 전근하게 된다.***

서울대병원 뉴욕사무소 2월 개설

서울대학교 병원이 2월 말 뉴욕사무소 개소식을 연다.

서울대병원 뉴욕사무소는 현재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뉴욕지소와 같은 건물(420 Lexington Ave. Suite 2546 New York, NY) 23층에 들어선다.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이 상주하며 서울대병원의 건강검진 시스템을 미국 시장에 소개하게 된다.

정희원 서울대병원장은 지난주 신년사를 통해 "LA 사무소에 이어 뉴욕 사무소를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미주 동부지역의 동문과 관계 기관들의 협력모델을 구축함으로써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주 사무소 1호인 LA 서울대병원은 지난 2008 개설했다.**

이용철 동문 세법 세미나 에서 강연

LA남부 한인상의에서 변경된 세법·창업 정보 제공

남부 한인상공회의소가 지난 1월 11일 팀스피리트 부동산 그룹 어바인 본사에서 마련한 세법 세미나에서 동문 이용철 공인회계사(CPA)가 한인들을 위해 특별 강연을 했다.

이날 오후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열린 세미나에서 이용철 공인회계사는 지난 해와 올해에 걸쳐 변경된 세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경기침체기 세무전략 부동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세법 OC 남부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창업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 등을 제공했다. 세미나 이후엔 희망자와 일대일 상담 시간도 마련됐다.

이용철 CPA는 모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성물산 증권기획팀에서 근무했다. 미국에 온 뒤엔 어바인에서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며 회계감사 회사실림 세금보고 및 세무감사 비지니스 컨설팅 등 다양한 세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김가온 동문이 미녀 탤런트 강성연과 결혼식을 올린 뒤 "잘 살겠습니다"라고 하며 함께 하트 모양을 그리고 있다.

김가온 동문 미녀 탤런트 강성연과 온례

등료들 축복 속에 연예계에서 '새해 첫 결혼' 올려

재즈 피아니스트 김가온(35) 동문이 미녀 탤런트 강성연(35)과 백년가약을 맺었다.

김가온 동문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 서울 논현동 파티오 나인 스레이스 홀에서 동갑내기 연인 강성연과 화촉을 밝히고 삶의 새 장을 열었다.

앞서 오후 5시에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두 사람은 "날씨가 추워서 우리 결혼식에 많은 분들의 축복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깊은 관심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라며 "새해를 여는 첫 달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가온 동문은 현재 재즈 피아니스트로 모교 음대와 버클리 음대, 그리고 뉴욕대(NYU) 대학원 석사 등 엘리트 과정을 수료했다.

그 뒤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중으로 현재 가장 촉망 받는 아티스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들은 연애 두 달 만에 전격적으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그 계기를 질문하자 강성연은 "계기라고 말하기가 무색하다"라며 "지금은 연애한지 다섯 달이 됐다. 결혼 계기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남 이후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만나자 마자 '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들었다. 따라서 김가온씨의 프로포즈도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고 김가온을 운명적으로 직감했음을 털어놨다.

첫 키스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 여자는 첫 키스를 한다는 걸 눈치 챈다. 하지만 나는 눈치 채지 못했다"라며 "'우리 사귑시다'고 했던 그 날 했다"고 대답해 웃음도 자아냈다.

이들은 특별한 결혼반지도 나누었다.

강성연은 "결혼반지는 우리가 직접 디자인했다. 세상에 단 하나 뿐인 반지라 의미가 깊다"라며 이들의 소중한 반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자녀 계획에 대해서는 "결혼 후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구성하고 싶다"란 말로 3명의 자녀를 원하고 있음도 드러냈다.

이 날 지성, 박정아, 장혁, 사강, 박시연, 권민중, 엄수정, 박정철, 이혜은, 임하룡 등 많은 연예인 동료들이 하객으로 참여했다.

주례는 온누리 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가, 결혼식 축가는 서울대 합창단과 재즈 보컬리스트 말로가 맡았다.

결혼식을 마친 후 김가온 동문과 강성연은 제주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10일 호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강성연은 "내가 현재 케이블 채널 프로그램 MC로 활동 중이라 예정된 촬영을 모두 마친 후 신혼여행을 떠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강성연은 지난 1996년 MBC 탤런트 공채 25기로 연예계에 데뷔한 후, '카이스트' '맛을 보여드립니다' '덕이' '아내가 돌아왔다' 등에 출연했고, 가수 '보보'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했다.

강성연은 MC로 활동하던 프로그램인 올리브 '쿠드 에세이'의 촬영차 들렀던 재즈클럽에서 재즈 뮤지션인 형부와 함께 연주를 하던 재즈 피아니스트 김가온을 처음 만났다.

음악이라는 매개체로 연결된 둘은 진지한 만남 끝에 결혼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unday@osen.co.kr>

2□□ 3~21□_Aug_Rev 2012-02-12 □□ 10:34 Page 8

왼쪽 사진은 가부키 증후군의 어린이 모습이고 오른쪽은 지난 해 가부키 증후군 유전자를 규명한 이승희 교수.

오리건 의대 이승희 교수 모교 약대 로

가부키 증후군 핵심 유전자 규명해 저명 학술지에 논문게재 3월부터 모교 약대 교수로 부임

지난 해 정신 지체와 신체 여러곳의 기형을 동반하는 '가부키 증후군' 의 핵심 유전자를 규명해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게 했던 오리건대 의대 연구팀의 이승희 동문이 3월부터 모교 약대 강단에 서게 됐다.

가부키 증후군은 이 질환을 가진 아이들의 얼굴 모습이 일본 대중 연극배우들이 화장한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리건대 의대(OHSU) 이승희·이수경·이재운 교수팀은 'UTX' 라는 유전자가 태아의 심장 발달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핵심조절인자로 가부키증후군의 발병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지난 해 처음으로 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그동안 가부키 증후군 환자에게서 심장발달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 보고돼 있었지만 이런 선천적 심장 이상을 일으키는 유전적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었다.

이 교수팀은 이번 연구에서 UTX 유전자를 제거한 줄기세포를 만들어 실험을 한 결과 이 유전자가 없으면 줄기세포가 심근세포로 분화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생쥐 실험에서도 이 유전자가 결여되면 심장발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는 UTX가 심장발달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유전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이승희 교수 연구팀은 여기서 더 나아가 심장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들(SRF GATA4 TBX5 NKX2.5)의 발현 촉진에도 UTX 유전자가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연구를 주도한 이승희 교수는 올 3월 모교 약대에 부임할 예정인 차세대 스타 과학자로 지난 해 신진교수를 대상으로 한 제3기 청암 과학펠로에 선정된 바 있다.

올해 모교 약대에서는 이승희 교수 외에도 해외 우수 과학자 3명을 더 초빙한다.***

사공일 동문 2월 UCLA서 강연

글로벌 시대에 세계 경제와 한국의 위상 및 역할을 모색하는 사공일(상대 59·사진) 한국 무역협회 회장 초청 강연회가 2월 UCLA에서 열렸다.

세계 저명인사 초청 강연회의 하나로 UCLA 한국학 연구소가 주최한 사공일 회장 초청 강연회는 2월 13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UCLA 앤더슨 경영대학원의 콘 컨보케이션 홀(Korn Convocation Hall)에서 진행됐다.

사공일 회장은 UCLA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5~6공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과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대표적 시장 중심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다.

1993년 민간연구원인 세계경제연구원을 설립한 이후 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과 향후 대책 등에 관한 다수를 발표하고, 선진·통일 경제와 관련한 저서를 발표하는 등 정부 직을 떠나서도 연구저술 활동을 꾸준히 벌여왔다. 김영삼 정부 때는 외교통상부 대외경제통상대사로도 활동했다.

5~6공 시절 정치자금 불법모금 경력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초기 선대위 산하 경제살리기 특위 고문으로 영입돼 '이명박 경제고문' 으로도 불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는 문제되지 않는다. 뛰어난 분이다"는 평가를 받는 등 각별한 신임을 받았다. 지난 2010년 한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한국 경제의 최고 브레인 중 한 명으로 이날 '글로벌 경제와 거버넌스, G20/아시아의 역할' 을 주제로 강연했다.

약력은 모교 상대(59). UCLA 경제학 박사. 뉴욕대 교수. 영국 세필드대 초청교수. 한국개발연구원장. 산업연구원장.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재무부 장관. IMF 특별고문. 외교통상부 대외경제통상대사.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고려대 석좌교수***

이재승 교수 스탠포드대서 강연

스탠포드대 한국학 세미나 '그린정책 도입으로 에너지 위기 타개' 정책 펴

스탠포드대 한국학연구소가 지난 27일 엔시나 홀 컨퍼런스 룸에서 '동아시아에서의 에너지 지정학 정책: 한국의 도전'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동문으로 교려대 교수인 이재승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 방문 교수는 에너지자원의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지금 자원전쟁과 에너지 안보의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룬 강연을 실시했다.

동아시아에서의 에너지 지정학은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잠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주요 에너지 소비국 중국·일본·한국 간의 심한 경쟁을 반영하고 있다.

이재승 교수는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처한 북한의 핵위기 뿐 아니라 기후변화, 에너지 공급 등 거친 도전들을 밝히며 안정적인 탄화수소 에너지 자원 획득을 위한 해외 에너지 발전정책 추구와 함께 그린정책 도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그린정책은 기후변화, 화석연료(석유·석탄·천연가스 등) 고갈, 그리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연계된 패러다임의 이동을 상징하며 강력한 정치적 지원과 정책 실현에 근거한다면 단기간 안에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경제회생의 길을 제시해줄 것" 이라고 제안했다.

이재승 교수는 모교에서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예일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그 뒤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외교안보연구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이재승 교수는 지난 2008년 전직 국가 정상들의 협의체인 '인터액션 카운슬(InterAction Council)' 이 발표한 차세대 지도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인터액션 카운슬' 은 명예 의장인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총리를 비롯해 40명의 세계 각국의 전직 국가 원수들로 구성된 국제단체로, 2008년 최초로 21명의 차세대 지도자를 선정했다. 이재승 교수는 이해 6월 24일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인터액션 카운슬 및 영리더십 포럼에 참석해 이 상을 수상했다.***

왼쪽 사진이 나요섭 목사의 저서(신앙고백)이고 오른쪽은 이 저서를 동문들에게 무료로 나눠 주겠다는 김성열 동문이다.

동문 나요섭 목사 저서 무료 제공

김성열(치대 61) 동문이 동문 나요섭(농대) 목사의 저서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소식을 보내왔다.

다음은 김성열 동문의 메일 내용이다.

'서울대 동문들에게. 책을 읽다가 좋은 책을 만나면 아는 이들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여분으로 여러 권을 사두었다가 친구들을 만나면 한 권씩 나누어 주면서 읽어 보기를 권합니다. 얼마 전 동문 나요섭 목사의 최근 저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고백이다' 를 읽고 나서 기독교신앙 안에서 겸손을 느꼈습니다. 지성인이고, 기독교인이며,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책이라고 생각되어 이번에는 좀 많이 주문했습니다. 200권을 주문해서 책장에 쌓아놓고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고 싶은 동문들은 주소와 함께 우송료 10달러를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이 책 한 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Daniel S Kim DDS. 217 SE 136th Ave. Suite 101. Vancouver, WA 98684

그러나 우송료 10달러가 부담이 되는 동문들은 이메일(drdankim@drdankim.com)로 주소를 보내주시면 이 책 한 권을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들 마음을 밝게 해주려고 친구에게 꽃 한 송이를 들고 가듯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 나요섭 목사는 모교 농대, 장로회 신학대학, 프린스턴, 그리고 아이리프 신학대학과 덴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영남신학대학 교수와 대구 제일교회 목사를 역임했습니다.<김성열 드림>***

오정근 동문 베를린서 작품전

'박물관의 밤' 에 '잔다멘 마르크트의 틈새' 초청

베를린의 갤러리 손(Galerie Son)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전시된 오정근 동문의 작품 '잔다멘 마르크트의 틈새' 가 지난 1월 28일 열린 '박물관의 밤(Lange Nacht der Museen)' 행사에 초청됐다.

'박물관의 밤' 은 지난 1997년 처음 시작돼 독일의 최대 박물관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해마다 참여하는 박물관 숫자가 늘어나 올해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행사에는 200여 곳이 특별전을 연다.

참여하는 박물관들은 국립박물관 등 공적 성향의 박물관들로 사립 화랑에서 열리는 오 동문의 개인전이 초청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오 동문의 '잔다멘 마르크트의 틈새' 는 베를린 시내에서 건물 사이의 틈새를 통해 보인 하늘의 형태를 단순화해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품들로 구성돼 있다.

오 동문은 "이번 작품들을 통해 보는 방향이나 각도에 따라 인공적 사물도 저마다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고 말했다.

오 동문은 모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2005년 베를린에서 본격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2□□ 3~21□_Aug_Rev 2012-02-12 □□ 10:34 Page 9

2012년 미국 동포사회의 과제

김훈묵(사대 58)

한 달을 참지 못하고 들려오던 동포들의 비보가 무료 주간지 광고신문에 기사로 실려 동포들의 심사를 고약하게 뒤틀던 흑인가나 멕시칸 둥네 한국인 컨비니언스 스토어(편의점) 주인들의 사망 소식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20 세기 말 우리 한민족의 이민사를 피로 물들였던 비극적 단면이었다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비극이었다.

아비가 죽고 나면 그 다음 날 그 아내와 아들이 장례를 치르지도 못한 시점에서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손님을 놓치는 것이 두려워 가게 문을 열어야 했던 비극은 아는 사람들만이 알고 있다.

이민 초창기 유학생, 심지어 교회 재정(財政)이 넉넉하지 못한 목사들까지도 끼어들어 희생되었던 강도 살인 사고는 아주 흔한 일이었다.

그 살인자들의 대부분은 흑인이거나 스페니시 계통의 둥네 마약관련 건달들이었고, 그들의 살인은 상상을 초월한 과감성을 지니고 있어 감당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필자가 아는 한 친지는 네 번이나 총에 맞았는데도 아직도 건재하다. 그만큼 컨비니언스 스토어는 짧은 기간에 한 밑천 잡기가 쉬운 매력 있는 직종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나마도 중국인·인도인, 기타 마이너리티(소수민족)들의 발호(跋扈)로 짭짤한 재미를 볼 자리를 빼앗겨 버렸지만 말이다.

당시 만일 CCTV 시스템이 오늘날처럼 발달되었더라면 그 피해가 많이 줄었을 것이지만, 그런 살인사건은 대부분 미제사건으로 남아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 가족들의 한결같은 푸념이다.

경찰도 굳이 마약과 관련된 중범자들과의 힘겨운 전쟁을 원치 않았다는 이야기로도 들렸다. 그러니 얼마나 원망스러운 죽음이었겠는가.

그 사무친 원한은 무덤 속에 가족들의 눈물과 한숨과 함께 잦아들었고 다시는 누구도 이런 이야기 하기를 꺼려했다. 가족들은 여전히 같은 일터에서 이를 악물고 필사적인 전쟁을 치러 종자돈을 마련하고 그들의 미래를 이를 악물고 일구어 왔다.

그들의 피눈물로 얼룩진 돈이 한국 가족들에게 흘러 들어갔고, 그것이 종잣돈이 되어 오늘 날의 한강의 기적을 낳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지극히 드물다.

로스앤젤리스 흑인 폭동 사건에서 한국동포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만도 하다. 스페니시와 흑인들이 아니면 동양인들의 물건을 팔아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흑인·스페니시들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배고픈 아이들이 상습적으로 초콜릿 과자를 훔친다고 총질을 하여 다치게 한 일로 그들의 눈 밖에 벗어나 불매운동이라는 집단행동으로 가게를 파산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오죽했으면 어린 아이에게 총질하는 사태까지 일어났겠는가.

같은 동포인 한국인들이 수지가 잘 맞는 가게를 골라 그 바로 옆에다 가게를 차려 기존의 가게가 문을 닫게 만드는 염치없는 모리배(謀利輩)들도 생겨났다.

그런 사람들이 떼돈을 벌어 한인사회에 내노라고 나서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그런 일에 염증을 낸 한인들은 세탁소를 열어 그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밤잠을 잘 수 없는 불리한 점에 착안해 청소업을 중소기업으로 키운 사람들도 많았다.

그 다음이 주유소, 백인들이 꺼려하는 모든 직종이 대상이었다.

그렇게 밑천을 잡은 한인들은 차차 중소기업 속으로 뛰어 들었다. 여전히 자금의 문제를 해결할 은행은 로스앤젤리스·뉴욕 둥지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그런 것이 중국·인도와 달랐다. 명색이 그래도 은행이라는 것이 나타난 것은 겨우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미국 경제를 논의하는 유수한 한국계 박사 경제학자들은 많았지만, 한국인 동포들을 위한 경제학자는 전무하였다. 그래서 코리언 커뮤니티는 그 발전의 속도가 느렸고, 주류사회에 뛰어드는 기업다운 기업을 키우기에는 역 부족이었다.

21 세기로 들어서면서 동포들의 예리한 두뇌를 가진 자녀들이 주류사회의 에너지, 전산산업, 화학공업 분야로 진출하면서 동포들의 생활은 작은 여유를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기업다운 기업은 1차 산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민 1세대에 의하여 세탁업, 뷰티산업, 중국·한국 둥지를 상대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지만 짝퉁산업으로 1회성 짭짤한 재미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뿐이다.

나라 없이도 그들의 경제 분야에서 뛰어난 재주를 보여준 이스라엘의 유대민족(Jew)은 경제면에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제외동포들의 힘을 빌려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고 있다.

가위 그들의 재외동포 커뮤니티는 강력한 포즈를 취하면서 세계의 경제를 마음대로 손안에 넣고 주무르고 있다. 이제 한민족을 제2의 주(Jew)로 불리는 시대가 온 것이다.

먼저 해외 자본 결집에 힘을 쏟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우선 은행다운 은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국에 해외동포 세결집을 위한 강력한 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정치적인 명색뿐인 지금의 허장성세(虛張聲勢)의 기구가 아니라, 민족의 이름으로 된 기구를 필요로 한다.

또한 해외동포 2세를 장악하기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해외동포 2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제대로 모른다. 이들이 아는 것은 오직 '코리아' 뿐이다.

한글을 가르쳐서 동포 2세를 한국인으로 만드려는 시도는 덜 익은 정책적 사고에서 나온 사고(思考)일 뿐이다.

옛 속담에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는 말이 있다.

그들은 영어권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는 한국어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국인·스페니시 등의 2세들이 그들의 모국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그들의 습관이거나 부모들의 투철한 민족혼 때문만이 아니다.

언어의 동질성 때문이다. 영어와 중국어, 영어와 스페니시의 동질성은 일본어와 한국어 같은 언어의 판이한 이질성으로 보아서는 그 언어의 구조 자체가 다르다.

이제 해외동포를 위한 세 결집파 2세·3세들의 동일민족 결집은 한국어 교육만으로는 무망(無望)한 상태다. 같은 영어를 사용하여 접근해 가는 대담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단 한국인 2·3세들이 영어권의 소통으로 조국을 깨닫고, 동일 민족을 깨달은 후에는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도 늦지 않다.

언어는 필요에 의하여서만 성취된다. 사실 영어와 한국어의 언어 형태학상의 상이점으로 보아서는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까딱하다가는, 어린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그들의 생활의 주 무기인 영어 교육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재외 공관에 부속된 문화원이라는 기구가 골뱅이 껍질을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있다.

기타를 가르치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한국어로 된 문학수업 등을 한다는 소식이다. 그 기구를 이용하여 영어로 된 간행물을 만들어 1.5세, 2세, 3세들에게 영어로 읽을 수 있는 정기 간행물을 만들어 그들에게 조국과 민족을 심어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일은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돈과 노력을 요구당하기가 십상이다. 기위 만들어진 외교부 기구인 바에는 제 민족을 하나로 뚜는 일에 투척한다면 일석이조의 큰 효과를 얻을 것이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임진 새해아침, 휴스턴에서>

모교 소식

예일 모의UN총회 서울대서도 개최

예일대학이 매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예일 모의유엔총회(Yale Model United Nations, YMUN)' 가 올해 한국 모교에서도 열린다.

예일 모의 유엔총회는 올해로 39회를 맞이할 정도로 전통깊은 행사지만 해외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일대 한인학생회는 한국의 고등학생들도 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적 감각과 인식을 키우는 것이 도움될 것으로 보고 서울대와 협의, 3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대 캠퍼스에서 행사를 열기로 했다.

예일대에서 열리는 행사도 지난 1월 19일부터 4일간 예정대로 열린바 있다.

예일대의 우윤지 한인 학생회장(3학년)은 지난 1월 5일 "한국 고등학생들도 영어로 진행되는 이런 큰 행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예일대에 진학한 한국 학생으로서 한국에서도 이런 경험을 쌓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한국 대학들과 접촉해 이같이 결정됐다" 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위해 우윤지 양을 비롯한 한국 학생 3명을 포함해 예일대생 13명이 한국을 방문해 서울대생들과 행사 진행문제를 협의한다.

우윤지 양은 "학생들은 각 나라의 대표단으로 총회에 나서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많이 해야 해 국제적인 안목을 키우는데 좋다고 본다" 고 말했다.

우 양은 이 행사를 위해 지난해 3월 아이디어를 내고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학생들과 협의했다.

행사 진행에 비용도 필요해 학생들에게 참가비로 한국에서 하는 행사의 경우 1인당 26만원을 책정했다.

대회 참석 학생은 선착순으로 뽑는다. 예일대의 경우 장소 사정을 감안해 매년 1천300명에서 마감한다. 이번 서울대 행사의 경우 2월 5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400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주최측은 예상하고 있다.

우 양은 "예일대 행사의 경우 교교별로 팀을 이루어 한 나라를 대표하도록 했지만 한국 행사는 학교별로 참석자 수가 많지 않을 수 있어 학생 1명이 각 나라를 대표할 수 있게했다" 고 설명했다.

이번 서울대 행사에는 박수길 전 유엔대사가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해외 명문대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줄 시간도 마련했다.

우 양은 "우선 예일대에 진학한 한국 학생들과 질문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예일대에 근무중인 한국계 입학사정관과 동영상 콘퍼런스도 열 계획" 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예일대에서 열린 예일모의 유엔총회에 각 지역 고교생들이 참석, 열띤 토론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이다.(연합뉴스)***

자녀 결혼축의금 전액 장학금 기부

농생명공학부 최윤재 교수

모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최윤재 교수(58)가 최근 결혼한 아들의 결혼식 축의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모교는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최윤재 교수가 아들의 축의금으로 받은 7천만원을 "희망 장학금으로 써 달라" 며 학교에 기부했다고 지난 1월 12일 밝혔다.

지난 1988년 서울대에 부임한 최윤재 교수는 모교 교직 생활 20주년을 맞은 2008년에도 1억여원을 장학금으로 학교에 기부한 바 있다.

최윤재 교수는 "아들과 며느리도 서울대에서 공부를 했고, 나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본다" 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고 말했다.

모교는 지난 2010년 12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교수 후원 등을 통해 '희망 장학금' 을 만들었다.

모교는 최윤재 교수가 기부한 금액의 절반인 3천500만원을 농생대 장학금으로 배정하고 나머지를 대학 본부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2□□ 3~21□_Aug_Rev 2012-02-12 □□ 10:34 Page 10

특별기고

부러울 만큼 발전 중인 양안(兩岸)관계

이영일(문리대 57)
한중문화협회 총재

1. 들어가면서

한·중 문화협회와 중국 국제우호 연락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한·중 민간우호 포럼이 지난 해 6월 20일 중국 푸젠성 샤먼(福建省 厦門)에서 열렸다.

총재인 필자를 단장으로 한 한국 대표단은 6월 19일 오후 늦게 샤먼의 태평양 호텔에서 여장을 풀었다.

중국 국제우호 연락회는 샤먼 지회를 통해 6월 20일 오전 9시 반 샤먼 시내 시티 호텔 국제 회의실에서 제3회 한·중 민간우호 포럼을 개최했다.

양리포(楊歷波) 샤먼 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베이징과 서울이라는 양국의 수도 중심으로만 추진되어 오던 한·중 민간우호 포럼이 주제의 성격에 따라 이제 지방도시에서도 개최하게 된 것을 잘 된 결정으로 지지한다"고 말하고 "그런 행사의 제1차 회의지로 샤먼이 선택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참가자 모두에게 따뜻한 환영인사를 표했다.

베이징에서 국제 우호 연락회의 아주 담당 덩원징(鄧文慶) 비서장은 "해외출장 중인 리자오싱(李肇星) 회장 지시로 자신이 대리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준비된 개막 기조연설에서 그간 한중 문화협회가 한·중친선을 위해 해온 여러 가지 활동을 평가하면서 "특히 리자오싱 회장은 중국 극빈가정 어린이 심장병 수술 지원, 중국 유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지원 활동에 큰 지지를 표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행사는 이영일 총재가 양국의 수도만이 아닌 지방을 서로 오가면서 한·중 민간우호 포럼을 갖자고 제안해서 이루어졌음"을 상기하면서 "특히 포럼 주제가 중국의 양안(兩岸)관계와 남북한 관계인 만큼 중국과 대만간의 교류 현장인 샤먼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자는 중국 국제우호 연락회가 제3차 한·중 민간우호 포럼이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빨리 세계에 개방됐고 또 신 중국에서도 특구로 발전해온 샤먼 시의 지회를 통해 반반의 준비를 갖추고 한국 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어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 통일문제를 가진 분단국가라는 공통점에 유의, 이번 포럼의 주제가 결정된 것인 만큼 이 기회를 통해 현재 한국인들이 부러워할 만큼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중국과 대만관계(이하 兩岸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학습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는 중국 국제우호 연락회 가오잉(高岭)한국처장의 통역으로 샤먼 대학의 양안관계 전문가인 쑨원(孫云)교수가 양안관계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했고 뒤이어 한·중 문화협회 연구이사인 박하진(朴夏晉)박사(호남대 초빙교수)가 남북한 간 경제및 사회문화 분야 교류의 현황과 전망을 발제했다.

2. 주제내용 요약

가. 쑨원 교수(샤먼대학 교수로 양안관계 연구의 권위자)

①중국과 대만 간에는 1987년까지는 무관계(無關係)의 대치상태였으나 대만의 장징궈(蔣經國)총통이 중국대륙에서 국민당 군대로서 대만으로 건너온 노(老) 병사들의 가족과 친척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인도적 배려와 이를 수용한 중국정부의 결단으로 처음으로 교류가 열리게 되었다.

②양안 교류는 1987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그간 대만 일부에서 분리, 독립문제를 제기하여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마잉주(馬英九) 국민당 총통이 집권하면서부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다시 견지해 나감으로써 교류의 실질적 장애는 제거됐고 현재 민간차원에서 다방면에 걸쳐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③1992년 양안간 교역액이 57.5억 달러였으나 지금은 1천 453.7억 달러이고, 인적 내왕에서는 1991년 대만에서의 본토 방문자가 9천600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514만 명, 본토에서의 대만 방문자는 166만 명이 내왕하고 있다.

④2011년부터 양안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 경제문화협정을 포함한 10여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교류는 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국가승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협력은 민간 차원)하였으며 양안 관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교류로 인적 내왕의 중점이 점차 이동하고 있다.

⑤앞으로 양안 관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킨다는 전제에서 통일문제보다는 양안 교류의 혜택이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정부는 대만 서민생활의 질 향상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교류원칙으로는 선 경제, 후 정치, 선역(先易), 후난(後難)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나. 박하진 박사(호남대 초빙교수로 통일문제와 북한 문제를 강의)

① 남북한은 1970년대에 한국정부의 제안으로 인도적 차원의 분담고통 해소를 겨냥,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 교류협력 사업을 시작, 간헐적으로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졌으며 1988년 7월 7일 노태우 선언을 계기로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을 합법화하였고, 동서독의 선례를 따른 남북한 기본관계 합의서와 유엔 동시가입을 실현, 교류협력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갖게 되었다.

② 남북한은 이산가족의 간헐적인 상봉을 제외하고는 문화통합·사회통합·경제통합이라고 인정할만한 교류와 협력은 아직까지 없다. 한국의 일방적 대북지원이 있었을 뿐이고 북측은 한 편으로는 남쪽의 지원을 받으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군사도발을 빈번히 자행, 항상 남북한간에 긴장상태가 가시지 않고 있다.

③남북한의 경제협력은 한국의 대북지원을 전제로 지금까지 추진되다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이 있은 후부터 일체의 대북지원은 중단 상태에 있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의료지원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

④남북한 협력이 중국의 양안관계처럼 발전하지 못하는 큰 원인은 개혁개방을 외면한 채 정권 3대 세습이라는 전대미문의 통치와 끝없는 대남 군사도발로 한반도 문제에 외세가 개입할 여지와 명분을 주는 북한 행동 때문이다.

1948년 한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철수한 미군을 다시 한반도에 끌어들인 것도 6.25전쟁을 일으킨 북한이었으며 국제법규를 무시하고 감행된 핵과 미사일 개발도 외세 개입의 근거를 제공한 것이며, 2010년 서해상에 미군의 항공모함을 불러들인 것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이다.

3. 샤먼 관광

우리 일행은 샤먼이 모두 초행이어서 관광에 대한 호기심이 높았다.

첫날 예정된 금문도 관광은 토론시간이 길어져 오후 배편을 놓쳐 다음 날 예정지인 구랑위(鼓浪嶼)를 먼저 방문했다.

샤먼은 아편전쟁 직후 개항된 5개항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도시의 역사가 긴 만큼 도시 자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능력도 탁월했다.

우선 개항 이후 세계 각국 사람들이 몰려와 자기 나라 방식대로 집들을 지었기 때문에 '만국 건축박물관'이라고 부를 만큼 멋진 서양풍의 주택들이 해안가를 수놓았다.

샤먼은 바다로 둘러싸인 호수도시이기 때문에 연안을 잇는 환상도로는 평황수(鳳凰樹)의 꽃과 룽쉐이무(榕樹木)의 진초록 수림으로 어울려 '화원도시'나 '미술도시'로 불려도 좋을 만큼 잘 정돈된 깨끗한 도시였다.

먼저 개방되었다는 점도 있지만 중국과 대만 간의 교류현장인 점에서 도시를 가꾸는데 더 많은 정성과 노력과 정책적 배려가 깃든 것 같았다.

중국의 해안도로는 웨이하이(威海)나 옌타이(煙台)·다리엔(大連)·하이난다오의 산야(三亞)가 모두 아름다웠지만 샤먼만큼 나무 한그루, 풀 한 포기, 바다와 육지와 멀리 어른거리는 섬들과의 조화까지를 내다보는 미학적 배려가 담뿍 담긴 것 같지는 않았다.

중국 쪽 해안에는 '1국양제(一國兩制)통일중국'이라는 초대형 현수막이 해안가의 절벽에 세워져 있고, 배 타고 금문도(金門島) 해역의 소금문(小金門)옆의 따단도의 산기슭에는 '삼민주의(三民主義) 통일중국'의 대형 글자 현판이 선명히 읽힐 정도의 크기로 세워져 있었다. 중국도 분단국가의 하나임을 암시하는 것 같았다.

4. 글을 맺으면서

중국이 본토와 대만으로 분단된 것은 외세가 개입해서가 아니라 국민당과 공산당간의 내전, 중국식 표현대로라면 내부혁명의 결과에 기인한다.

한반도처럼 38도선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으로 분단이 시작되고 고착되어진 국제형(國際型) 분단국가가 아니다. 내쟁형(內爭型)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통일문제 해결에 외세가 관여할 명분이 없다.

그러나 미국 국회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대만관계법을 만들어 양자관계에 개입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과 대만 간의 냉전 시에 치열하게 전개된 무력분쟁의 여파인 것으로 보인다.

양자 간에 요즈음처럼 경제통합·문화통합이 추진되고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면서 분리, 독립을 추구하지 않는 한 중국에서의 분단 극복은 시간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이것은 대만인들의 대 중국 투자와 대만인들의 본토 투자를 홍콩이나 마카오 사람들의 투자처럼 폭넓게 수용한 중국 정부의 포용력이 합쳐져서 오늘 날 양 지역 간의 교류는 활발해졌다.

이제는 개혁개방과 시장경제 도입으로 G2의 반열에 오른 중국이 대만에 직접 투자를 추진하는 단계로 양자관계가 발전됨으로 해서 중국과 대만 간의 경제통합은 가속화되고 있다.

7월부터는 그간 중국 본토인들의 단체입국만 허용하던 대만 정부가 이제는 개인 입국까지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여행기간 중에 확인했지만 베이징·샹하이·샤먼에 주민등록증(中國語로는 戶口)을 가진 사람에 한해 15일간 체류를 허가한다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부러워할 만한 양안관계이다. 중국이 개혁개방, 시장주의(市場主義)도입으로 잘 살게 된 데 그 참된 원인이 있음은 물론이다.

남북한 관계도 더 큰 발전을 기약하려면 북한이 현재와 같은 궁핍에서 벗어나 세계경제 발전의 진운에 보조를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은 지금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확보라는 중국의 국익을 보호할 전략적 고려에서 친북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 인민들의 실생활 차원에서는 북한보다는 한국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중국을 찾는 한국인들의 연인원은 매년 600만 명을 넘어서며 중국 유학생들도 8만 명이상, 근로자들도 십수만 명에 이르고 있다.

교역량도 연간 2천억 달러로 북한의 연간 35억 달러와는 비교가 안 된다.

매주 수백 대의 항공기가 중국의 주요 도시와 한국을 잇고 있다.

중국의 외교정책이 앞으로 중국 인민들의 실생활상의 이익실현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된다면 한중관계의 비중은 북·중 관계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필자> 모교 정치학과 졸/ 동양통신 기자/ 기독교방송(CBS) 해설 위원, 통일원 대변인/ 통일연수원장/ 81~00년 11~12대, 15대 국회위원.

동문 시 감상

나무

어딘지 모를 그 곳에
언젠가 심은 나무 한 그루
자라고 있다.

높은 곳을 지향해
두 팔을 벌린
아름다운 나무
사랑스런 나무
겸허한 나무

어느 날 저 하늘에
물결치다가
잎잎으로 외치는
가슴으로 서 있다가

때가 되면
다 버리고
나이테를
세월의 언어를
안으로 안으로 새겨넣는
나무

그렇게 자라가는 나무이고
싶다.

나도 의연한 나무가 되고
싶다

김후란(1934~)
모교 가정교육과 2학년 재학 중 한국일보 기자. 1959년 '현대문학' 등단. 시집 '서울의 새벽' '우수의 바람' '따뜻한 가족' 등. 현대문학상·월탄문학상·펜문학상·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2010년 모교 입학 57년만에 명예 졸업.

2□□ 3~21□_Aug_Rev 2012-02-12 □□ 10:34 Page 11

관악세대/Acro 광장(법창일화<6> 전복위화(轉福爲禍)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

박준창(인문대 79)
변호사

'전화위복(轉禍爲福)' 은 들었어도 '전복위화(轉福爲禍)' 라는 말은 못 들었을 것입니다. 전화위복은 알다시피 화가 복이 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거꾸로 복이 화로 변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단어의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LA에 어떤 60대의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비친 그는 스님으로 불러 주기에는 인격도, 종교적인 성스러움도, 진실성도, 배움도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세속을 벗어나 산사를 전전하다가 스님이 됐다고 합니다.

이 스님이 미국 LA에 와 단독 주택을 사서 홍인사(가명)라는 절의 간판을 달고 법회 활동을 본인말로 해 왔다고 합니다. 신도 수라야 고작 10명도 안 되는 그야말로 간판만 절인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스님이 하는 일은, 결혼 택일, 아기 이름 작명 등을 포함한 점을 보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남편과 사별한 어떤 할머니를 우연히 알게 됩니다. 할머니는 병든 남편을 오랫동안 수발하다가 떠나 보내고 외로이 지내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정이 들기 시작해 2년을 사귀다 정식 결혼합니다. 몇달이 지난 2002년 8월 경, 스님이 할머니의 딸 부부에게 "절로 쓰고 있는 집을 딸 부부에게 넘겨 주고 자신은 이제 은퇴하고 싶다. 두 사람이 여행이나 하면서 여생을 지내고 싶다. 집을 줄테니 작은 콘도를 두 사람을 위해 하나 사다오" 하고 제의합니다.

그런데 이 집이 1901년에 지은 90년이 넘는 낡은 집이었습니다.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나빴지요. 그리고 불법으로 뒷 마당에 게스트 하우스를 지었는데 시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동네가 술집이 바로 길 건너에 있고, 주말마다 고성방가, 요란한 파티가 열리며 싸움이 일어나고 경찰이 출동하는 우범지역이었습니다. 집 가치는 스님 주장으로 80만 달러라는데 주택 융자금이 20만 달러가 남아 있었고, 사 달라는 콘도가 또 20만 달러 짜리였습니다.

딸 부부는 그때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었는데 부부가 같이 일을 하고 각자 수입이 상당한, 꽤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만 달러짜리 집에서 살고 있었고, 남편은 큰 회사의 엔지니어였으며, 아내는 큰 저택만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인으로, 한 마디로 잘 나가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만치 돈에 궁색하지 않았고, 집을 준다고 혹하고 받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사는 집에서도 멀리 떨어진 LA라 집 관리도 어려웠구요. 그리고 노후한 집이라 준다고 해서 횡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죽은 남편 병 수발 때문에 오랫동안 인생을 즐기지 못했는데 두 분 행복을 위해서라면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최악의 경우 융자금 가치만 나오면 싼 값에 팔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낡고 문제가 있긴 했어도 집 한 채가 굴러 들어 온 것이지요.

그래서 소유주 이전 등기를 2002년 8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담보로 제융자 해서 1차 융자금을 갚고, 재 융자금 남은 돈에서 그 해 12월 콘도를 사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마음에 새로 입주한 콘도 리모델링 비와 한국간다 하면 여행 경비와 용돈을 넉넉히 이 스님에게 드리곤 했습니다.

집 수리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쓴 돈이 몇 만 달러 수준은 족히 됐습니다. 그리고 집의 방 2개를 렌트주었는데 이 스님이 그 렌트비는 꼬박꼬박 챙겨 갔습니다.

어쨌든 딸 부부는 집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서서히 스님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아내에게 욕설과 협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년간의 좋아 보였던 스님은 진실이 아니었고 무식하고 저질인 본성이 나왔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칼을 들고 나와 젤러 죽인다, 사람을 시켜 죽인다, 나 떠나 잘 사는지 보자, 등 협박하며 욕두문자 욕을 해댔습니다.

경찰을 부른 것도 서너번, 마침내 할머니는 스님이 무섭고 싫어져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스님은 할머니 딸 부부에게 준 집 생각이 났습니다. 문제 많았던 집을 주고 났을 때의 후련함은 사라지고 아까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문제많은 집 자체를 도로 찾아 오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머리를 굴립니다. 집을 원했다면, 소송 전 집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했을 텐데 집을 원하지 않았으니, 대뜸 단 한 번의 집 반환 요구도 없이 바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인 딸이 그 집에 욕심이 났다. 집을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 이전해주면 융자받아 50만 달러를 스님에게 주겠다, 콘도도 물론 사 주겠다, 스님은 크레딧이 없고 수입이 없어 융자가 안 나온다. 집에 남아 있는 융자금 20만 달러도 물론 자신이 해결한다. 그래서 딸을 철두철미 신뢰해 하자는대로 집을 넘겨 주었다. 그런데 50만 달러 약속은 애초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집을 넘겨 받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부부는 소송당했고 이제 방어해야 했습니다. 비싼 변호사비는 고사하고 잘못 하다가는 50만 달러를 물어줘야 할지도 모르게 된 것입니다. 복이 화로 변하는 '전복위화' 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 두 사람 다 변호사 선임을 잘못했습니다. 스님도, 이 부부도 양측 다 정말 불성실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우선, 고소장 내용부터 엉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집이 등기 이전된 것이 2002년 8월인데, 집을 주면 50만 달러를 주겠다고 한 약속이 다 2002년 12월 6일 이뤄졌다고 고소장에서 주장됐습니다. 완벽한 모순이지요. 이미 집을 받았는데 왜 그런 약속을 하겠습니까.

단, 스님이 집 이전 후 마음이 변해서 돌려달라고 하니까 집을 계속 가질 목적으로 그런 약속을 했다면 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고소장에서 제기되지도 않았고 소송 중 단 한 번도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어쨌든 소송은 진행되고 있었는데 마침내 이 부부는 자신의 변호사의 무능과 불성실을 알게 됐고 제판 1개월 전 급히 저로 변호사를 교체했습니다.

사건 착수 후 전임 변호사가 증거수집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음을 알게 됐고 모든 증거수집 절차는 이미 시기를 놓쳐 버린 후였습니다.

저는 증거수집 절차 중 하나며 가장 중요한 증인심문(Deposition)을 강행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그리 명석한 것 같지 않아 증거수집 절차 마감 시한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경우,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놀랍게도 이 변호사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스님을 상대로 증인 심문을 시작했는데 변호사와 사전 준비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거의 거짓과 엉터리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사안이 아니라서, 인정해도 해가 안될 것을 부인해서 신빙성에 손상이 가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사항인 금액마저도 고소장과 달리 딸이 약속했다고 하는 금액은 50만 달러가 아닌 40만 달러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스님이 딸이 그 집을 받기 위해 "거의 매일 왔다" 고 하길래, 제가 그러면 딸 부부가 사는 곳이 어디였느냐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아차' 한 스님이 "일주일에 몇 번씩 왔다" 로 말을 금방 바꾸고, 드디어는 "한 달에 몇 번 왔다" 로 증인심문 도중에만 몇번이고 바꾼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은 질문이었는데 본인이 스스로 "집을 양도한 후로는 콧배기도 안 비쳤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8월 전에는 딸이 한 번도 LA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이의 입증을 위해 저는 2002년도 딸의 일정 관리 캘린더를 증거 목록에 포함시켰지요).

그리고 정말 8월 이후 한 번도 안 만났다면 2002년 12월 6일의 약속은 뭐란 말입니까. 그리고 그나마 2002년도 회동이나 그 이후 회동에서도 자신, 딸 부부, 할머니 이렇게 4명이 거의 항상 함께 만났음에도, 딸 대 자신의 증언 대결로 몰아가기 위해, 오직 딸하고만 다른 사람 없이, 아주 짧게 둘만 만났다는 증언, 또한 할머니와 렌트비를 항상 같이 가서 받아 와 놓고도 자신은 단 한 푼의 렌트비도 받지 않았다는 증언, 콘도 리모델링을 일체 하지 않았다는 증언 등 거짓 투성이었습니다. 딸 부부측은 할머니의 증언, 2002~2003년 캘린더, 콘도 리모델링비 내역서 등을 확보해 놓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더구나 만약 그런 약속을 했었다면 현금 50만(또는 40만) 달러에, 콘도 20만 달러에, 융자금 상환 20만 달러, 합계 90만 달러가 필요한데, 집 가치에 대한 스님 주장을 인정해도 80만 달러니 딸 부부는 10만 달러 손해입니다(40만 달러 주기로 한 약속이라면 손해도 이득도 없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왜 딸이 먼 샌프란시스코와 LA를 거의 매일 다니며 집 양도하라고 애걸했겠습니까. 지독한 바보거나 어머니의 새 남편을 위한 지극한 효심이거나 둘 중 하나로 밖에는 해석이 안돼죠

마침내 재판날 법정에 갔더니 담당 판사가, 앞선 재판이 안끝난 관계로 재판할 장소도, 재판해 줄 판사도 없으니 연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다 출석했으니 마지막으로 화해, 합의가 될 수 있는지 다른 판사 앞에서 노력해보라고 합니다.

내용을 듣고 난 합의 주선 판사는 집 등기 이전 서류를 보자고 했습니다. 서류제시 후 물론 저는 소장 내용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제게 최소한 사기 부분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 상대의 체면 유지를 시켜주자고 했습니다.

재판할 때 소요될 저의 변호사비와 경비보다 작은 금액을, 나누어 지불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내부적으로 설정한 최고 합의금 액수가 있었고, 이 금액의 반을 합의 금액으로 제시했습니다. 분명 상대방에서 올릴 거란 생각을 하고서 말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상대방이 기다렸다는 듯 덥석 이 금액을 수락한 것이지요. 저희들은 믿어지지 않아 서로 얼굴을 쳐다 봤습니다. 그리고 표정 관리를 하며 아쉽다는 듯 상대 변호사에게 그렇게 합의보자고 했지요. 그래서 작은 금액에, 집은 그대로 지키고 재판을 위해 받았던 딸 부부의 일주일 휴가는 재판 휴가 아닌 LA에서의 골프와 관광휴가로 바뀌었죠.

그래서 집 한 채가 생기는 복은 화로 변했다가 다시 복으로 변했는데요, 살아란 것이 참으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고, 한 길 사람 마음을 알 수 없다는 불확실 자체가 아닌가 합니다.

**끝내면서 드리는 변호사 농담 하나:

미 항공 우주국에서 화성에 가서 살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지구와 너무 멀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대신 돈은 원하는 만큼 주는 조건이었다.

첫번째 지원자가 왔는데 엔지니어였다. 엔지니어는 100만 달러를 원했다.

이유는? "과학 진흥 기금으로 기부할 겁니다."

두번째 지원자가 왔다. 의사인데 200만 달러를 요구했다.

이유는? "100만 달러는 지구에 남아 있을 불쌍한 내 가족에게 주고, 나머지 100만달러는 암 퇴치 기금으로 기부할 겁니다."

세번째 지원자가 왔다. 변호사였다. 300만 달러를 달란다.

이유는? 하고 면접자가 물었더니 귀를 좀 빌려 달란다. "100만달러는 당신이 갖고, 100만달러는 내가 갖고, 나머지 100만 달러로 저 엔지니어를 화성으로 보냅시다." ***

"인격도, 신앙심도, 진실성도 없는 스님이 장가를 들고 나서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며 소송걸어…"

그림= 박준창 화백

2□□ 3~21□_Aug_Rev 2012-02-12 □□ 10:34 Page 12

관악세대/Acro 광장(인류학 칼럼◈ 인간, 털을 잃다

치사한 사냥꾼 인간의 진화

이상희(인문대 85)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부교수

아주 추운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필수 의상은 모피 코트다. 춥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모피 코트는 부의 상징이다. 그리고 동물 운동가들에게 모피 코트는 인간의 잔악무도하고 파렴치한 산물이다.

인간이 다른 동물의 모피로 외투를 만들어 입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인간의 몸은 민몸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모피= 인간의 모피는 어디 갔는가? 포유류의 특징 중 하나는 체온의 항상성이다. 체온을 항상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킬 수 있는 포유류는 훨씬 더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체온의 항상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온 몸에 난 털이다. 모근 하나 하나마다 연결돼 있는 근육은 추울 때 수축해 털을 세운다. 세워진 털들은 그 사이 사이에 공기를 모아둠으로써 따뜻한 공기층이 몸 전체를 뒤덮는 셈이 된다. 포유류 동물은 모피 코트를 가지고 태어나는 셈이다.

더울 때는 모근 근육이 이완해 털은 눕혀진다. 그래서 더워진 체온을 식히는 역할을 한다. 털은 치명적일 수도 있는 자외선과 기타 주변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나뭇가지 무성한 숲길, 쏟아지는 비, 우박, 눈, 이 모든 것들에서 몸을 보호한다. 그런데 인간의 몸은 이 모든 것들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인간의 몸은 대략 맨숭맨숭하다. 인체에 나 있는 모공의 수는 비슷한 몸집의 다른 포유류 동물과 비슷하다.

인체에는 비슷한 몸집의 다른 포유류 동물과 비슷한 갯수의 털이 나 있다. 단, 그 털은 솜털에 가까워 짧고 연한 색깔을 띠고 있다. 그래서 언뜻 보면 털이 없이 맨들맨들하게 보인다. 인간은 털의 수를 줄여 맨몸이 된 것이 아니라, 털의 종류가 바뀌어 맨몸이 됐다. 인간의 몸은 털 대신에 두꺼운 피하지방층으로 덮여 있다.

아마도 고릴라나 침팬지의 공동 조상은 온 몸이 털로 뒤덮여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초기 인류가 언제, 어떻게 맨몸이 됐을까. 여기에 생식기와 젖가슴을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라는 '벌거벗은 유인원' 가설은 설득력이 없다.

▶맨몸의 기원= 커진 생식기와 젖가슴이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맨몸이 된 후, 두발로 서서 걷게 된 이후이고, 애시당초 맨몸이 됐던 연유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인류가 물속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고래나 하마같은 물속 포유류처럼 털없는 몸이 됐을 것이라는 '물속의 유인원' 가설 역시 설득력이 없다.

인간이 몸털을 잃게 된 배경은 고기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게 된 일과 연관돼 있다는 가설이 현재 가장 설득력이 있다. 침팬지와 공동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초기 인류는 채식으로 시작했겠지만, 고지방-고단백 음식에 맛을 들이기 시작한 것은 250만년 경부터다.

그러나 이 때는 아마도 다른 짐승들이 먹고 난 찌꺼기인 뼈를 깨서 그 안에 있는 골수를 먹는 정도였을 것이다. 초기 인류의 불 품없이 작은 몸집은 다 큰 어른이래봤자 신장 1미터에 30킬로그램 몸무게를 겨우 넘기는 정도였기 때문에 사냥으로는 도저히 경쟁에서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도구 이용= 눈치껏 겨우 빼먹던 골수 덕에 두뇌는 커지고 몸집도 커지면서 제대로 된 돌도구를 이용해 사냥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냥에는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 아무리 몸집이 커 봤자 사자와 같은 맹수들과는 절대 경쟁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0만년 전 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인류 조상은 몸집이 커져 180센티의 키와 60킬로그램의 몸무게에 육박하지만 그 역시 사자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민다. 사냥을 담당하는 암사자의 몸무게는 150킬로그램을 쉽게 넘는다.

맹수들과 직접 경쟁을 피하면서 그들의 먹잇감을 가로챌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다. 털을 가진 짐승들은 주로 초저녁과 아침에 총력을 기울여 사냥을 한다. 이들은 뜨거운 대낮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다. 왜냐하면 뜨거운 체열을 효율적으로 발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털로 뒤덮인 맹수들은 체온을 발산하기 위해 입을 벌리고 뜨거운 호흡을 계속 연속적으로 내쉬어야 한다.

말복 더위에 축 늘어져 혀를 내밀고 헉헉거리는 개를 생각하면 된다.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시속 65km로 힘껏 달려 도망가는 영양을 뒤쫓아 잡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맨몸은 장점도= 그래서 몸집 큰 포유류는 아침 저녁에 잠깐 반짝하고 해가 중천에 걸려 있는 동안에는 그늘에서 쉬거나 낮잠잔다. 그동안 사냥감들은 안심하고 물도 찾아 마시고 여유자적하는데(?) 보잘 것 없는 사냥꾼 인간은 바로 이 때, 맹수들이 움직이지 않는 대낮에 사냥감을 찾아 나서면 되는 것이다. 틈새시장을 노리는 셈이다. 인간도 온몸이 털로 덮여 있다면 대낮에는 땍도 못추고 그늘을 찾아 쉬어야 한다.

털이 없는 민몸은 우연한 돌연변이였을 것이다.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땀샘이 있다.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등에서 특유한 냄새를 내는 부분분비땀샘과 냄새가 나지 않는 땀을 내는 샘분비 땀샘으로 부분분비 땀샘은 인간 외 다른 포유류에게도 있는 땀샘으로 암내를 내어 짝짓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샘분비 땀샘은 인체 전체에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샘분비 땀샘에서 나오는 땀은 증발돼 뜨거워진 체온을 식혀준다. 인간은 땀을 증발시켜 뜨거운 체열을 발산하는 기발한 방법으로 대낮을 정복했다.

맹별 아래서도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이 때 벤들벤들한 살이어야 된다. 털이 많으면 안된다. 그러면 땀이 증발하지 않고 그대로 물기인 상태로 피부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장점을 십분 발휘해 사냥을 했다. 짧은 시간에 뛰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짐승을 며칠이고 쫓아다니다가 끝내는 잡고 마는 '스토킹' 사냥은 최근까지도 아프리카의 부족들이 쓰던 방법이다.

▶털이 없는 데 문제점= 그러나 털이 없어진 인간에게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우선은 땀을 많이 흘리게 돼 물에 그만큼 의존하게 됐다. 건조화가 진행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이동반경내에 마실 물을 구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귀중했다. 물은 계절적으로 생기기도, 없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저장하고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했다.

이 또한 커지는 두뇌 용량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물을 마시러 물가로 가는 일은 위험을 무릅쓸 수밖에 없다. 초기 인류 화석들의 상당수가 당시 물가였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많은 경우 물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털이 나 있는 피부는 하얗기 때문에 털이 없어지자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됐다. 자외선은 피부암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돌연변이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임신과 태아에게 안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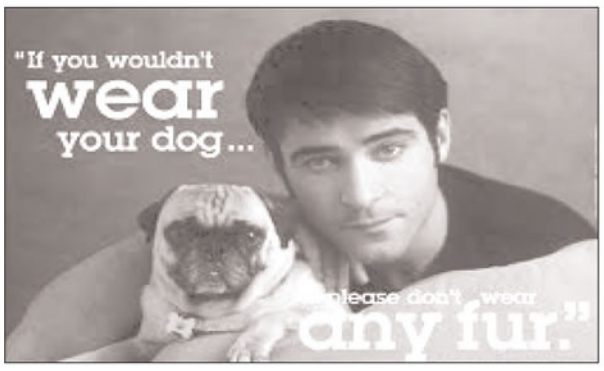
▶멜라닌 색소= 멜라닌 색소는 이렇듯 치명적일 수 있는 자외선을 차단시킨다. 인체의 멜라닌 색소는 멜라닌 색소를 생산하는 특수한 세포에 의해 생산된다. 피부 색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멜라닌 세포의 수가 아니라 세포의 활성도다.

이러한 멜라닌 색소의 생산을 담당하는 유전자는 1990년대에 첫 유전자가 발견됐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적어도 20여개의 피부색 유전자가 발견됐다.

인간의 피부색에 관련된 유전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인간의 피부색 역시 연속선상에서 계속되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검은 피부' 는 지역에 따라 다른 체도와 명도를 가진 검은색이다. 이렇게 자외선에 노출된 벌거벗은 인간 중 멜라닌 색소를 활발하게 생산할 수 있는 유전적 변이를 가진 인간이 많은 후손을 남기게 됐다.

인간은 민몸이라는 돌연변이에 검은 피부라는 돌연변이가 추가로 발생한 다음에야 드디어 아무도 무시못할 사냥꾼으로서의 멥시를 갖추게 됐다.

이렇듯 인간은 성공적인 사냥꾼이 됐지만, 모피 코트는 더 이상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맞이할 때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됐다. ***



←동물 애호가들의 모피 반대 선전 팜플렛 중의 하나

정치철학의 소고〈2〉

김기태(문리대 55)
동창회보 논설위원

(1편은 2011년 2월호 참조)

인간이 밝은 빛 아래서(대낮에) 흑심을 갖고 사욕을 취할 수 있을까. 도둑질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Dr Jekyll & Mr Hyde에서 보듯 선악은 음양에 관계가 많나 보다. 인간은 거의 예외없이 Split Personality를 갖나 보다. 선악의 어느 쪽이 더 강하느냐에 따라, 또 주어진 조건에 따라 한 인간이 Dr.Jekyll이 될 수도 있고, Mr. Hyde가 될수도 있나 보다.

이 선악(Good & Evil)에서 선(Good)만이 사는 세상은 없을까. Dr Jekyll만 사는 세상은 없을까. 없으면, 그런 선(Bonus)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Aut Viam Inveniam Aut Faciam(Lat).

나는 그런 (선한) 길을 찾을 것이다. 아무리 애써도 실패하면, 그 길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러한 결단으로 우리 인류의 선조들도 오래 전부터 고민해 왔을 것이다. 그러면 증 석가(Buddha)·공 자 (Confucius)·Socrates·Plato·Aristotle·Jesus Christ·Mohammad 등 무수한 현철들은 인간에게 사는 법도와 종교를 가르쳐 인생을 암흑에서 구하려 했으리라.

이제 종교적인 힘을 빌려 인간이 지상낙원에 접근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모든 종교가 인간을 교도함에는 다 같이 좋으리라 믿으나, 여기서 간단히 한 종교, Christianity를 택해 교리에 근거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아다시피 Jesus는 사랑을 가르쳤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다. 남의 재산, 남의 여자를 탐내지 말라 했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 했다. 중요한 점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사소한 짓까지 모두 살펴본다고 했다. Almighty God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는 모든 부정부패, 비리없는 Honored Society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아주 간단하다. 그래서 종교가 필요했나 보다. 하나님이 지켜 보시고 상선벌악 하시면 Utopia는 참 쉽게 얻어지나 보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종교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겼거나, 또는 현철들이 그 필요성에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닌가, 결국 인간이 하나님과 종교를 만들었다고 의심해 본다.

그러면 이제 무신하의 인생을 고민해 보자. '인간 단독의 힘으로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바로 그 점이다.

대답은 "No!" 나 보다. 고대 현철들은 이미 알고 있었나 보다. 그러니 이를 얻을 수 있는 시기를 내세로 넘겼나 보다.

현세에서 잘 하면 내세에서 보상받고 천당에 간다는 말이다. 그래서 현세에선 선하고 착하게, 지나친 욕심없이, 살자는 것이다. 우리 성인들, 가장들, 공부를 많이 한 현철들, '혹 하나님은 없다. 또는 죽었다' 고, 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고 떠들지 말고, 경건한 몸 가짐으로 부모처자 즉 가정을 위해, 건전한 사회와 국가를 위해, 또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 성실한 교인 가족을 이끌 수 있도록 솔선 수범하자.

이것이 지상에서 Honored Society를 이룩하고 Utopia에 접근하는 오솔길임을 가슴 깊이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좋으나 싫으나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의 오솔길(소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비록 그 길은 도중에 많은 유혹이 있고 가기 어렵고 좁고 험준하나, 그 길로 꾸준히 걸어 가면,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낙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Ne nos inducas in tentationem, sed libera a malo!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악에서 구하소서! 제가 흑 착한 신자가 된 듯 합니다!*** <지질학 Ph.D.>

2ㄱㄱ3~21ㄱ_Aug_Rev 2012-02-12 ㄱㄱ 10:45 Page 13

이 달의 초대석<3> 제3대 동창회장 강수상 박사

"소신을 가진 자신만의 삶이 중요하죠"

평생 학문 일변도의 의학자, 현재도 연구생활
동창회장시 동창회 재단과 관계 확실히 정립

미주 의대 동창회 동문들은 "의대 동문 중 시카고의 강수상(의대 47) 선배를 가장 먼저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그만치 강수상 박사가 미주 의대 동문사회의 가장 원로로서 끼친 영향이 크고 깊다는 뜻이다.

강수상 박사는 지난 1990년 미주 의대 동창회장을 거쳐 1993년 제2대 미주 동창회장으로 봉사했다. 미주 동창회장 재임시 동창회와 동창회 재단간의 혼미했던 관계 정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수상 박사는 지난 1959년 Minnesota 대학에서 수학 후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을 한국의 질병치료에 최초로 도입한 의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1964년 시카고 대학에서 본격 유학생활을 시작한 이후 8순을 넘긴 지금도 연구 일선에서 떠나지 않고 심장 유전질환, 항 노화 연구, 신 개발 특허 등 평생을 학문 일변도 의학자의 삶을 걸어왔다.

후학들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스티브 강 장학재단'을 본격 가동해 지금까지 140여 명에게 약 50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강수상 박사로부터 지금까지 그간의 이모 저모를 들어봤다.

-의학의 길을 선택하시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대구 계성중학 시절 진갑덕(화학)·유시승(생물) 두 선생님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생명의 신비에 대한 두 분의 가르침에 크게 감명을 받은 것이 의학의 길로 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지요."

-의대 시절은 어땠습니까.

"의학부 2학년에 올라가자 마자 6.25 한국전쟁이 발발해 경북의대에서 3학년을 보내고 부산의 전시 연합대학에서 대학 생활을 끝낸 뒤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학교의 복잡한 사정으로 군의학교로 가 육군 군의관 3년 복무 후 1956년 모교 대학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도미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Minnesota 대학과 모교가 1953년부터 자매결연이 돼 있었는데 1958년 이 '미네소타 플랜' 마지막 해에 Minnesota 대학에 가게 되었어요. 1년 반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때는 방사성 동위원소 의학이 생물 물리학에 속해 있었는데 핵의학 외에 물리학·물리화학·세포학 등 50여 학점을 받으며 학위 준비를 했지요. 그 뒤 다시 모교로 돌아가 국내 최초로 '방사성 동위원소실'을 만드는 데 일조했어요."

-모교에서 박사 학위에 강의도 맡으셨는데 다시 미국 유학을 택하신 이유는요.

"당시 학교의 연구 분위기가 너무 열악했어요. 1962년 전임강사 시절 9명의 그룹이 '이래서는 장래가 없다. 선진국의 학문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나는 IAEA 장학금 프로그램으로 1964년 시카고 대학에 관용여권으로 유학을 왔지요."

-시카고 대학에서 어떤 분야를 공부하셨나요.

"LaRabida 연구소에서 단백질 중 특히 Peptide의 분자유전학을 연구했어요. 당시 이 분야는 초창기였는데 1982년 의학유전학 전문의 제도가 생기면서 'American Board of Medical Genetics' 창립 회원이 됐습니다."

-단백질 분야 연구 업적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Homocysteine 과 심혈관, 관상동맥증과의 관계를 유전학적으로 규명한 것입니다. 유전병이 없는 정상인에서 이 물질을 처음 추출해 정량하였고 그 유전자를 규명했으며 이 물질의 축적은 유전이 아니더라도 비타민의 하나인 엽산이 떨어지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변이 이름 TMTHFR는 지금도 가지고 있는 내 차의 면허판입니다. 제가 처음 발견한 단백질에 결합된 Homocysteine 연구는 미국 의학계에서 꽃을 피웠고 한 동안 환자 혈액검사 때 반드시 정량이 규명되어야 했으며 그 계기로 국내외 심포지엄에 많이 초대되어 바쁘게 다닌 때가 있었습니다."

-모교로 복귀하면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었을 터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2~3년 공부한 뒤 모교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미국에 나와 있는 데도 모교에서는 부교수로 승진시켜 주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연구실의 Markovitz 박사가 교수 자리를 주면서 적극 만류했습니다. 그 바람에 눌러 앉아버리고 말았지요. 일리노이 대학병원에서 임상수련을 마친 뒤 Rush 대학 병원에서 소아과와 유전학 전문의, 생화학 유전학실 디렉터로 재직 중 정년 퇴직해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미주 동창회의 초창기라 할 수 있는 제2대 회장으로서 어려움도 많았겠습니다만.

"당시 아직 미주 동창회 체계가 잡히지 않아 동문들은 각 지역 동창회 중심으로 미주 동창회에 대한 관심이 극히 미약했습니다. 평소에는 지역 동창회가 중요하겠지만 전 미주 동문들의 의견 결집이 필요한 데 동창회가 그 구심점을 찾는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미주 동창회와 재단은 어떻게 해서 양립한 것인지요.

"미주 동창회가 정식으로 발족하기 전 동창회 외에도 동문들의 복지와 모교 발전을 위한 기금 모금의 재단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1991년 워싱턴 DC에서 열린 창립 총회에서 두 개의 동창회 기구로 워싱턴 DC가 2년 임기의 미주 동창회장, LA가 임기 4년의 재단 이사장을 맡기로 합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당시 동창회와 재단 사이가 미묘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앞서 말한 대로 동창회 재단은 동문회원의 복지와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토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가뜩이나 결속이 필요한 동창회가 이 때문에 더 화합이 어려웠지요. 그래서 내가 회장 재임시 평의원회의를 통해 재단 이사장을 미주 동창회장이 맡도록 의결하고 제3대 이병준 회장에게 넘겨준 것은 나름대로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창회장 재직시 아쉬웠던 점은 없었습니까.

"사실 지역 동창회는 미주 동창회에 대해 권리도 가져야 하지만 의무감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야 더 나은 동창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이같은 의무 조항을 개정 정관에 제대로 넣지 못했던 것은 큰 유감이지요."

-현재의 미주 동창회장 선출 방식은 어떤가요.

"동창회장의 요건으로 자격 외에도 흔히 경제력을 거론합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때문에 자격요건이 충분한 동문들이 경제력이 문제로 회장에 선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동문들을 위한 복지나 모교 발전을 위한다면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지만 미주 동창회 운영 자체를 위해서 필수조건이 되는 일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주 동창회에 바라고 싶은 점이 있다면요.

"현재의 동창회는 잘 융합돼서 모범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문들이야말로 이곳에서 동문 서로를 위해, 모교를 위해, 나아가 모국을 위해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동포 사회를 위해, 후손들이 주류 사회에서 지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요."

-후세 교육을 위해 '스티브 강 장학재단'을 만드신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나 자신 어렸을 적 어렵게 공부해 경제사정이 힘든 후진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998년 28살이던 막내 스티브를 불의의 교통사고로 잃었지요. 그 사고 후 바로 이 장학재단을 만들어 이듬 해부터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강수상 박사 부부는 지금까지 올해로 13년째, 매년 약 20명에게 1천 달러부터 1만 달러까지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매년 5만 달러의 장학금을 출연해오고 있다. 대상은 예술·인문·자연과학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과 창의력을 가지고 학업에 열정을 보이는 대학 및 대학원생을 선출하여 지원해주고 있다. 이 장학금은 매년 연속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 재단은 기금 마련을 위해 기업이나 단체의 기부금도 받고 있다.)

-부인 강정희 박사는 시카고에서 동포사회보다는 특히 주류 사회 유명 인사인데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됐는지요.

"아내는 퍼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같은 생명과학 분야를 전공했기 때문에 학회에서 자주 만나다 서로 끌려 결혼하게 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별도 조사한 것으로 강 박사 부부는 절대 사절했으나 후손들도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기에 편집주간 주관으로 게재한다. '강정희 박사는 1980년대 Korex Industrial Partnership의 공동 설립자로 한국산 자전거를 연 100만대씩 수입해 연 6천300만 달러의 실적을 올린 바 있다. 당시 미국·캐나에서 자전거 10대당 한국산 1대 꼴로 급증하자 위협을 느낀 미 업계가 정부에 덤핑 제소했다. 이에 강정희 박사가 직접 청문회에 나가 덤핑의 부당성을 증언, 제소를 기각시켰을 정도의 역량을 발휘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이 뒤 고국 정부가 수출산업 훈장을 수여했다. 또한 1990년대 짐 에드가 일리노이 주 지사의 경제발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돼 동양인 여성 최초로 인수인계팀 일원으로 관여했고 연 30억 달러의 자산을 관장하는 주정부 주택청에서 18년간 활동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는 시카고 전당대회 유치를 위한 호스트로도 참여해 크게 기여했다. 또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처제 강영희 박사는 강창만(의대 58) 동문 부인으로 시카고 한인 문화회관 회장으로 '한인문화회관'을 처음 건립해 시카고 동포사회 동서문화 교류에 큰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조나 좌우명 같은 것은 없는지요.

"누구나 한 번 사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집착할 수 있는 일에 소신을 가지고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현실적인 성공에 얽매어 얻어져야 할 자기 나름의 삶의 경험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편집주간>

←강수상·강정희 박사가 1남2녀 자녀들로부터의 손자·손녀들과 함께 했다. 1남 2녀는 각각 의사·변호사·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다.

강수상 박사 약력

▶1931년 경남 의령 출생 ▶1947~1953년 모교 의대 입학 및 졸업 ▶1963년 모교 대학원 졸업, 의학박사 ▶1977년 소아과학 전문의 ▶1982년 의학유전학 전문의 ▶1958~1960년 Minnesota 대학 수학 ▶1961~1969년 모교 의대 전임강사, 부교수 ▶1964~1967년 Chicago 대학 유전학 Fellow ▶1977~2005년 Rush 의대 교수, 생화학·유전학 디렉터 ▶1990년 북미주 모교 의대 동창회장 ▶1993년 미주 동창회장.

2ㄱㄱ3~21ㄱ_Aug_Rev 2012-02-12 ㄱㄱ10:45 Page 14

↑오연천 총장 내외가 뉴욕 동창회를 방문해 등문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뉴욕 동창회

오연천 총장 동창회 방문

임진년 새해를 맞아 모교 오연천 총장께서 뉴욕지역 동창회를 방문했다.

뉴욕 동창회는 지난 1월 20일(금) 오후 7시, 뉴저지 풍림 연회장에서 이준행 골든 클럽 회장 내외분을 비롯해 18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을 방문한 오연천 총장 내외, 최종원 행정대학원 교수, 김준기 행정대학원 교수, 모금지원실장 안지현 교수, 모금팀 허슬기 등문 등을 환영하는 행사가 있었다.

오연천 총장의 뉴욕 방문은 지난해 추진되었던 뉴욕방문 계획이 학내 사정으로 취소된 후, 거의 1년만에 다시 이뤄진 것이다.

오 총장은 지난 1977~1982년 뉴욕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한 관계로 뉴욕에 대한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있다.

오 총장은 인삿말에서 '자율화'로 요약되는 모교 법인화의 원년인 올해부터 모교가 추진하는 법인화 전환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에 관해 소상히 설명하며 많은 동문들의 성원과 참여를 부탁했다.

이날 이준행 골든 클럽 회장과 에드워드강 뉴욕 동창회 전 회장이 각각 1만 달러씩 모교 발전 기금에 출연해 참석 동문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동문은 다음과 같다.

이준행 골든 클럽 회장 내외, 에드워드강 전 회장, 임호순 골든 클럽 수석 부회장, 권태전 동문, 권문용 동문, 최형무 동문, 손경택 골든 클럽 부회장, 이전구 동문, 이경림 동문 김영덕 동문, 정인식 동문, 한경수 동문, 이용대 약대 동창회장, 김영휘 법대 동창회장.

겨울 바다낚시

뉴욕 동창회 골든클럽 회원 11명을 포함한 12명이 지난 해 12월 14일 Montauk에서 겨울 바다 낚시 행사를 가졌다.

골든 클럽 이준행 회장의 특별 배려로 Miss Montauk 호를 전세내 최철용 낚시회 위원장으로부터 낚시 요령 등 기본 강의를 들으며 아침 바다를 헤치고 2시간 여 달려 오전 8시부터 낚시를 시작했다.

이날 어찌나 반응이 빨리 오는지 낚싯대 한 대에 주로 두 마리씩 올라오곤 하는데, 미끼를 갈아 끼우고 낚싯대를 드리우면 3~4분이 채 안되는 시간에 입질하곤 했다.

오전 11시 경 벌써 쿨 박스에 가득했고, 릴을 감아올리는 팔이 뻐근해질 정도라 쉬어 가면서 싱싱한 즉석 생선회로 점심을 대신했다.

말로만 듣던 '물반 고기반'으로 어떤 때는 Porgy와 Sea bass가 기다렸다가 미끼를 무는 듯, 낚시를 넣자마자 입질을 하기도 했다.

오후부터는 비도 오고 바람도 강해지면서 파도가 거세지리라는 일기예보에 따라 12시반에 낚시를 끝내고 돌아오는데 어느새 파고가 높아지면서 아침 출항 때의 2시간 거리가 돌아오는 데는 3시간이나 걸렸다.

참가자 모두 20~30마리 이상을 쿨러에 담아 가면서 다음 기회를 기대하며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이날 참가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

이준행 골든 클럽 회장, 최철용·손경택·이경태·이전구 전 미주 동창회장, 호민선·홍종만·김영식·손영철, (게스트)남궁영민 외 2명.

<홍무국장 홍종만>

↑홍종만 총무국장(왼쪽)이 거대한(?) 시 배스를 낚았고 이경태 회원이 방어를 낚아 들고는 희색이 가득하다.

간호대 2012년 임원진 신임 김광희 회장 선출

뉴욕 지역 간호대 동창회가 지난 해 12월 말 모임을 통해 신임 회장으로 김광희(간호 73년 졸) 동문(914-522-0536)을 선임했다.

신임 김광희 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전임 회장은 앞으로 2년간 간호대 이사로 봉사한다.***

중부 텍사스 동창회 이영재 회장 취임사

"전통과 긍지살려 동창회 빛낼것"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이해 '중부 텍사스 서울대 동창회'를 탄생시킨 10인 창립회원 여러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부족한 사람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해 주시고 동창회 역사 첫해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토록 값진 일을 위해 열성을 다해 달라는 여러분의 뜻에 부응해 앞으로 1년간 저의 모든 열정을 바쳐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스틴과 킬린을 양 정점으로 한 중부 텍사스는 살기 좋은 환경과 안정된 경제력으로 미국에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어스틴은 텍사스 주 수도이며 텍사스 유니버시티가 있는 교육도시로 최근 하이텍과 그런 기업들의 중심지로서

도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 이곳에 진출한 삼성전자는 계속적 영업성장에 현재 대규모 공장확장에 있어 장차 큰 고용확대가 기대됩니다.

군사도시 킬린은 미국내 가장 큰 기지 중 하나인 Fort Hood가 있는 곳으로 한인 이민역사가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단기적으로 이라크와 아프간 지역으로부터의 회군 때문에 호경기가 계속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도 Fort Hood 만큼은 군사비가 축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나날이 좋아지는 여건들을 고려하면 지금이야 말로 우리 동창회 발족에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뉴욕에서 30년, 필라델피아에서 6년 살다 2년 전 직장을 은퇴, 이곳 조지타운에 와서 아내(김청자 동문)와 살고 있습니다.

오늘 10명의 동문 외에 비공식적으로 약 10명 정도 더 파악되고 있습니다. 웨이코와 샌안토니오 지역에 더 많은 회원들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처럼 우린 홀로 살 수만은 없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언어와 정서의 차이 때문에 완전히 동화돼 살기 힘들므로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밖에 향우회·동창회등 모임들이 있는데 그 중 동창회는 모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각 학교의 성격과 전통에 따라 선후배가 모이는 동창회는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 동창회에 나가 느끼는 것은 평화와 높은 긍지입니다. 우리 동창회는 제가 아는 한 정치성이 적고 봉사성이 큽니다. 따라서 순수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은 긍지는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모교 출신 중엔 큰 부자가 많지 않고 큰 권력가나 정치인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능한 판리자·공무원·학자·기능자 및 예능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 일하든 유능하며 책임감이 강하고 정직하며 잔 재주를 부리지 않습니다. 또 사리사욕보다 공익추구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후배들을 존경하고 긍지를 갖습니다. 비록 힘든 여건에 처해 있더라도 좋은 선후배들이 주변에 많아 자랑스럽고 힘을 얻게 됩니다.

저희 부부는 미주 서울대 동창회보의 애독자들입니다. 이 신문에는 다른 어느 신문에서도 보기 힘든 좋은 글과 기사와 정보가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으나 긍지가 강한 서울대 출신이길 원합니다.

동문 여러분, 희망의 상징이라는 '흑룡의 해' 2012년 1월 14일 발족한 '중부 텍사스 서울대 동창회'가 큰 축복을 받고 우리의 귀한 전통과 긍지를 살려 중부 텍사스를 늘 빛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ㄱㄱ3~21ㄱ_Aug_Rev 2012-02-12 ㄱㄱ10:45 Pag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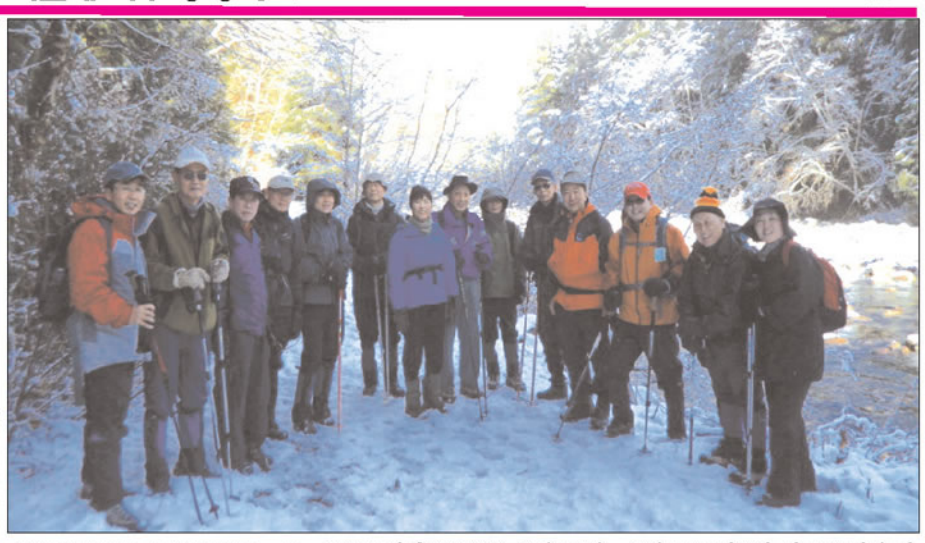


사진 왼쪽에서 시계방향으로, 산 정상 부근에서 동문들이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다. 본격 산을 오르기 전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휴게소에서 함께 하는 식사의 꿀맛은 경험해봐야 안다(?).

밴쿠버 동창회

새해맞이 두차례 산행으로 더욱 와압

밴쿠버 동창회가 2012년 새해를 맞아 1월 두 차례나 설산의 산행을 실시해 동문간 화합을 더욱 다지는 행사를 가졌다.

1월 14일은 Lynn valley에서 등반 행사를 실시했는데 전 날 내린 많은 눈 때문에 제대로 행사가 가능할까 우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첫 산행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즐겁고 순조롭게 마쳤다.

이어 28일에는 Cypress Holyburn Mount 산행을 다녀왔다.

14일 산행에는 유동성(58)·박헌철(58)·이인철(59) 동문 부부, 박하일(59)·홍국남(61) 동문 부부, 이광호(62)·한일상(63)·문창영(70) 동문 부부, 김대헌(75)·박병우(76)·최승선(76)·진성훈(82)·조영제(83) 동문 등 총 17명이 참가했다.

계곡을 덮은 눈과 산등성이로 피어 오르는 열은 구름 안개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방불케 했다. 매번 산행이 이 날 같기만 하였으면 좋겠다.

동문들과 산행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한다는 사실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은 결코 없다.

그런데 '왜 그럴까'를 혹시라도 생각해 보았는가.

혹자는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산행 플러스, 언제나 만나면 편한 동문 모임이 시너지 효력을 발생시킨 플러스 플러스, 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다" 라고 말한다.

또 다른 사람은 "동문들과의 산행은 무엇인지가 우리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 가도록 이것 저것 비워내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치 끝없이 걸었던 Capilano 강의 맑은 물이 계속 흘러 내려가듯, 멩그렇게 선 정자에서 바라본 Mount Seymour가 새 눈으로 덮이듯 한다" 고 했다.

나는 후자인 것 같다. 왜냐 하면 아직 마음을 다 비워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만나기를 기대했던 몇몇 동문들의 빈 자리 만큼이다.

한국에서 잠시 방문 중, 많은 애정을 가지고 첫 산행에 참여하여 주신 한일상·박병우 동문님께, 그리고, 첫 행사를 알차게 인도해주시고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주신 산악회장님께 회원을 대신해 감사드린다.***

<최승선·진성훈>

시카고 동창회 세종문화회

음악경연대회 입상자 연주회 열어

제8회 세종음악경연대회 입상자 대상 시상식 겸해

시카고 서울대 동창회가 적극 후원중인 세종문화회(회장 박종희·의대 69, 이사장 김호범·상대 69)가 제8회 세종 음악경연대회의 입상자들을 위한 연주회 및 시상식을 지난 1월 8일 노스웨스턴 대학 럿킨 홀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는 일리노이 아츠 카운슬 등의 후원으로 지난 해 12월 10일 열렸던 음악경연대회에 따른 것이다.

이날 연주회에는 바이올린과 피아노 부문에서 고등·중등·초등부 각 1·2·3등, 한국곡 해석상·장려상 등을 수상한 입상자 중 일부를 제외한 총 18명이 무대에 올라 안정되고 세련된 기량을 선보였다.

이들의 연주가 끝날 때마다 객석에서는 박수 갈채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공연 직후에는 시상식이 이어져 입상자들에게 상패와 상금이 전달됐다.

세종문화회 김호범 이사장은 "이번 공연은 학생들이 좋은 무대에서 보다 많은 경험을 쌓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 연주에 대한 새로운 열정과 함께 자신감도 배양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제8회 세종 음악경연대회 입상자들과 세종문화회 관계 동문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왼쪽에서 다섯번째가 박종희 회장, 오른쪽 끝이 김호범 이사장이다.

바이올린 초등부 1등을 차지한 존 허군(메도우브룩 초등교 5학년)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1등을 했고, 다른 우수한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도 서게 돼 너무 기쁘다. 아직 마음을 굳힌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음악을 전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고 소감을 전했다.

시카고의 세종문화회가 실시 중인 문화 행사 중 이같은 음악경연대회는 미래의 음악계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이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한껏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동문 모임< 남가주 '말수회(末水會)' >

매월 마지막 수요일 만나 친목다져

남가주의 '말수회(末水會)'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 동문들의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를 위해 만든 모임이다.

이 모임은 현재 타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Golden Club과 비슷한 성격의 모임으로 남가주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동문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것이다.

남가주 말수회는 2009년 당시 제영혜 남가주 동창회장이 뜻있는 분들과 함께 시작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만남을 지속해오고 있다.

'마지막 수요일' 이라는 이름의 '말수회'는 김건진(문리대 62) 동문이 지은 것이다.

이를 최종혁(대학원 68) 동문이 실무를 맡아 출범했다.

이후 1년 반 전부터는 필자(김상찬·문리대 65)가 맡아 현재까지 이끌어 나가고 있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경우 거의 골프대회로 친목을 다져오고 있다. Alcadia의 Santa Anita골프장이 Home Course이며 매년 1~2차례는 타 지역 골프장으로 원정도 하고 있다.

지난 한 해에는 말수회가 많이 성장해 현재 총 47명이 등록해 있다. 남가주 지역의 모교 동문은 모두가 참가 자격이 있고 부부동반도 환영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에게 문의해주기 바란다.

e-mail:sckim_1@yahoo.com
전화(714)396-0493

위 사진은 지난 1월 25일 모임에서 류동웅(문리대 56) 동문이 촬영한 것이다.***

<김상찬>

2ㄱㄱ3~21ㄱ_Aug_Rev 2012-02-12 ㄱㄱ10:46 Page 16

↑의대 동창회 신년 하례식을 마친후 동문들이 기념촬영했다.

↑의대 동창회 신년 하례식 일점 가운데 무도회 시간중 동문들이 무대에 나와서 Blues Racket Band 음악에 맞춰 부루스를 추고 있다.

남가주 동창회<의대·농생대>

의대 "동창회가 없어도 다들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동창회가 있으면 훨씬 더 재미있게 잘 살 수 있다…"

남가주 의대 동창회(회장 고용규·의대 73)가 동문과 가족 1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지난 1월 7일 LA 한인타운의 Oxford Palace Hotel에서 2011년 신년 하례식을 개최했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고용규 회장에 의해 개회 인사와 원로 인사 소개 및 재무 보고, 역대 회장 소개, 문대욱(의대 73졸) 미주 의대 동창회장 축사 등으로 이어졌다.

문대욱 회장은 이날 필라델피아에서 직접 참가해 동문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문 회장은 축사에 나서 "동창회가 없어도 다들 재미있게 살 수 있다. 그러나 동창회가 있으면 훨씬 더 재미있게 잘 살 수 있다" 고 운을 뗐다.

문 회장은 이어 "사랑하는 가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친구나 동기, 또는 동문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속담에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친구가 더 낫다' 는 말도 있는 것처럼 동창회를 통한 동문 교류에서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고용규 회장은 2011년도 동창회를 위해 공로가 많았던 동문들에 대한 치하와 함께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날 특별히 초청된 Blues Racket Band의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오후 7시부터 저녁 식사, 8시부터는 바리톤 Chae Hong Suk의 음악, 클래식 기타리스트 Gerardo Morales의 감미로운 선율이 분위기를 이끌었다.

Morales는 올드 팬들의 귀에 익은 '로망스'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등도 연주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특히 이날 Monica Ramos & Alexandra Rozo의 Persian Dance는 아주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주었다.

9시 반경부터는 우리 가요에 대한 가라오케 외에도 Blues Racket Band에 맞춰 본격적인 무도회로 빠져들어 한 겨울밤을 신나게 장식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감사패를 받은 동문들이다. 왼쪽부터 조형기(의대 92) 총무 ·김동훈(의대 77)·차민영(의대 82)·최광휘(의대 76)동문.

↑김은종 미주동창회장이 축하 인사를 하고 있다.

농생대 "20년간 회장자리를 노려왔는데 오늘에사 그 소원을 풀어…"

남가주 농생대 동창회 신년 하례식이 총 60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지난 1월 28일 LA의 레스토랑 '만리장성' 에서 열렸다.

이날 미주 동창회 김은종 회장과 지인수 동창회보 편집위원장이 함께 참석해 농생대 동창회 모임을 격려했다.

농생대 동창회 정병혁(농공학 70) 회장은 개회 인삿말을 통해 "다른 동창회 모임에 비해 우리 농생대만큼은 동문들의 단합된 힘으로 점점 활성화 되고 있어 초석을 다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지난 임기 동안 온 열성을 다해 준 임원들의 노고에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또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참석해 격려해주시는 김은종 미주 동창회장님과 지인수 편집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고 말했다.

김은종 미주 동창회장은 "실제로 와 보니 농생대 동창회가 소문보다 훨씬 활발하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80년대 이후의 젊은 학번들이 아주 많이 동참해 앞으로 더욱 활기를 띨 것" 이라고 치하했다.

김은종 회장은 이어 "농생대의 방석훈 고문과 김제영 감사가 미주 동창회를 적극 서포트 해주어 감사를 드린다" 고 고마와 했다.

이어 2011년 사업및 재무보고 뒤 최충희(농학 63) 전임 회장에 대한 감사패 증정과 모범 동문상 시상식을 가졌다.

또한 2012년 심임 회장단 선임에서는 이학진(농생 71) 동문이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학진 신임 회장은 "지난 20년간 회장 자리를 노려왔는데 오늘에사 소원을 풀었다" 고 조크해 좌중의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었다.

이 회장은 이어 "전임 회장이 그동안 너무 엄청나게 일을 잘 하시어 그 밑까지만 따라가도 톡 하겠다" 고 겸손해 했다.

이날 동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신임 회장이 무려 19년간이나 총무 또는 수석 부회장 일을 맡아 해와 '이미 준비된 회장' 이라고 평했다.***

↓이학진 신임회장(왼쪽)과 정병혁 회장이 인수인계하고 있다.

↓ '2011 모범 동문' 들이 시상식후 자리를 함께 했다. 왼쪽부터 방석훈(농축 55) 미주 동창회 고문, 양의겸(농가정 72)·류신화(농가정 61) 동문, 정병혁 회장, 지종근(농화학 56)·김정호(농경제 59)동문.

2가3~21가_Aug_Rev 2012-02-12 가가10:46 Page 17

단일민족에서 다문화 가정

김원호(약대 63)

둘째 딸 Mia는 결국 지난 여름 San Francisco시청에서 블루진 차림으로 Darren과 혼인식을 치렀다. 연전 아내와 나의 반대(?)를 무릅쓰고….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그러나 15분간 판사 앞에서 Ceremony를 마친후 German Hamburger Shop에서 사돈과 첫 만남은 나름대로 나 자신을 따뜻한 마음으로 돌릴 수 있었다.

딸의 시댁 Mr. Stan Lauter는 50년대 딸 UC Berkley에서 전기 공학을 전공하고 몇년 전까지 Circuit Design을 하다 은퇴후 요사이는 San Francisco 야구팀 Giants에 열광하는 나보다 7~8년 연배다.

작년 추수감사절 때 SF의 Darren의 아파트에서 Dinner를 같이 할 기회에 아내는 Darren이 찬장에서 접시들을 꺼내며 어머니 Judy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말에 아내는 내게 살짝 뭔가 품위있는 집안인 것 같다고 말했는데 그땐 그냥 흘리고 1년이 지났다.

Darren과는 4년 전 같은 직장에서 만나 Mammoth Mountain 가족여행에서 친해진 사이였다.

그 동안 iPad를 통해 Stan과 화상통화로 사돈 내외는 매우 친절하고 전문 지식인임에 마음이 놓였다.

3월 Wedding Reception을 근사한 호텔에서 치른다고 통고하고는 엄마와 웨딩 드레스를 보러 다니니 나는 그저 머리가 텅 비는 느낌이다. 요새는 결혼식과 피로연을 따로 하는 것인지, 나의 kindle에 The Namesake라는 책을 선물로 올려 놓아 주었다.

1973년 유학온 이래 인도인들에게는 좋은 인상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 실험실에서 만난 인도인들은 내 영어가 서툴어서였는지 자꾸 놀리려는 경향도 있었으며 어딘가 arrogant한 면이 돋보여서였을까.

어쨌든 저자 이름이 Jhumpa로 시작돼 인도인이 틀림없으려니 하고 읽어갔으나 기가 막힌 글귀에 어쩌면 내가 걸어온 30년의 미국생활을 그렇게도 가슴에 와 닿게 묘사할 수가 있단 말인가.

미국에서 자식낳아 기르며 평생 살아온 관념에서의 자식의 되어짐과 사회적 성공, 그리고 그들로부터의 공경-이것은 결국 허황한 꿈에 불과하다는 저자의 경험과 숨김없는 표현에 숙연해질 뿐이었다.

책의 저자가 Pulitzer상을 받은 사람이길래 그의 수상작인 'The Interpreter of Maladies' 를 딸에게 부탁했다.

목 디스크 염증으로 장시간 비행기 여행이 무리일 것 같았으나 가볍고 Font를 자유자재로 늘일 수 있으니 와인 마시며 읽기에 안성맞춤이다.

그래서 큰 딸 Jeanne이 대신 'The Help(가정부)' 라는 책을 올려 주었는데 문제는 이 책이 남부 Mississippi를 배경으로 흑인 가정부들의 60년대 애환에 관한 글이라 중고교 시절 배운 영문법에 어긋나는 글귀가 너무 많아 신경을 곤두세웠다.

예로 'They is…' , 'She are…,' 'I don't know nothing' 'I go like she tell_ me to.' 등의 남부 미국인들의 방언들이다.

하기야 언어라는 것이 서로 소통을 위한 것이지 꼭 문법에 맞추라는 법이 있을까 마는, 그래도 딸이 문장 첫 글자를 대문자로 안 쓰든지, looked at your mail 등 현 시제를 과거형으로 쓰든지 하면 나는 당장 전화하곤 한다.

큰 딸 시어머니 Mrs. Barbara Denton은 평생 교직생활로 Florida의 Jacksonville county에서의 교육위원을 줄곧 맡아 하시어, 내가 무슨 책을 읽던 간에 Friendly comments를 잘 해주시는 자상한 할머니다.

큰 사위 David도 좋은 가정교육을 받았음이 사귀고 결혼한 지난 10년간의 몸 가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안 사돈인 그녀와 전화할 때면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에 나오는 남부 발음이라 잘 못알아 듣는 영어실력에 무척이나 힘 겹다.

그래도 매달 한 번은 꼭 전화로 서로 노년의 안부를 물으며 독후감을 나누곤 한다.

지난 10년간은 서양 역사를 공부한답시고 Egypt·Greece·Rome·Middle Ages·Turkey·Israel·Spain·The Great Britain 책을 읽고 여행 후 다음과 같은 미국역사를 읽었다.

The Roots, American Democracy by Tocqueville(tape lecture), William Penn, Civil War, To Kill the Mocking Bird, The Grapes of Wrath, The Persistence of the Color Line 등으로 Barbara여사는 한결같이 그들에 대한 도움말을 주어 고맙게 생각한다.

매년 휴가 동안 지중해 연안국들을 섭렵할 수 있어 좋았는데, 마지막으로 Mesopotamia대신 Morocco에 가서 Islam을 믿어온 사람들에 관한 문화에 접해 보려고 여행을 떠났다.

나의 재활 의사는 Cervical myeloradiculopathy,Cervical spinal stenosis라는 무시무시한 진단을 내리며 무리한 움직임을 자제하라 했지만 기어코 떠났다.

큰 딸 내외와 식사하며 Morocco엘 다녀 오겠다니까 대뜸 사위가 "Of all the gins join, all in the town, all in the world, she walked into mine" 이라고 해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했다.

'Casablanca' 에서 Humphrey Bogart가 술에 취해 "많고 많은 술집 중 하필이면 내 café에 들어올 게 뭐냐" 고 탁자를 쾅 치며 "Play It Again, Sam" 하는 대사였다.

나는 사실 영화 랜 마지막 장면에서의 "It is the beginning of the good friendship" 이라고 했던 대사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Denton 집안은 내가 '기억' 하면 '나은' 해주니 서로 통해 좋고, 동서양의 피를 섞은 손녀 Abigail은 외할아버지의 찢어진 눈을 닮지 않은 왕눈이 예쁘다.

여행 전 'Lonely Planet' 가이드에 'Casablanca-Great movie, but dull city' 라 돼 있었고, 1942년 영화는 헐리웃 세트에서 촬영됐다고 쓰여 있었다.

그래도 Rick's Cafe에는 갔지만 얄팍한 상술의 레스트랑에서 피아노와 섹익스폰 연주는 있었는데 카지노는 없었다.

사실 이번 여행은 Sahara의 sand dunes를 카메라에 담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는 나이 70으로 여행도 여의치 않구나' 하며 Air France 좌석에 앉아 이 글을 썼다.

그럼 3월 결혼식 리셉션을 마치고, 뉴욕의 승우가 Denver의 딸 집에 다니러 가기 전 함께 Cambria, CA의 한길네 별장에서 다시 만나 옛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bokjee@msn.com>

피렌체의 '꽃의 성모' 대성당의 둥근 지붕 <1>

이연행(문리대 68)

르네상스 문화의 본거지인 피렌체 중심부에는 '꽃의 성모 대성당' 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대성당과 '산조반니 세례당' '지오토의 탑' 이 조화를 이루며 성당 광장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문화 유산 집합지로 만들었다.

1982년에 이곳은 '세계 문화유산' 으로 지정됐다. 유럽에서 4번째로 큰 성당이며, 길이 153m, 넓이 90m로 그 위에 군림하는 둥근 지붕(돔)은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보다 더 높게 54m로 건립됐다.

붉은 기와로 덮인 둥근 지붕은 1420~1436년 르네상스 건축을 시작,완성한 필리포 브루넬레스키(1377~1446)가 설계해 건축됐다. 이 작품은 역사상 벽돌로 쌓아 만든 둥근 지붕으로선 가장 큰 것이다.

원래 이 성당의 전신인 '산타 레파라타' 성당 초석위에 이미 35.5m높이로 존재했던 북 모양의 8각형 토대 위에 다시 400만 개 이상의 벽돌을 쌓아 이 둥근 지붕을 세웠다.

건축가는 벽돌 공사를 받쳐주는 어떤 목재나 쇠 버팀목이나 철판도 전혀 사용치 않고, 지붕을 안 쪽 것과 바깥쪽 것의 이중 구조로 고안했으며, 사이 공간을 폭 2m이상으로 비워 두어 이 무거운 지붕을 자체적으로 지탱하게 만들었다.

안쪽 지붕의 최대직경은 45.5m, 바깥쪽 지붕 반경은 54m다. 완성된 후 둥근 지붕의 높이는 지상에서 54m가 됐다. 무게는 무려 37,000 톤이다. 이 구조를 가볍게 하려고 그는 기발하고 혁신적인 기계(기중기, 수동 권양기, 도드래, 톱니가 달린 수레들, 안전한 발판 등)를 개발해, 매일 7톤 가량의 건축 자재를 들어 올려 운반했다.

이 위대한 창조력은 르네상스 건축의 기술적 개혁과 예술의 재창조를 이룩했다. 그는 이 높은 지붕을 건축하다가 1446년 순직했다.

원래 그는 이 지붕의 안쪽을 금 도금한 모자이크로 장식하려 계획했고, 지붕 꼭대기에 올리려고 계획한 조명대를 통해 들어오는 햇빛을 최대한으로 반사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당을 만들려고 고안했다.

이 조명대는 1461년에야 그곳에 안치됐다. 그러나 금 도금 모자이크 계획은 예산이 많이 들어 그가 죽자 흰 도료로 덮어 칠했다. 그후 1568년에야, 메디치가의 코지모 1세 대공이 작업을 조르지오 바자리(1511~1574)에게 맡겼다.

그는 미켈란젤로와 경쟁하려고 이 둥근 지붕의 내부를 <최후의 심판>의 주제로 해 거대한 벽화로 채웠다. 이 방대한 벽화들은 3,600 평방미터 면적에 그려졌고, 바자리 사후에는 페데레코 주카로가 계속해 1579년 완성했다. 이 역시 세계 최대 규모의 벽화다.

이 둥근 지붕의 건축과 내부 천정 벽화를 자세히 보려면 두 겹의 지붕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올라가는 463개 계단을 올라가 경사진 지붕의 둥근 구조를 체험, 그 독창적 설계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그 위의 조명대에 올라가면 피렌체의 도시 전체 경치를 볼 수 있다. 이 둥근 지붕의 건축은, 그가 고대 건축의 영감을 받아 당시 유행하던 후기 고딕 양식에 반대하면서, 원근법의 기초 위에 도시 공간을 이성적으로 재창조해 르네상스 건축을 창립시킨 대걸작이다.

알베르티는 "이 대성당의 둥근 지붕이 토스카나 지방의 모든 주민들을 그늘로 가려줄 수 있도록 방대하다" 고 격찬했다. 조르지오 바자리는 그의 저서 <예술가들의 생애>에서 "이 사람은 여러 세기 전부터 길을 잃은 건축을 개혁하기 위해 하늘이 우리에게 보냈다" 고 칭송했다.

그는 지금도 이 대성당 지하에 묻혀 있다.*** <계속>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os Angeles CA.90010

김일영 심장내과

김일영(의대 65)
323-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os Angeles CA 90004

세계보석

World Design Jewelry, Inc.
김광철(음대 59)
213-627-0547
650 S. Hill St. # E-8
Los Angeles, CA. 90014

2ㄱㄱ3~21ㄱ_Aug_Rev 2012-02-12 ㄱㄱ10:46 Page 18

이영묵 동문의 독일 여행기<1>

역사의 현장에서 당시를 돌아보다

이영묵(공대 59)
미주 동창회 전회장·작가

독일로 향하면서

시베리아의 눈 썰매는 '히스키' 라는 개가 끌고 간다.

그런데 이 히스키라는 개를 애완견으로 키우는 사람들에게 아주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 놈은 하루에 4킬로미터씩 꼭 달려야 한다.

아니면 폐가 잘못되는지 몸씨 괴로와 한다. 그래서 히스키를 매일 4킬로미터씩 달리기 운동을 시켜야 하니 이것이 예삿일은 아니다.

또 한국에는 소위 신 내림을 받은 무당이 있다. 이 무당들은 한 달에 최소한 한 두 번 굿판을 벌이지 않으면 시름 시름 앓는다.

글 하나 초고를 끝냈다. 이제 한 번 갈겨쓴 글이라 차분히 다시 읽어봐야 하겠는데 영 마음이 안 내키고 공연히 마음이 안정이 안되고 꼭 무엇을 잊어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이거 나도 히스키나 무당처럼 무슨 병이 든 것이 아냐? 어디 잠시 여행이라도 가야 하는 것 아냐" 하고 혼자 웅얼 거리는데 인터넷에 글이 떴다

한국의 4개 문인단체에서 공동으로 독일 인문학 기행을 떠나는데 참여하겠느냐는 글이었다.

인류 문화사에서 문학·음악·철학의 최고 정상을 창출해낸 나라 독일의 역사적 현장에서 괴테·실러·하이네·헤세·브레히트 등 문인, 헤겔·마르크스·니체 등 철학자, 베토벤·바흐 등 음악가, 그리고 전혜린·이미륵 등 한국 문인의 발 자취도 따라가 보자는 내용이었다.

'불감청(不敢請)이언정 고소원(固訴願)' 이라는 말을 이럴 때 써야 할건가. 나는 집 사람과 의논할 사이도 없이 "가겠소" 하고 회신을 보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프랑크프르트로 향하는 독일 비행기 루프트한자에 앉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이 루프트한자 비행기를 탈 때마다 보면 여승무원들은 항상 여자 축구, 또는 핸드볼 선수로 착각할 만큼 다른 나라 여승무원에 비하면 덩치가 무척 크다.

이 덩치 큰 승무원들을 쳐다보다가 내가 여행을 떠날 때 항상 하듯 '여행 중 무엇을 생각하며 볼 것인가' 하며 생각했던 숙제를 풀었다.

"그래 이번 독일 여행의 화두는 '독일인들은 누구인가?' 로 해야 겠어" 하면서 평소에 내가 의아해 하는 점을 스스로 정리해 보았다.

아마도 독일에 처음 나타난 민족은 켈트족인 것 같다. 다음이 동 고트족, 그리고 오늘의 독일인인 소위 게르만 족이 아닐까. 그런데 히틀러가 왜 아리안족이란 말을 끄집어 냈을까.

그리고 이 이성적인 독일인들이 어찌 히틀러의 유태인 종족 말살에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일본 작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 2천년 전 로마의 씨이저가 라인강 이남을 정복하고 강을 건너 북쪽으로 쳐들어 갔다가 몸집이 아주 큰 무리들이 숲 속에서 나타나 대패했다.

다시 그들의 장기인 다리를 놓고 큰 규모로 쳐들어 갔으나 다시 패해 그로부터 라인강 북쪽은 정벌을 포기했다.

그래서 라인강 접경에 식민지란 뜻의 벨른까지만 지배했다는데, 그렇다면 라인강 북쪽과 남쪽 독일인들은 다른 족속이 아닌지?

하기사 가끔 라인강 남쪽 독일인들을 북쪽 독일사람들이 '남쪽 돼지' 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말을 들은 것도 같고, 남쪽은 포도주를, 북쪽은 맥주를 즐겨 마신다고 하기도 하고….

어쩌 됐던 나야 인류학 전문가도 아니고 역사가도 아니고, 독일어도 못하고, 만나는 사람도 한정돼 있으니 무엇을 알 수 있겠나 싶지만 그래도 이런 숙제를 안고 하는 여행이 더 많은 호기심을 일으키니 즐거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승무원이 무슨 음료수를 마시겠느냐 물어 왔다.

독일산 맥주 "BECKS" 하면서 여승무원을 쳐다 보았다. "어, 어, 큰 덩치지만 오물 조물 이쁘게 생겼네."

나는 맥주 한 잔에 즐거운 기분으로 깊은 잠이 들었다.

베를린과 포츠담에서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속 뒷좌석에 혼자 앉아 입 속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성문 앞 우물 곁에 서 있는 보리수, 나는 그 그늘 아래 단꿈을 보았네. 가지에 희망의 말 새기어 놓고서, 기쁘나 슬플 때나 찾아온 나무 밑, 찾아온 나무 밑…."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중에 나오는 노래다.

프랑스 샹송, 이탈리아 칸초네, 폴튜갈의 파두같이 사람의 감성을 파고드는 것과 달리 어쩐지 독일 민요 리드는 남자 바리톤이 불러야 어울리고, 또 사람을 깊은 사색의 세계로 끌고 가는 음악 같다.

그러면서 그것은 내가 오늘 돌아다닌 곳에서 얻은 느낌이 자연히 독일 리드의 무드로 나를 이끈 것 같다. 다시 말해 나는 오늘 하루 베를린·포츠담 두 도시를 바쁘게 돌아다녔다.

베를린 중심거리 이름이 '보리수 밑(Unter den Lindenbaum strasse)' 이었는데 세계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낳은 대학 중 하나인 베를린 대학이 있었다. 이 대학은 1800년대 초 나폴레옹의 열기가 한창인 당시 파격적으로 헤겔을 대학 총장으로 영입했다.

그리고 헤겔의 제일성이 "이제 더이상 신학이 아니다, 철학이다" 라고 외쳤다는 그 사실이 나의 뇌리에서 벗어 나지 않았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오늘 다녔던 여러 곳에서 헤겔의 외침 이전의 과거나 이후의 역사와 유물들의 잔해 속에서 헤겔의 호소를 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베를린 장벽을 보았고 그 앞에 유태인 학살에 대한 사죄의 뜻으로 조성된 유태인 추모기념 조형물도 보았다.

또 베를린의 상징인 브란데부르크 문 위에 조각상이 나폴레옹에 의해 프랑스에 빼앗겼다가 철의 제상 비스마르크에 의해 되찾아 다시 걸려 있는 조각상도 보았다. 물론 히틀러가 독일인의 우수함을 보인다며 개최한 올림픽 경기장에서 잘 보전된 당시의 히틀러의 시대상인 여러 사진도 보았다.

그리고 하벨 강 건너 포츠담 회담이 열렸던 체칠리엔호프 궁전에서 동행했던 K교수님의 숨막혔던 그 당시의 회담 비사도 들었다.

베를린이 황폐화돼 회담 장소를 찾던 중 바로 강 건너에 있는 별거중인 독일 빌헬름 황태자가 설계하고 지어 출입구까지 따로 마련된 바로 그런 궁전의 구조가 회담 장소로 최적이었다는 것. 회담 중 영국의 처칠은 선거에서 져서 대표가 새 수상 에틀리로 바뀌고,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서거로 새로 트루만 대통령이 와서 노련한 소련 수상 스탈린의 독무대였으나, 회담 중 트루만이 원자폭탄 성공 소식을 듣고 소련의 일본참전 대가로 제시한 무리한 요구를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결과 중 하나가 한국의 독립보장이었다는 것 등이었다.

그리고 물론 바로 옆에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과 비교된다는 프리데릭 2세의 여름궁전인 상수시 궁전도 보았다.

나는 혼자 생각해본다. 1800년도 초 소용돌이와 돌개바람이 불아쳐 러시아와 독일에서는 왕정정치에 개혁이 일어나고 유럽의 민족주의를 고양시킨 바람의 주인공 나폴레옹과 같은 시대에 유럽 회오리의 중심 베를린의 헤겔이 신성 로마제국의 독일, 300개의 봉건 왕의 나라 독일에서 이제는 신이 아니라 철학사상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외침은 당연한 그 시대의 외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그의 관념적 철학이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변증법으로 발전되고, 그래서 20세기는 공산주의 열풍으로 전 세계가 열병에 걸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희극이랄까, 해프닝이랄까. 오전에 공산주의 박장시대인 동독 시절, 동독 정부 비호하에 공산주의 눈길로 드라마를 쓰던 작가 브레히트 기념관에 갔다가 '사천성의 선인' 이란 중국을 무대로 한 그의 드라마의 뜻을 제대로 아는지 의심스러운 중국 관광객들이 그저 사진 찍기에 열중하다 그들의 몰상식한 행동에 우리마저 중국인으로 보았는지 입장 인원이 제한돼 들어가보지도 못하기도 했다.

관광 가이드가 아마도 한국에서의 무상급식이 큰 이슈인 것을 아는 듯 '독일에서는 대학 등록금이 없다. 복지가 어떻다. 대신에 살인적인 세금이 어떻다' 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창 밖을 내다 보면서 혼자 웅얼거렸다.

"그래, 신학도 아니고 철학사상도 아니야. 이제 세계가 요구하는 것은 분배의 윤리야. 세금을 견어들이는 것부터 무상복지까지 모든 문제의 핵심은 분배의 기술이고, 철학이고, 윤리이고, 도덕이야. 헤겔의 시대는 이미 지났어." ***

<계속>

← '브란데부르크의 문' 정면의 독일군 동상 앞에서. 이 문의 꼭대기에 전쟁 역사의 비극을 알리는 조형물이 보인다.

→극작가 브레히트의 기념관으로 입장이 30분에 10명씩 극히 제한돼 있었다. ↓보리수 나무 거리에 있는 베를린 대학교 건물 모습이다. 역사적으로 노벨상 수상자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 중 하나로 유서깊은 대학이다.

2기3~21기_Aug_Rev 2012-02-12 기기 10:46 Page 19

고국 동문동정

수상

▶安秉直(경제57~62 모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시대정신 이사장)=12월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수여 제22회 시장경제대상(공로부문) 수상.

▶宋相現(법학59~63 국제형사재판소장)=12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 선정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朴容晟(경제59~65 두산중공업 이사회 의장·대한체육회장)=12월15일 뉴욕대(NYU) 한국동문 송년회서 자랑스런 NYU인상.

▶金光圭(독문60~64 한양대 명예교수·시인)=12월 9일 서울 동성고 100주년 기념관서 '시와 시학' 선정 시와 시학상 수상.

▶崔完秀(사학61~65 간송미술관 한국민족미술연구소 연구실장)=1월19일 일민문화재단·동아일보 수여 제10회 일민문화상.

▶尹友錫(광산63~67 진성티이씨 회장·공대동창회장)=12월 12일 무역의 날 금탑 산업훈장 수훈.

▶辛鉉雄(지리64~68 웅진재단 이사장·본회 부회장)=12월 15일 필리핀 정부로부터 제1회 필리핀 해외동포 지원 미디어상(라디오부문) 수상.

▶李麟載(지질64~72 동보항공 대표)=12월 22일 학원밀알회 주관 자랑스런 학원밀알인상.

▶朱剛秀(지질64~68 한국가스공사 사장)=12월 6일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서 해외자원개발 기여 공로로 대통령 표창.

▶曺秉昊(기계공학64~69 동양기전 회장)=12월 12일 무역의 날 기념식서 금탑 산업훈장.

▶張逵重(정치65~69 모교 정치학과 교수)=12월 8일 봉래출판문화재단서 제8회 봉래상.

▶閔相基(경제66~70 모교 경영학과 교수·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장)=12월6일 2011년 대한민국 금융대상 시상식서 공로상.

▶李榮善(경제66~70 한림대 총장)=12월 10일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 사우스플로리다대 수여 글로벌 리더십 어워드 수상.

▶崔洸(경영66~70 한국외대 교수)=12월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수여 제22회 시장경제대상.

▶朴在甲(의학67~73 모교 외과학교실 교수)=12월 8일 봉래출판문화재단 제8회 봉래상 수상.

▶鄭秀顯(건축69~73 현대건설 사장)=12월 8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건설의 날 기념식서 금탑 산업훈장.

▶金炳基(철학69~74 서울보증보험사장)=최근 서비스마케팅학회와 동아일보 공동 시상 2011년 국민사랑 고객감동브랜드대상.

▶黃健豪(경영70~74 한국금융투자협회장)=1월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 열린 제21회 다산금융상 시상식서 초대 공로상.

▶李秀滿(농공학71~78 SM엔터테인먼트 회장)=12월 8일 한국언론인연합회 2011년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국위선양부문).

▶金 爽(법학72~76 삼성증권 사장)=1월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 열린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서 제21회 다산금융상.

▶韓武榮(토목공학73~77 모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12월 5일 미 텍사스대 한국동문회로부터 올해의 자랑스러운 동문상.

▶方英柱(의학73~79 모교 내과학교실 교수)=11월 29일 대한암연구재단 金鎭福 암연구상.

▶盧貞憙(미생물75~79 모교 생명과학부 교수)=12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 수여 한국과학상(생명과학부문).

▶朴碩在(천문76~80 前한국천문연구원장)=12월 5일 미 텍사스대 한국동문회 올해의 자랑스러운 동문상.

▶張永赫(경영76~80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1월 4일 서울 롯데호텔서 열린 제21회 다산금융상 시상식에서 특별상.

▶權錫萬(심리77~81 모교 심리학과 교수)=12월 20일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생이 뽑은 2011년 베스트 강사상.

▶崔基雲(물리77~81 KAIST 교수)=12월 16일 교육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 수여 한국과학상.

▶徐榮俊(제약77~81 모교 약학과 교수)=12월 7일 한국과학기술정보원(KISTI) 수여 지식창조대상.

▶朴鍾逸(수학82~86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12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 수여 한국과학상.

▶金相憲(사법82~86 NHN 대표)=12월 8일 한국언론인연합회 2011년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金在美(기악84~88 건국대 교수·피아니스트)=12월 7일 한국예술평론가협회 특별예술가상.

▶李寅圭(제어계측86~90 고려대 교수)=12월 16일 한국통신학회 송년회서 4G LTE 이동통신 기술분야의 뛰어난 학술적 기여를 인정받아 해동학술대상.

▶이원식(정치87~91 제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12월 21일 매경미디어그룹·대검찰청 수여 제1회 매경 경제검사상.

▶薛均泰(행대원88~90 여수광양항만공사 감사위원장)=12월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기여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

▶權聖勳(전기공학94~98 모교 전기공학부 교수)=12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수여 젊은 과학자상.

▶張亨碩(일명 장훈·디자인99~03 영화감독)=11월 11일 영화 '고지전'으로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

▶李重根(AMP 5기 부영그룹 회장)=11월 28일 동티모르 대통령으로부터 외국인에 주는 최고훈장 '공훈훈장(Merit Medal)'.

▶金勝猷(AMP 19기 하나금융지주 회장·휴면예금관리재단 이사장)=12월 6일 2011년 대한민국 금융대상 시상식서 올해의 금융인상.

▶趙亮鎬(AMP 29기 한진그룹 회장·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12월 8일 한국언론인연합회 2011년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李康泰(AMP 54기 하나SK카드 사장)=1월 4일 서울 롯데호텔서 열린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서 제21회 다산금융상(증권부문).

▶李栄郁(AMP 54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12월 8일 한국언론인연합회 2011년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金允燮(AMP 59기 유한양행 대표)=12월 8일 한국언론인연합회 2011년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사회공헌부문).

▶文東信(ACAD 55기 전북 군산시장)=12월 13일 국가보훈처 2011년 보훈문화상.

▶趙鎭壽(ACPMP 1기 서한 대표)=12월 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 열린 주택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동탑 산업훈장.

▶趙泰成(ACPMP 5기 일신건영 사장)=12월 8일 서울 건설회관서 열린 주택건설의 날 기념식서 금탑 산업훈장.

인사

▶李信子(응용미술50~55 우덕문화원장·덕성여대 명예교수)=12월 8일 대한민국예술원 부회장에 선임.

▶金正鉉(불문51~56 前국제극예술협회 세계본부 회장·연극연출가)=12월 8일 임기 2년의 대한민국예술원 제35대 회장 선임.

▶金鳳九(조소58~63 이화여대 명예교수·미대동창회장)=11월 25일 사단법인 청주조각가협회 초대 이사장에 취임. 또 창원조각비엔날레 위원장에 선임.

▶文明浩(영문59~64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12월 12일 언론중재위원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위원에 선임.

▶都俊鎬(철학61~65 前조선일보 논설위원)=12월 1일 인터넷신문 뉴스파인더 대표에 취임.

▶崔弘健(행정62~66 前특허청장·동부그룹 상임고문)=12월 19일 동부그룹 제조·서비스분야 회장 겸 동부발전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

▶朴太淙(법학65~69 前대검찰청 감찰부장·변호사)=12월 1일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초대 회장에 위촉.

▶金圭復(법학69~73 前신용보증기금 이사장)=12월 5일 생명보험협회 임시총회서 제32대 회장에 선임.

▶全仁九(약학69~73 동덕여대 교수)=12월 22일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이사회서 초대 이사장에 선임.

▶尹汝奎(의학75졸 모교 외과학교실 교수·대한외과학회장)=12월1일 국립중앙의료원장 선임.

▶夫龍旭(법학70~74 前서울지법 부장판사·영산대 총장)=12월 6일 한국대학총장협회 제9대 회장에 선임.

▶朴時龍(농경제71~75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본보 논설위원)=12월 8일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겸 백상경제연구원장(부사장)에 선임.

▶徐永鉅(약학71~75 모교 제약학과 교수)=12월22일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이사회서 초대원장에 선임.

▶李惟仙(독문72~76 동덕여대 교수)=12월 3일 한국외대서 열린 한국독어독문학회 정기총회서 1년 임기의 회장 선출.

▶李南基(대학원72~76 前SBS콘텐츠허브 대표·SBS 부사장)=12월 5일 SBS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내정.

▶吳永鎬(화학공학72~80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12월 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에 임명.

▶鄭寄承(법학74~78 前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장·前스마트저축은행 사장)=12월 1일 솔로몬투자증권 부회장 선임.

▶朴基東(법학75~79 만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12월 12일 언론중재위원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위원장 선임.

▶吳英根(법학75~79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최근 한국형사법학회 총회서 회장에 선임.

▶李勝鍾(사회교육75~79 모교 행정대학원 교수)=12월 9일 한국행정학회 제47대 회장 취임.

▶金聲烈(교육75~82 前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경남대 교수)=12월 1일 경남대 부총장 취임.

▶朴潤遠(기계설계76~8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국제협력단장)=12월 5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9대 원장 선임.

▶沈敬震(화학공학76~80 영남대 교수·한국공학교육학회 부회장)=최근 한국청정기술학회 정기총회서 제10대 회장 선출.

▶朴大植(불문76~82 前전경련 국제본부장)=12월 14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에 임명.

▶李鎬鐵(불문77~81 인천대 사회과학대학원장)=최근 한국국제정치학회 정기총회서 제57대 회장 선임.

▶安玫鎬(무역77~81 前지식경제부 제1차관·단국대 석좌교수)=12월 15일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선임.

▶金鎭國(정치78~85 중앙일보 논설위원실장·본보 논설위원)=12월 30일 중앙일보 편집제작부문 국장 선임.

▶姜聲旭(경제80~84 前시스코시스템즈 아태지역 총괄 사장)=12월 12일 GE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선임.

▶李哲熙(체육교육85졸 JTBC 전략콘텐츠실장)=12월 2일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실 홍보기획비서관 내정.

▶金仁榮(신문80~86 前서울경제신문 국제부장·편집국장)=12월 6일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 선임.

▶李準雄(신문84~89 모교 언론정보학과 교수)=12월 12일 언론중재위원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위원 선임.

▶曺祐誠(사법87~91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12월 12일 언론중재위원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위원 선임.

▶李吉女(의학51~57 가천대 총장·본회 부회장)=12월 4~16일 미 샌프란시스코와 보스턴, 워싱턴 순회 미주지역 우수교수 영입 위한 현지설명회와 면접 실시.

행사

▶洪斗杓(사회55~61 前KBS 사장·JTBC 방송회장)=12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서 홍두표 방송 인생 50년 기념행사 실시.

▶張潤宇(응용미술56~62 성신여대 명예교수·시인)=최근 유승규문학상, 양천문학상, 순수문학상 등을 심사·시상하고 제1회 아시아일보 신춘문예 출품작 심사.

▶姜享鎭(천문기상58~62 前미주동창회 관악후원회 이사)=11월 30일 사회 윤리에 대한 아이디어 교환위해 블로그(www.hyongjinkang2010.com) 개설.

▶權五聖(국악59~63 한양대 명예교수·동북아음악연구소장)=11월 30일 서울 국립국악원 우면당서 한·일 고대음악 연주회 실시.

▶申秀貞(기악59~63 모교 음대 초빙교수·대한민국예술원 회원)=12월 30일 서울 서초동 모차르트홀서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주제로 송년음악회.

▶李炯均(정치59~64 경향신문사우회 회장·본회 부회장·본보 논설위원)=12월 6일 한국프레스센터서 경향인의 밤 행사.

▶南喆鉉(보대원62~64 대구한의대 명예교수·대한보건교육사회장)=11월 30일 고려대 보건과학대학서 보건교육사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金勳東(농학63~69 수원예총 회장)=11월 28일 '도시빛깔, 예술인이 만든다' 주제로 수원, 화성, 오산시 연합예술작품전.

▶金春玉(회화64~68 한국미술협회 수석부이사장·인하대 겸임교수)=12월16~2월15일까지 서울 삼성동 조선화랑서 작품전.

▶梁在鎬(치의학64~70 모교 치의학과 명예교수)=최근 서울 압구정동에 양재호치과의원(전화 512-2878) 개원.

▶徐東喜(응용미술66~70 건국대 교수)=12월 9~13일 건국대 공예관서 건국대 도자공예전공 창설 41주년 기념 교수 작품전.

▶金鑌愛(건축71~75 국회의원)=12월 7일 서울 도화동 가든호텔서 '김진애가 쓰는 인간의 조건(웅진지식하우스刊)' 출판기념회 개최.

▶李相甲(대학원76졸 前KBS 해설위원)=12월 9일 경남 고성군 마암면 석마리 위계마을서 독서실 겸 출향인들의 사랑방 '위계 아카데미' 개원식 및 '유교와 천주교의 만남' 특강.

▶金昌基(외교74~81 조선뉴스프레스 대표)=12월 7일 서울 白凡金九기념관서 '한국 보수주의가 나아갈 길' 주제로 토론회.

▶장선우(기악94~98 원주시향 수석)=1월 15일 서울 예술의 전당 서 타파넬, 라이네케, 졸리베 등의 작품 플루트 독주회.

▶이정현(성악97~03 포니캐년코리아 아티스트·테너)=최근 '천의 바람이 되어'를 타이틀곡으로 두 번째 앨범 'True' 발매.

▶金泰完(ACAD 44기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장)=12월 25일 성탄절을 맞아 충남 천안시 동남 목천성당을 방문 축사.***

삼가 명복을 빕니다

▶閔庚率(경제50~59 前광은리스 회장)=12월 21일(80세)

▶金昌河(정치52~56 前대한올림픽위원)=12월 23일(79세)

▶朱昌淳(법학54~58 前하원제약 대표)=12월 5일(76세)

▶梁鼎錫(법학57~61 前중앙일보 상무)=12월 22일(73세)

▶鄭貴鎬(법학58~63 前대법원 대법관)=12월 25일(72세)

▶吉昇欽(정치58~64 前국회의원)=12월 18일(74세)

▶李珍鎬(의학59~63 모교 명예교수)=12월 19일(74세)

▶姜逢春(농화학59~63 강브라더스 회장)=12월 23일(70세)

▶吳允晋(행대원63~65 前혜병전우회총재)=12월 5일(83세)

▶金權泰(경제65~72 민주통합당 고문)=12월 30일(64세)

▶金正勳(건축83~87 아키플렌종합건축 대표)=12월 6일(47세)

2ㄱㄱ 22~23ㄱ_Aug_Rev 2012-02-12 ㄱㄱ 10:51 Page 1

동창회비•관악후원금•광고및 업소록비•기타 후원금(*2011년 7월1일~2012년 2월 10일까지)

2011.7~2012.6월 동창회비

▶Alaska
윤제중(농대 55)

▶Arizona
김영철(공대 55)
박양세(약대 48)
유기석(문리 60)
지영환(의대 59)

▶California
<가정대>
김혜인(가정 69)
<간호대>
강정자(간호 61)
김정혜(간호 69)
나정자(간호 70)
박순자(간호 60)
신정수(간호 54)
심진숙(간호 68)
이영진(간호 77)
이종표(간호 69)
장인숙(간호 70)
최덕순(간호 59)
최영순(간호 69)
<공대>
강중경(공대 48)
김란영(공대 53)
김상엽(공대 57)
김희창(공대 57)
노명호(공대 61)
독교원(공대 65)
류대섭(공대 54)
문덕수(공대 73)
문인일(공대 51)
박원준(공대 53)
박홍근(공대 64)
손창순(공대 69)
손학식(공대 61)
신광제(공대 73)
양성문(공대 65)
윤용길(공대 55)
이근호(공대 46)
이문상(공대 62)
이범식(공대 61)
이정옥(공대 52)
이정화(공대 52)
이중희(공대 53)
장기창(공대 56)
전철송(공대 51)
정규남(공대 52)
정동구(공대 57)
정동석(공대 57)
정진수(공대 56)
조정시(공대 60)
조종웅(공대 45)
진성호(공대 65)
차기민(공대 85)
최용완(공대 57)
최왕옥(공대 69)
하기환(공대 66)
한의일(공대 62)
한효동(공대 58)
홍용화(공대 73)
홍정일(공대 59)
<농대>
김제영(농대 62)
박인수(농대 64)
방석훈(농대 55)
엄동혜(농대 74)
이방기(농대 59)
이상대(농대 80)
이정일(농대 57)
전범수(농대 71)
<문리대>
고석원(문리 50)
권영제(문리 57)
김순길(문리 61)
민병돈(문리 58)
박경화(문리 46)
박문규(문리 68)
서영석(문리 61)
양광주(문리 58)
이연행(문리 68)
이원익(문리 73)
이정옥(문리 71)
임천빈(문리 61)
장동석(문리 66)
조태준(문리 59)
최재윤(문리 54)
<미대>
강정훈(미대 56)
김경옥(미대 61)
김영배(미대 61)
박은숙(미대 62)
신희정(미대 73)
원미랑(미대 65)
신정연(미대 61)
이선화(미대 83)
임동규(미대 57)
<법대>
강동순(법대 59)
김생철(법대 54)
김석홍(법대 59)
김영한(법대 54)
김순길(법대 54)
김종표(법대 58)
김태율(법대 53)
문병하(법대 51)
이서희(법대 70)
이재권(법대 56)
<사대>
강신용(사대 73)
강신호(사대 49)
강천호(사대 58)
권오형(사대 61)
김영호(사대 56)
김회재(사대 66)
박영옥(사대 55)
박자경(사대 60)
박현숙(사대 54)
서동영(사대 60)
윤성희(사대 58)
이기재(사대 52)
이익삼(사대 58)
이점근(사대 60)
전낙관(사대 60)
전성옥(사대 52)
전성대(사대 60)
정태무(사대 44)
차종환(사대 54)
최복영(사대 56)
<상대>
강호석(상대 81)
권기상(경영 72)
김낙구(상대 67)
김병호(상대 57)
김윤수(상대 50)
김영서(상대 54)
김정민(상대 58)
김 훈(상대 74)
문병권(상대 47)
박의순(상대 53)
성주경(상대 68)
신대식(상대 60)
신영수(상대 70)
심상은(상대 54)
이승훈(상대 74)
임문빈(상대 58)
정원훈(상대 38)
지성호(상대 73)
지인수(상대 59)
최승륜(상대 53)
<수의대>
박종수(수의 58)
신동국(수의 76)
한상봉(수의 67)
<약대>
김진호(약대 64)
문정현(약대 54)
박제인(약대 60)
박혁서(약대 60)
배상규(약대 61)
신한경(약대 47)
유세미(약대 62)
윤정자(약대 63)
이길자(약대 63)
장진성(약대 66)
최무식(약대 66)
<음대>
권길상(음대 45)
김광은(음대 56)
김광철(음대 59)
김성혜(음대 71)
김정희(음대 56)
김창부(음대 55)
박희자(음대 68)
백옥자(음대 71)
안현증(음대 56)
양은석(음대 70)
유희자(음대 68)
이유근(음대 48)
이희순(음대 64)
임정란(음대 76)
최애인(음대 51)
<의대>
강영호(의대 59)
김기태(의대 52)
김영기(의대 58)
김익창(의대 49)
김지익(의대 45)
김현철(의대 57)
김홍서(의대 63)
나두칠(의대 66)
박병원(의대 49)
이동성(의대 51)
이상문(의대 54)
이준식(의대 61)
이홍표(의대 58)
이희영(의대)
임용오(의대 59)
정수만(의대 66)
조동준(의대 57)
황동하(의대 65)
<치대>
김제종(치대 62)
박태호(치대 66)
부영부(치대 72)
윤희성(치대 65)
정대연(치대 74)
한종철(치대 62)
<?>
조태균( )
<대학원>
이의덕(대원 71)

▶Chicago
강화영(문리 50)
김갑중(의대 57)
김계균(공대 60)
김윤범(의대 54)
김윤하(공대 66)
김일훈(의대 51)
김정주(문리 60)
고병철(법대 55)
구경회(의대 59)
권영재(의대 58)
노영일(의대 62)
문조훈(약대 62)
박용순(의대 53)
배영섭(의대 54)
서상현(의대 65)
소진문(치대 58)
송재현(의대 46)
신무식(치대 58)
안신훈(농대 61)
양선희(음대 59)
유태종(공대 50)
이덕수(문리 58)
이소희(의대 61)
이용락(공대 48)
이윤모(농대 57)
이춘우(치대 54)
임이섭(미대 54)
임현제(의대 59)
장기남(문리 62)
장시정(약대 58)
장윤일(공대 60)
조대현(공대 57)
조봉완(법대 53)
최애옥(간호 47)
최혜숙(의대 53)
한제은(의대 59)

▶Connecticut
김기훈(상대 52)

▶Colorado
이석호(공대 66)
표한승(치대 58)

▶Delaware
문대옥(의대 67)
배성호(의대 65)
안세현(의대 62)

▶Florida
박창익(농대 64)
신상제(수의 59)
안창현(의대 55)
전영자( )
정진복(의대 50)
제갈은(문리 59)
한기빈(공대 52)
한성수(의대 58)
황혁상(의대 55)

▶Georgia
김영서(상대 54)
김용건(문리 48)
김용자(사대 60)
김태형(의대 57)
박천기(법대 56)
안승덕(상대 51)
이명제(상대 54)
임수암(공대 62)
임한웅(공대 60)
정양수(의대 60)
정인태(의대 58)
최우백(공대 76)
최종진(의대 63)

▶Hawaii
김창원(공대)
유재호(문리 57)
윤상철(약대 47)

▶Indiana
임영신(의대 54)

▶Maryland
강창욱(의대 55)
권철수(의대 68)
김승희(법대 55)
김진은(사대 55)
김창호(법대 56)
남욱현(경영 84)
도상철(의대 63)
박명영(의대 66)
박한수(상대 81)
석균범(문리 61)
이유세(사대 72)
이제승(의대 55)
이준영(치대 74)
이태영(법대 60)
임종식( )
임필순(의대 54)
장윤희(사대 54)
전경철(공대 55)
홍영석(공대 58)

▶Massachu.
김제호(상대 56)
김청하(의대 57)
노인규(의대 52)
박제영(문리 48)
박종건(의대 56)
윤상래(수의 62)

▶Minnesota
권학주(치대 59)
김태환(의대 58)
남세훈(공대 67)
박인영(의대 69)
성욱진(치대 87)
왕규현(의대 56)
패트강( ) 60

▶Michigan
권순관(공대 60)
남성희(의대 58)
오상현(의대 65)
이상일(의대 54)
유효명(의대 60)
육태식(의대 61)
정 데(의대 57)
조문희(공대 56)
차대양(공대 55)
하계현(공대 64)

▶Missouri
김승희(법대 55)

▶Montana
박용호(의대 59)

▶Nevada
김영중(치대 66)
최영수( )

▶Nebraska
김명자(문리 62)

▶New Jersey
곽상준(약대 55)
김규화(상대 63)
김세환(공대 65)
김양호(의대 51)
김완주(의대 54)
김윤수(상대 50)
김정혜(간호 64)
김현수(공대 82)
김현우(공대 56)
김호점(법대 57)
김혼일(공대 60)
라준국(공대 47)
박성일(상대 58)
박성호(공대 57)
박진우(상대 77)
배명애(간호 49)
서정웅(약대 63)
선우문혜(약대59)
선우치민(약대48)
송기인(의대 60)
송용섭(농대 63)
신두식(의대 58)
신정택(약대 61)
연봉원(문리 61)
육순재(의대 63)
윤준식(법대 58)
이정림(상대 64)
이정태(공대 63)
이능석(의대 57)
이윤순(의대 52)
이유찬(의대 58)
이제원(법대 60)
이종환(법대 51)
정순기(문리 69)
조종현(수의 64)
최영태(문리 67)
최준희(의대 58)
최한선(공대 56)
허선행(의대 58)

▶New York
강영선(공대)
강충무(사대 60)
권영국(상대 60)
김동진(약대 56)
김문경(약대 61)
김석식(의대 58)
김세중(공대 50)
김정희(간호 69)
김종원(상대 58)
김진승(문리 53)
김현중(공대 63)
노용변(의대 49)
류영호(의대)
문길용(음대 45)
문소자(음대 60)
민발식(의대 60)
박수안(의대 59)
박순영(법대 56)
박찬명(약대 57)
박현성(약대 60)
방준제(의대 63)
서병선(음대 65)
서영숙(간호)
선종철(의대 57)
손경택(농대 57)
신의정(음대 55)
양거영(의대 49)
윤병하(농대 80)
윤봉균(사대 54)
윤영섭(의대 57)
이국진(사대 51)
이대영(문리 64)
이병무(법대 57)
이성구(약대 56)
이영애(치대 52)
이전구(농대 60)
이정은(의대 58)
이준행(공대 48)
이현호(공대 58)
이희자(간호 70)
임공세(의대 61)
임석태(보원 69)
조남천(사대 59)
조대영(공대 61)
조숙자(59)
조태환(상대 59)
진봉일(공대 50)
차국만(상대 56)
최석진(사대 54)
최영태(문리 67)
최한용(농대 58)
한승원( )
한영수(의대 61)
한용진(미대 56)
허병열(사대 42)
홍선경(의대 58)
홍승훈(공대 65)

▶N. Carolina
이석형(사대 56)
조동림(의대 52)
한광수(의대 57)
홍 훈(자연대)

▶Ohio
김한교(문리 47)
박 철(사대 55)
손기용(의대 55)
송영덕(의대 57)
송용제(의대 63)
이영웅(의대 56)
장극기(의대 64)
최인갑(공대 57)

▶Oklahoma
이경숙(가정 70)
이상강(의대 70)
차봉희(의대 51)

▶Oregon
김상만(음대 46)
김상순(상대 67)
김영자(간호)
성성모(사대 67)
이은설(문리 53)
정태훈(공대 68)
최동근(문리 50)

▶Philadelphia
강춘철( )
김상천( )
김영배(수의 59)
김영우(공대 55)
김용국(의대 58)
김윤옥(간호 76)
김재술(약대 58)
김태양(사대 61)
남영선(공대 79)
서중민(공대 64)
손재옥(가정 77)
송영두(의대 55)
신선자(사대 60)
심원섭(의대 67)
오연각(53)
오진석(치대 55)
윤정나(음대 57)
이규호(공대 55)
이기범(의대 55)
이만택(의대 52)
이병영(공대 48)
정영자(치대 63)
정용남(문리 60)
정정수(의대 55)
주기목(수의 68)

▶Texas
강 Particia
곽노환(문리 48)
김기준(공대 61)
김영옥(가정 74)
김영창(공대 64)
김의신(의대 60)
김정훈(공대 46)
김태호(공대 57)
김훈묵(사대 58)
박석규(간호 59)
박영규(사대 66)
양덕주(문리 66)
유길선(농대 73)
유세민(공대 59)
유 황(농대 68)
이광연(공대 60)
이길영(문리 59)
이규전(약대 60)
이영재(상대 58)
조진태(문리 57)
진기주(상대 60)
최관일(공대 54)
최성호(문리 58)
최용천(의대 53)
탁순덕(사대 57)

▶Utah
김인기(문리 58)
정석화(대원 66)

▶Virginia
김명철(공대 60)
곽근영(사대8회)
박경훈(상대 50)
박 엽(사대 80)
박용걸(약대 56)
박일영(문리 59)
박평일(농대 69)
백 순(법대 58)
서윤석(의대 62)
서휘열(의대 55)
안병협(공대 58)
유홍열(자연 74)
이영익(사대 61)
정기순(간호 67)
정원자(농대 62)
차광은(음대 64)
최규식(상대 65)
최준호(공대 60)

▶Wa. DC.
김동호(농대 58)
김성열(치대 61)
김영일(공대 53)
구본영(공대 65)
김윤국(문리 49)
박종수(공대 74)
박진수(의대 58)
박찬형(의대 56)
변종혜(법대 58)
서운석(의대 62)
양용관(수의 62)
이영묵(공대 59)
최준한(농대 58)
홍계인(음대 60)
홍영석(공대 58)

▶Wisconsin
장세곤(의대 57)

"모교 사랑은 동창회 참여로부터..."

*동창회비를 비롯한 후원금은 동창회 운영과 동창회보 발간의 근간이 됩니다.

*광고 디자인은 매월 초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nuaausa@yahoo.com
총무국장 백옥자
(818-225-8411)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후원금 신청서

성명:한글	영문	단과대학및 대학원:		입학연도:
집주소:	전주소			
업소 이름:	업소 주소			
전화:(B)	(H)	(C)	(Fax)	e-Mail:

후원금 신청내역(회계연도 2011년 7월 ~ 2012년 6월)

관악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	업소록 광고비	일반광고비	특별후원금
연$200 ☐			명함크기(3.5" x 2") $100 ☐	모교 발전기금 $ ☐
연$500 ☐	2011~2012년 $75 ☐	2011~2012년 $120 ☐	1/6면 (5" x 4.5") $200 ☐	지부 분담금 $ ☐
연$1,000 ☐		디자인 명함1/2 $200 ☐	1/3면 (10" x 4.5")$400 ☐	종신 이사비 $ 3,000 ☐
기타$ ☐		디자인명함크기$500 ☐	1/2면 (10" x 6.7")$600 ☐	
			전면 (10" x 13.5")$1000 ☐	

보내실 곳: 1225W. 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Fax: 310-515-7883 e-Mail: snuaausa@yahoo.com

지불방법(Check 또는 Card) Pay to order of 'SNUAAUSA'

Visa( ) Master( ) American Express( ) 기타( ) 전화 <310-515-7888>로( ) Check No.( )

Card No.: Security Code: Expire Date:

Cardholder's Name: Date:

Address Zip

2기기 22~23기_Aug_Rev 2012-02-12 기기 10:52 Page 2

2010.7~ 2011.6 동창회비

▶California
윤희성(치대 65)
이정근(사대 60)
임동규(미대 57)
최덕순(간호 59)
최왕욱(공대 69)
한상봉(수의 67)

▶Chicago
김영호(의대 71)
이소희(의대 61)
임현재(의대 59)

▶Georgia
김용건(문리 48)

▶New Jersey
김호겸(법대 57)
박성일(상대 58)

▶New York
이전구(농대60)
최석진(사대58)
한영수(의대61)

▶Ohio
최인갑(공대 57)

▶Texas
이광연(공대 60)

광고·업소록

듀오 1,500
월셔은행 1,000
나라은행 400
삼익악기 1,000
자연나라 2,400
Nexen Tire 1,000
마포주물럭 120
김광철(음대 59)105
김병연(공대 68)1000
김일영(의대 65)100
박문규(문리68)1000
이병준(상대 55)1200
최제현(수의66)500
김희원(수의73)250

▶California
강동순(법대 59)120
강신용(사대 73)120
강호석(상대 81)120
권기상(정대원72)100
김광철(음대 59)120
김병연(공대 68)120
김일영(의대 65)100
김제영(농대 62)120
나정자(간호 70)120
노명호(공대 61)200
독고원(공대 65)120
서동영(사대 60)120
서동영(사대 60)200
신대식(상대 60)120
염동해(농대 74)120
유희자(음대 68)120
이강원(인문 76)100
정수만(의대 66)120
정지선(상대 59)300
차기민(공대 85)120
최무식(약대 66)120
최제현(수의)500
한상봉(수의 67)150
한효동(공대 58)120
*용수산(업소) 200

▶Chicago
서상현(의대 65)120
이춘우(치대 54)120

▶Georgia
최우백(공대 76)120

▶Maryland
남욱현(경영 84)120
이준영(치대 74)120
이태영(법대 60)120

▶Minnesota
김태환(의대 58)120

▶Nevada
김영중(치대 66)120

▶New England
윤상래(수의62)100

▶New Jersey
연봉원(문리61)120
이경림(상대64)120
최영태(문리67)120

▶New York
김영중(치대66)120
윤병하(농대80)120
조대영(공대61)120
한영수(의대61)240

▶Ohio
최인갑(공대57)200

▶Philadelphia
서중민(공대 64)100
손제옥(가정 77)120
최종문(공대 61)120

관악후원금

▶Arizona
박양세(약대 48)200

▶California
강동순(법대 59)200
김영서(상대 54)200
김재종(치대 62)200
김정희(음대 55)200
김종표(법대 58)200
노명호(공대 61)1000
방석훈(농대 55)200
백옥자(음대 71)200
염동해(농대 74)1,000
이홍표(의대 58)200
임천빈(문리 61)200
정원훈(상대 38)200
지인수(상대 59)500
하기환(공대 66)200

▶Chicago
구경회(의대 59)200
김계균(공대 60)200
김윤범(의대 54)200
송순영(문리 52)1000
이용락(공대 48)500

▶Connecticut
김기훈(상대 52)200

▶Hawaii
김창원(공대)200

▶Maryland
강길종(약대 69)200
권철수(의대 68)200
남욱현(상대 84)120
이태영(법대 60)500
전경철(공대 55)200

▶Massachusetts
김제호(상대 56)200

▶Michigan
정 태(의대 57)425

▶Minnesota
김태환(의대 58)200
왕규현(의대 56)200

▶New Jergey
박태호(사회 76)500
백승원(의대 73)200
이윤순(의대 52)200
조종현(수의 64)200
허선행(의대 58)200

▶New York
권영국(상대 60)200
박찬명(약대 57)200
윤병하(농대 80)200
이만택(의대 52)200
이전구(농대 60)200
이준행(공대 48)1000
임석태(대) 200
최한용(농대 58)200

▶Oregon
김상순(상대 67)225
성성모(사대 67)200
최근영(법대 63)120

▶Philadelphia
손재옥(가정 77)200
이기범(의대 56)200
이만택(의대 52)200
정정수(의대 56)200
주기목(수의 68)200
최종문(공대 61)120
현재원(공대 60)200

▶Utah
정석화(대학원 66)200

▶Texas
김정훈(공대 46)200

▶Virginia
박용걸(약대 56)425
이영덕(사대 61)200

▶Washington
김동호(농대 58)200
김성열(치대 63)200
이영록(공대 59)200

종신이사비

이상강(의대 70) 3000

모교 발전기금

▶Arizona
지영환(의대 59)100

▶Georgia
정양수(의대60)1,000

▶New Jergey
박태호(사회 76)500

▶New York
한영수(의대 61)100

▶Maryland
김승희(법대 55)125

▶Virginia
최준호(공대 60)100

지부분담금

▶Arizona
김병수회장 500
지영환(의대59)100

▶Chicago 2400

▶Georgia 600

▶Philadelphia
주기목 회장 1,500

특별찬조금

▶Massachusetts
정병욱( )1,000

동문 여러 분께

미주 총동창회 운영과 동창회보 발간은 미주 동문 한 분 한 분께서 매년 정성껏 보내주시는 연 회비와 각종 후원금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교를 사랑하고 또한 미주 총동창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주 총동창회가 7월 Alaska Cruise를 실시합니다"

7월 8일부터 15일까지 7박 8일 동안 북빙양 유적지 관람
Cruise 여행 중 제21차 평의원 회의 및 특별강연도 가져

미주 총동창회(회장 김은종·상대 59)에서는 오는 7월 8일부터 15일까지 7박 8일 동안 'Alaska Cruise' 광광 여행을 실시합니다.

'2012 Seoul National University Alaska Cruise Association' 으로 명명된 이번 관광 여행은 LA지역 유수의 관광업체인 '아주관광' 과 함께 합니다.

특히 이번 Cruise 여행에서는 제11대 회장단에 의해 주관되는 제21차 평의원 회의 행사와 특별 강연도 같이 개최할 계획입니다.

크루즈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평의원 회의는 미주 총동창회 모임이 시작된 이후 사상 처음 실시되는 회의와 특별강연으로 오래 오래 기억에 남는 평의원 회의 행사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경유지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Cruise 경비>
▶Inside(IE $1,090/PP, IC$1,125/PP)
▶Oceanview(OK $1,250 PP, OC $1,350/PP)
▶Balcony(BD $1,800/PP, BA $1,850/PP)

<포함 사항>
▶Cruise ▶항만세 ▶Government Tax

<불포함 사항>
▶항공비 ▶선내 서비스비 ▶가이드 서비스비 ▶기항지 옵션 관광비 ▶공항/항구까지의 Transfer비 ▶선사 보험 ▶여행자 보험 ▶크루즈 선내에서의 식사 이외 식사 및 음료비 ▶기타 개인적인 비용

<지불방법>
▶A.Deposit= 계 약 당 시 $300.00/ PP. 3월 31일까지 예약 취소시 Deposit 전액 환불
▶B.잔금= 2012년 3월 31일까지 완불.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담당자)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관광(박영준 실장 213-388-4000 Fax.213-387-1006
▶미주 총동창회(백옥자 총무국장 818-225-8411)

2ㄱㄱ 24-32ㄱ_Layout 1 2012-02-12 ㄱㄱ 11:08 Page 1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818) 225-8411로

CA 남가주

건축/건설팅

HNK Teck, INC(하나건축 사무소)
한효동(공대 58) (213)422-9299
7518 1/2. Foothill Bl LA. CA. 91042

ACCU Construction, Inc.
엄동해(농대 74)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Santa Ana CA 92705

손학식 건축사무소
손학식(공대 61) (310) 394-0705
1424 4th St., #700 Santa Monica CA 90401

The Unipac Communities(M)
홍정일(공대 59) (818) 990-5080
3126-BE. Scotts View Orange CA 92869

JND Engineering
박진득(농대 67) (310) 394-0705
14700 Firestone Blvd. #122 La Mirada CA 90638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공인회계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9401 S. Vermont Ave. #C-201
Torrance, CA 90502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300,

Kim & Kang CPA's
(김경무 강정옥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Kim & Hwang CPA
김원철 (농대 70) (213) 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os Angeles, CA 90010

김광현 회계사무실
김광현 (상대 69) (213) 736-6789
3250 Wilshire Blvd. #1705
Los Angeles, CA 90010

최송규 공인회계사
최송규 (법대 62) (213) 381-0761
3660 Wilshire Blvd. #1010
Los Angeles, CA 90010

John J. Kim, CPA
김종관 (문리대 57) 213-385-2323
3200 Wilshire Blvd. South Tower #1310
Los Angeles,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 530-3630
12912 B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 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Kim & Youn CPA
김규정 (사대 77)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윤경민 공인회계사
* 윤경민(법대 55) (213) 388-6622
695 S. Vermont Ave. #1350
Los Angeles CA 90005

윤재호 공인회계사
* 윤재호(상대 76) (310) 325-0400
2740 Sepulveda Blvd.
Torrance CA 90505

Kim &. Youn A Prof.Corp
윤흥원 (사회대 81)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이용철 공인회계사
이용철 (경영대 92) 949-756-3500
2 Corporate Park, #202,
Irvine, CA 92606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os Angeles, CA 90010

장 준 공인회계사
장 준(인문대 85) Tel:(818) 772-2811
9020 Reseda Blvd., #104
Northridge CA 91324

*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 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CHA, STANLEY, CPA
차기민(공대 85) (213) 739-5700
3440 Wilshire Blvd. #807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H. Cho, C.P.A.
조홍준 (상대 65)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Daniel D. Moon CPA
문덕수 (공대 73) (213) 385-3155
3435 Wilshire Blvd. #965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Kwang Hee Nam CPA
남광희(인문) 213-487-1686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사대 73)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조승범 (David S. Cho CPA)
조승범 (경영대 74)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금융/재정설계

First Standard Bank
임봉기 (공대 63), 최영구 (상대 61)
James Hong (사대 73)
(213) 892-9999 10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Bank of America Home Loans
David H. Lee, CPA Mortgage
Loan Officer 이동하(경대원 82)
Tel (714)469-4584 (213)500-6458
1 Park Plaza Suite 250 Irvine CA 92614

리테일러

한남체인 (리테일러/상패)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he Westar Group 윤장희(상대 83)
(626) 400-7074 1613 Chelsea Road #119 San Marino CA 91108

S R Window, LLC. 류 원 (대학원 74)
(909) 984-7555 300 E. Main St. #A Ontario, CA 91761

Fashion World 박의순(상대 53)
(714)491-0706 1440 S. Anaheim Blvd.,#A-08 Anaheim CA 92805

HK Pegasus Inc. 이건영(문리대 71)
(310)676-1615 13007 Prairie Ave. Hawthorn CA 90014

Sammy Mart
라철삼(문리대 64) (213) 623-7617
934 S. Los Angeles St., #J L.A., CA 90015

리테일러/보석상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213) 627-0547
650 S. Hill St. #E8
Los Angeles, CA 90014

무역/수출입

무역/디자인
Goldentek Display America, Inc.
방명진(공대 73) (714) 871-5300
1221 North Patt St. Anaheim CA 92801

S.Y Shipping Corporation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김종표(법대 58) 562-467-5455
670 Oak Tree St. Fullerton CA 90701

Martial Arts Supply'
Kens Trading Co., Inc.
이근섭 (상대 56) (323) 871-8004
737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Green Zone International, Inc. 농산물
김한평 (치대 65) (714) 724-2580
2800 Keller Dr. #11 Tustin, CA 92782
greenzone6@yahoo.com

AMSCO Corp. 건축 자재
신영수 (상대 70) (562) 407-2121
12611 Hiddencreek Way #K
Cerritos, CA 90703

Pacific Group USA(태평양상사)
하상원 (공대학원 90) 310-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90220

Sierra Padre Mill Co.
임천빈(문리 61)◦ 706-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변호사/법률사무소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Anna K. Oh
* 신경란(음대 68) (916) 922-6987
P.O. Box 396 Carmichael CA 95609

옥유진 이민 특허 전문변호사
옥유진 (공대 64) (213) 365-2229
614 S. Van Ness Ave. Los Angeles, CA 90005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경희(인문대 83) (213) 385-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법률그룹
한태호(인문대 75) (213) 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os Angeles, CA 90010

"동문 업소록을 재정비합니다"

동창회보의 동문 업소록은 동문들의 비즈니스와 그 내용을 여러 동문들을 비롯한 독자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문들께서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제 11대 회장단으로 업무가 이전된 만큼 업소록 또한 새롭게 재정비됩니다. 이 업소록은 앞으로 회기연도별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업소록 게재는 최소 Box 사이즈 $120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액수에 따라 Box크기도 달라집니다. 동문들께서는 23면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후원금 신청서' 를 참조하시어 원하시는 사이즈 별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는 snuaausa@yahoo.com 또 는 (전 화)818-225-8411
(Fax)310-515-7883 1225 W.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2기기 24-32기_Layout 1 2012-02-12 기기 11:08 Page 2

Panarex, Inc.
김원탁(공대 65) 818-768-5161
11672 Tuxford St. Sun Valley, CA 91352

부동산/중개업

Keller Williams Realty
유경상(농대 58)◦ (661) 538-2800
1401 W. Rancho Vista Blvd Palmdale CA 93551

James Lee 부동산
이종묘(간호대 69)◦ (714) 635-4011
1203 S. Euclid St. Anaheim CA 92802

JJ Park Enterprises
박종수(수의대 58)◦ (310) 209-0216
10956 Strathmore Dr Los Angeles CA 90024

Ace Realty
성민경(공대 65) ◦ (562) 924-1411
18012 Pioneer Blvd., #A Artesia CA 90701

Citi Property Management Co.
하기환(공대 66) ◦ (213) 381-3610
3240 Wilshire Blvd. #570 Los Angeles CA 90010

서비스/염색가공

Town Gate Cleaner, Inc.
현재복 (인문대 82) (951) 656-9780
12625 Frederik St. # I-6
Moreno Valley, CA 92553

K-One Termite, Inc
* 심영섭(문리대 65) (213) 280-7999
1157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Jade Textile, Inc.
임예건(공대 69) (213) 744-0808
3315 S. Broadway 2nd Fl. Los Angeles CA 90007

비영리법인

한미 당뇨협회
* 김용일(보건대학원 65) (213) 386-7933
266 S. Harvard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청운장학회
오재인(치대 33) ◦ (626) 284-9782
1420 Abajo Dr.Monterey Park CA 91754

한미교육연구원
차종환(사대 54) ◦ (213) 380-7155
975 S. Vermont Ave., #104 Los Angeles CA 90006

교육/상담

Hiza Yoo Korean Dance Institute
유희자 국악 무용 연구소
818-456-8022
18531 Gresham St.#204 Northridge CA 91324

AXA Advisors LLC
재정설계 상담
정임현(간호대 72)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이춘배 교육상담센터
이춘배 (사대 60) (323) 734-1210
3460 W. Olympic Blvd. #H
Los Angeles, CA 90019

AXA Advisors LLC
원영배 (미대 74) 213-368-5707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보험/재정계획

SKC Insurance Services
성주경 (상대 68) (213) 385-9550
1543 W. Olympic Blvd. #312
Los Angeles, CA 90015

서비스 /자동차

Vermont Automobile
권기상(경영대학원 72) (323) 757-1316
85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4

Eastman Security 이의덕(신문대 70)
(626) 336-0055 15358 Valley Bl. City of Landustry CA 91746

서비스/실내디자인 D-Space Interior Design 김옥권(미대 76) ◦ (949) 273-8034
69 Bluejay, Irvine CA 92604

서비스/족보 Craft Net
권대원(경영대학원 59)◦ (213) 386-5809
3600 wilshire Blvd., #1130 Los Angeles CA 90010

수의사 / 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수의대 66) 909-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Humane Animal Hospital
* 이병국(수의대 64) (909) 829-8840
9257 Sierra Ave Fontana CA 92335

Olympic Pet Clinic
권태삼(수의대 73) 213-384-7202
3201 W. Olympic Blvd, LA. CA90006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대 76)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amily Veterinary Hospital
전호선(수의대 67) (559) 226-6777
2745 W. Shaw #116 Fresno CA 93711

Angels Care Animal Hospital
하병래(수의대 67) (909) 982-2888
659 E. 15th St., Suite#Q Upland CA 91786

AnimAidPet Hospital
승원표(수의대 73) (714) 897-2429
7080 Katella Ave. Stanton CA 90680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 64) (951) 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VCA Mission Ani. Hosp.
박찬식(수의대 73) (626) 289-3643
9356 Bigby St Downey CA 90241

Roswin Pet Hospital
김 영(수의대 63) (818) 718-2112
20021 Roscoe Blvd Canoga Park CA 91306

West Highland Dog & Cat Hospital
이경수(수의대 73) (909) 887-5021
1795 West Highland San Bernardino CA 92411

정인덕동물병원
정인덕(보건대학원 64) (714)840-4658
5904 Warner Ave. #B Huntington Beach CA 92649

Hills Animal Hospital
손수웅(수의대 60) 626-919-7661
1414 Azusa Ave. #B-13 W.Covina CA 91791

건축 컨설팅

Lee & Ro, Inc.
노명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Ace Lawn Mower & Saw
이근원(공대 67) ◦ (909) 735-9980
E. Grand Blvd./ona CA 9279

엔지니어링/환경공학
Maurison Environmental Consulting
이중희(공대 50)◦ (310) 763-0055
P.O.Box 18254 Long Beach CA 90006

예술/조각

Chaing's Art Studio
장정용(미대 64) (213) 687-3748
816 E. 4th Place Los Angeles CA 90013

운송/유통/통관/원재료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A.P.W.
자동차 부품
*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Exxel Express
정복근 (사대 69) (310) 515-5758550
E. Carson Plaza Dr. #217
Carson, CA 90746

호텔/숙박업

Best Western Friday Harbor Suite
장동석(문리대 66) (360) 378-3601
680 Spring St. Friday Harbor WA 98250

은행

Wilshire State Bank P.C.O.
유재환(상대 67) 213-387-3200
3200 Wilshire Bl. LA. CA. 90010

BBCN (Bank)
Alvin Kang 213-639-1700
3731 Wilshire Bl. Ste.1000 LA.CA.90010

Commonwealth Business Bank
조맨 김 (323) 988-3005
5055 Wilshire Blvd., #840 Los Angeles CA 90036

Hanmi Bank
행장 유재승 (213) 382-2200
이사 박창규(약대 59) (323) 734-7385
3660 Wilshire Bl. Ph-A Los Angeles CA 90010

의료/약국

나성약국
임낙균(약대 64)`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os Angeles, CA 90006

Ararat Plaza Pharmacy
이명일(약대 72) (818) 637-2177
1248 S. Glendale Ave., #M Glendale CA 91205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 (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Western Pharmacy
유창호(약대 74) (323) 465-3112
1075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Sunrise Pharmacy (213) 413-6800
1931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26

PCH Medical Pharmacy
(562) 591-7655
306 E. Pacific Coast HWY #101 Long Beach CA 90806

RX Plus Pharmacy
임동호(약대 55) ◦ (714) 776-1020
1425 E. Lincoln Ave. #B Anaheim CA 92805

Village Pharmacy
박제인(약대 60)◦ (213) 749-2346
3137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7

의료/치과

가나다 치과
김대우(치대 62) (310) 329-7600
15435 S WESTERN AVE #101
Gardena CA 90249

O Jin Kwon, DDS
* 권오진(치대 61) (310) 532-5232
15632 S NORMANDIE AVE Gardena CA 90247

진호주 치과그룹
* 진호주 (213) 385-1325
401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배윤범 치과
배윤범(치대 69) (213) 385-1233
3540 Wilshire Blvd STE 212 Los Angeles CA 90010

오흥조 치과
** 오흥조(치대 56) (213) 382-8205
286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California Family Dental Center
* 이영송(치대 65) (323) 266-1500
4080 E.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3

김재종 치과
김재종(치대 62)◦ (623) 681-0800
17476 E Colima Rowland heights CA 91748

오길평 치과
오길평(치대 63)◦ (323) 734-2285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16

우원섭 치과
우원섭(치대 65)◦ (213) 487-3622
3566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I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이효경 치과
이효경(치대 63) ◦ (562) 924-3334
17334 Pioneer Bl. Artesia CA 90701

I Jin Bak, DDS
박일진(치대 54)◦ (818) 349-3136
8949 Reseda Blvd #116 Northridge CA 91324

이병무 보철치과
이병무(치대 70) .(213)383-7500
3663 W. 6th St. #204 Los Angeles CA 90020

조규석 치과
조규석(치대 65) ◦ (818) 368-6635
17029 Chatsworth St. # 201 Granada Hills CA

2ㄱㄱ 24-32ㄱ_Layout 1 2012-02-12 ㄱㄱ 11:08 Page 3

Your Choi's Dental
최종환(치대 70) (323) 585-3332
3131 E. Florence Ave Huntington Park CA 90255

신우천 치과
신우천(치대 67) (310) 530-5455
23632 Crenshaw Bl Torrance CA 90505

권중건 교정치과
권중건(치대 65) (818) 952-6362
3700 Wilshire Blvd. suit 400 LA CA 90010

성락호 치과
성락호(치대 65) (310)518-3522
414 W. Pacific Coast Hwy Wilmington CA 90744

임희영 치과
임희영(치대 69) (562)866-6914
9951 Artesia Pl. Bellflower CA 90706

Jo's Family Dentistry
조상하(치대 64) (562) 927-1112
8209 Eastern Ave Bell Gardens CA 90201

정종훈 치과
정종훈(치대 75) (323) 268-8308
2111 1/2 Cesar Chavez Ave. #1 Los Angeles CA

윤희성 치과
윤희성(치대 65) (661) 327-8619
2115 D. St. Bakersfield CA 93301

송은섭 치과
송은섭(치대 70)` (818) 957-7878
2777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박재호 치과
박재호(치대 54) (213) 487-5961
3123 W Olympic Blvd.Los Angeles CA 90006

신무식 치과
신무식(치대 59) (714)540-5151
2112 S. Bristol St. Santa Ana CA. 92704

김인권 치과
김인권(치대 72) (213) 739-8641
3663 W. 6th St.#300 Los Angeles CA 90020

늘웃는 치과
이범모(치대 74) (323) 734-3710
966 S. Western Ave.#207 Los Angeles CA 90006

이강훈 치과
이강훈(치대 67) (626) 912-8557
1661 S. Nogales St. #C Rowland Heights CA

박태호 치과
박태호(치대 66) (323)265-1505
5017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2

의료/내과/전문의

권영재 소아과
* 권영재(의대 57) (562) 435-4777
1040 Elm Ave. #200 Long Beach CA 90813

김일영 심장내과
* 김일영(의대 65)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os Angeles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김승현(의대 75)◦ (213) 385-5500
3663 W. 6th St. #206 Los Angeles CA 90020

이미정 소아과
이미정(의대 57)◦ (213) 252-0036
520 S.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20

차민영(의대 76).....(213)480-7770
520S. Virgil Ave.#103 LA. CA. 90006

South Bay Cancer Center
나정자(간호 70)
310-978-4970 310-543-5327
14608 Hawthorne Bl. LA. CA 90260

최동욱 산부인과
최동욱(의대 59)◦ (909) 620-1976
1818 N. Orange Grove #203 Pomona CA 91767

Sang H. Park, M.D.
박상효(의대 65)◦ (323) 730-0200
945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06

이원택 신경정신과
이원택(의대 65)◦ (562) 591-7377
1745 Pacific Ave. Long Beach CA 90813

전희택 신경외과
전희택(의대 58)◦ (818) 347-3287
2301 Sherman Place West Hills CA 91307

Inland Ear, Head & Neck Clinic
정태건(농대 66)◦ (961) 352-7920
3975 Jackson St. #202 Riverside CA 92503

New Wilshire Medical Clinic
최영수(의대 47)◦ (213) 739-2226
313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Anapa Pain Clinic
조형기(의대 86)◦ (213) 386-8275
3545 Wilshire Blvd. suite#109 Los Angeles CA 90010

Yoongho Lhim, M.D.
임용오(의대 57)◦ (909) 425-8624
2916 Roadrunner Ct. Highland CA 92346

S.J. Whang,MD,Medical Group
황석우(의대 53)
1325 Via Del Reg. South Pasasena CA 91030

Kaiser Permanente
나두섭(의대 66) (909)427-5408
9985 Sierra Ave. Fontana CA 92335

AHNN, WILLIAM, M.D
안병일(의대 63)◦ (909) 882-1231
399 E. Highland Ave. #314 San Bernadino CA 92404

Kaiser Permanente Medical Group
김홍서(의대 63)◦ (818) 375-2869
13652 Cantara St. Panorama City CA 91402

제조업/제생업

New Pride Corp. (타이어)
김은종(상대 59) (310) 631-7000
2757 E. Del Amo Blvd., Rancho Dominguez CA 90221

Chemical & Dyestuff Supply
Westco Spectra Color, Inc.
최복영(사대 56) (310) 903-5515
12238 Hawkins St. Santa Fe springs CA 90670

Dale Tiffany, Inc.(전기전등)
정예현(상대 63) (714) 739-2700
1483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데이코우주개발사
정재훈(공대 64) (714) 952-2240
10874 Hope St. Cypress CA 90630

제조업/냉장고-상업용
서치원(공대 69) (310) 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RF Connection, Inc. (통신장비)
이동휘(공대 63) (562) 941-0565
9925 Painter Ave., Suite#J Whittier CA 90605

Silla America, Inc. (모터개발)
이기준(법대 54) (323) 232-1233
1600 E. 25th St. Los Angeles CA 90011

Nature & Health, Inc.
송준섭(농대 65) (714)257-1800
451 W. Lambert Rd., #200 Brea CA 92821

라 카나다 한인교회
득고 원(공대 65)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성서장로교회
* 나민주(음대 65) (310) 515-7207
1655 Marine Ave. Gardena CA 90247

로스페리스감리교회
임대수 (음대 60) 818-500-3915
600 Balboa Ave. Glendale, CA 91206

뉴 살렘 한마음 교회
김수영(사대 57)◦ (213) 387-0930
2954 W. 8th. #101. Los Angeles. CA 90005

사랑의 빛 선교교회
윤종호(문리대 61)◦ (562) 402-7104
2801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7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
허영진(문리대 61)◦ (714) 534-1135
12612 Buaro St. Garden Grove CA 92640

유니온 교회
박부강(사대 64)◦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유니온 교회
이정근(사대 60)◦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West Cavina CA 91791

토렌스조은교회
김철호(사대 73)◦ (310) 370-5500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컴퓨터/컨설팅

Computer Pro
윤재우 (공대 83) (310) 626-6391
22521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5

Keyoung Art Advisory LLC
강민성(미대 98) (415) 750-0533
268 Bush St., #3949 Sanfrancisco CA 94104

통역/번역

Better Comm 통역
정연진 (인문대 81) (213) 387-1166
3700 Wilshire Blvd. #490 Los Angeles, CA 90010

안방의원/한약

이봉수 한방병원
이봉수 (수의대 66) (213) 381-6090
958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06

이형교 한의원
이형교 (교육대학원 66) (714) 995-2733
7731 Katella Ave. #B Stanton, CA 90680

Sierra Padre Mill Co. (건축자재생산)
임천빈(문리대 61) (760) 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식품/음식점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A. CA 90006

장수장 Jang Soo Restaurant
310-327-9292
1404 W. Redondo Beach Blvd.
Gardena CA 90247

마포 주물럭 Mapo Korean BBQ
Restaurant (310)679-3622
14909 S. Crenshaw Blvd. #102 Gardena CA. 90249

한국트로피
박양종(문리대 61) 213-380-2775
3475 W. 8th. St. #200 Los Angeles CA. 90005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북창동순두부 213-382-6660
이태로(법56) 1413 S. Vermont Ave. L.A. CA 90006

샌디에이고

Sierra Padre Mill Co.(건축자재 생산)
임천빈(문리대 61) 760-753-6905
555.N. Vulcan Ave. Encinitas CA

부동산

June Lee 부동산
이춘화 (84졸업) (858) 525-3222
4228 Convoy St. San Diego CA 92111

수의사 /동물병원

College Pet Clinic
강동원(수의대 75) (760) 631-2080
475 College Bl. #8 Oceanside, CA 92057

북 가주

상담/ 컨설팅

두리하나 결혼정보
5년 전 설립해 현재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재혼자 데이트중. 서울대 등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정지선(상대 58)
(510)224-0760 2910 Telegraph Ave.Ste.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수의사 /동물병원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3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Hillview Pet Hospital
김희원 (수의대 73) (510) 525-4571
666 San Pablo Ave. Albany, CA 94706

의료/전문의/내과/안의원

박희례 한의원
임희례(간호대 73) (831) 818-2959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산부인과
황동하(의대 65)◦ (415) 831-6068
402 8th Ave. #201 San Francisco CA 94118

Samuel Choi, DDS
최상집(치대 63)◦ (916) 482-2897
3046 Watt Ave. Sacramento CA 95821

2ㄱㄱ 24-32ㄱ_Layout 1 2012-02-12 ㄱㄱ 11:08 Page 4

MD,VA 워싱턴DC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경영대 84)301-279-6969.
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공인회계사

Lee Kyu Sup, CPA
이규섭(상대 68)
(703) 642-2900
4330 Evergreen Ln. Suite H
Annandale, VA 23936

Choi & Co., CPA
* 최 환(공대 68) (302) 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mington DE 19808

자산관리

IPM Woath Management
이태영(법대 60) (410) 777-8081 ex158
1430 Joh Ave. Suite M Baltimore MD 21227

변호사 / 법률사무소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박상근(법대 75) (703) 941-7395
7617 Little River Tnpk #930

BSKB, LLP 특허법률사무소
진금섭(약대 57 (703) 205-8064
8110 Gatehouse Rd. Fall church VA 22042

부동산 / 중개업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비영리 재단

동일시대연구소
이종률(문리 60) (703) 304-2129
5116 Donovan Dr. #407 Alexandria VA 22304

엔지니어링 / 영공

Drivetech, Inc.
* 엄달용(공대 69)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수의사 / 동물병원 / 요식업

한의생(수의 60)ㅇ (703) 751-3707
2923 Blue Holly Ln Oak Hill VA 20171

우래옥
백행남(문리 60)ㅇ (703) 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의료 / 내과 / 전문의 / 치과

권철수 신경정신과
권철수(의대 68) (410) 235-2880
711 W. 40 St. Routunda Office Building #406
Baltimore, MD 21211

도상철내과
도상철(의대 63) (410) 760-6623
1600 Crain Highway #206 Glen Burnie MD 21061

Belair Pedatric Center
임필순(의대 56)ㅇ (410) 939-2811
419 S. Union Ave. Havre De Grace MD 21078

Potomac Hospital/Fairfax Hospital
강준희(의대 71)ㅇ (301) 949-1345
2300 Opitz Blvd. Woodbridge VA 22191

이종국 종합의료원
이종국(의대 52)ㅇ (703) 256-6204
4605A, Pinecrest Office park Dr. Alexandria VA 22312

이준영 치과
이준영(치대 74) (301) 220-2828
6201 Greenbelt Rd.Ste.U-10 Berwyn Heights,MD

여행업

Hans World Travel
한인섭 (문리 55)
7601 Little River Tnpk, Suite-102
Annandale VA 22003
Tel 703-658-1717: Fax 703-658-3110
Toll Free 800-963-4267
hanstravel.joanne@gmail.com

혜보라 여행사
김 국(농대 75)ㅇ (703) 242-0580
2915 Hunter Mill Rd. #8 Oakton VA 22123

FL 플로리다

리태일러 / 주얼리

First Choice Guild, Inc.
* 김철호 (미대 67)
8200 NW 27the Ave., Malami, FL 33056

GA 조지아

FOB Synthesis Inc.
최우백(공대 76) (404) 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Good Nutrition
김만복(문리 72),김용주 (법대 73),
문종현 (사회대 84) (770) 992-2363
463 Beaver Ruim Rd. Norcross GA 30071

금융

Metro City Bank
백낙영 (상대 61) (770) 455-4989
5441 Buford Hwy #109 Doraville, GA 30340

리태일러/자동차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678-473-4731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IVYTown.com (온라인교육)
조덕성(공대 71) (678) 397-1025
3415 Duluth Park Ln. Duluth GA 30096

IL-IN 시카고

건축 / 설계

Arbor Engineers & Planners
* 정승규(공대 60) (773) 285-8808
49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공인회계사

심상구 공인회계사
심상구(상대 63) (618) 257-1788
1600 Lebanon Ave. Belleville IL 62221

언 론

Korean World Times
오 성 (법대 76) 201-840-8043
605 Broad Ave. #206 Ridgefield IL

이홍미 변호사
이홍미(약대 63)ㅇ (773) 427-8870
4001 W. Devon Ave. #204 Chicago IL 60646

Law Office of Ben H. Kim & Associates
김봉현(법대 55)ㅇ (773) 583-3558
3403 W. Lawrence #201 Chicago IL 60625

부동산 / 중개업 / 재정상담

로얄 부동산
엄무광(문리 61) (847) 877-7075
5020 Crain St. Skokie IL 60077

Green Realty, Inc.
김정렬(수의 71) (847) 729-5850
1701 E. Lake Ave, #442 Glenview IL 60025

IT Reality, Inc.
송성준(법대 76) (847) 398-3100
832 E. Rand Rd. #22 Mt. Prospect IL 60056

CLK Enterprises
김동희(공대 66) (630) 207-2515
24 Conmcord Drive Oak Brook IL 60523

샐리 정 공인재정상담가
김현숙(간호 79) (847) 301-1777
79 Scully Dr. Schaumburg IL 60193

수의사 / 동물병원

Munster Animal Hospital
한원중(수의 83)ㅇ (219) 924-0101
10421 Calumet Ave. Munster IN 46321

Lincolnwood Ani. Hosp.
곽영로(수의 72)ㅇ (847) 677-7070
6431 N. Cicero Ave. Lincolnwood IL 60712

의료 / 내외과 / 전문의 / 치과

Elgin Cardiac Sugery, S.C.
임현재(의대 59) (847) 695-1620
조중행(의대 63) (847) 695-1620
915 Center St. #1003 Elgin IL 60120

Suh Sang Hun, MDPC
서상헌(의대 65) (773) 522-2010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Rosa H. Choi, MD, SC (소아과)
최혜숙(의대 53)ㅇ (708) 383-3010
6853 W. North Ave. Oak Park IL 60302

Dixie Hospital
노영일(의대 62) (708) 709-6030
333 Dixie Highway Chicago

* 이춘우 치과
이춘우(치대 54) (847) 390-7474
9101 Greenwood Ave, Niles, IL 60714

심재희 치과
이재희(치대 68) (618) 239-6151
1600 Lebanon Ave. #104 Belleville, IL 62221

서승환 치과
서승환(치대 57)ㅇ (847) 518-0228
8118 N. Milwaukee Niles IL 60714

이철주 치과
이철주(치대 61)ㅇ (847) 675-0882
64 Old Richard Shopping Center,#426 Skokie IL 60077

약원 / 문화약원

RFUMS /Chicago Medical School
김윤범(의대 54) 847-578-8847
3333Green Bay Rd. N. Chicago IL 60064

The Intercultural Institute of Illinois
황성택(문리 55)ㅇ (847) 508-1190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065

MA 뉴잉글랜드

수의사 / 동물병원

Twin City Animal Hospital
윤상래(수의 62) (978) 343-3049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wksbury Animal Hospital
김문소(수의 61) (978) 851-3636
1098 Main St. Tewksbury MA 01876

JK Realty Trust 김제호(상대 56) ㅇ(617)
277-7455 POBox 696 Brookville MA 02446

강길원 산부인과
강길원(의대 59)ㅇ (978) 957-4660
505 Nashua Rd. Dracut MA 01826

MD 메릴랜드

이준영 치과(치대 74)
301-926-9692. 8931 Shady Grove Court
Gaithersburg MD. 20877

Fairway AssetCorporation
남욱현(상대 84) 301-279-6969
414 Hungerford Dr.#203 Rockville MD. 20850

MI 미시간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
진숙영(문리 70)ㅇ (248) 356-4488
27075 W. Nine Mile Rd Southfield MI 48034

의료 / 내과 / 전문의

Kent Pathology Lab
김계윤(의대 57)ㅇ (616) 458-1255
2650 Horizon Dr. SE #Bㅇ Grand Rapids MI 49546

Genesys Hurley Cancer Institute
오동환(의대 65)ㅇ (810) 762-8490
302 Kensington Ave. Flint MI 48503

이한중 심장내과
이한중(의대 59)ㅇ (248) 569-0122
22255 Greenfield Rd. #231 Southfield MI 48075

윤효윤 심장내과 C. A. V. A
윤효윤(의대 63)ㅇ (248) 844-1010
645 Barclay Circle Rochester Hills MI 48307

St. Joseph Mercy Hosp.
이영모(의대 53)ㅇ (248) 858-3490
44405 Woodward Ave. Pontiac MI 48341

Chul Chang, MD
장 철(의대 65)ㅇ (269) 427-5304
P.O.Box 250 Bangor MI 49013

MN 미네소타

HDM Inc.
김영화(공대 65)ㅇ (651) 730-6205
570 Hale Ave ST. Paul MN 55128

NJ-NY 뉴욕/뉴저지

건강

!! 암, 에이즈 !! 한인수(사대 73)영생건강 718-762-0812 세계 최초 Plant stem cell(또별) 분리 배양 성공. 2010년 11월 Nature지 논문 발표.

건축 / 설계

김세환 건축설계
김세환(공대 65) (732) 549-1616
3851 Park Ave. Edison NJ 08820

남김박 설계사무소
남신우(공대 61) (609) 392-7005
1530 Brunswick Ave.Lauren Ceville NJ 08648

공인회계사

Edward CM Kang CPA
강충무(사대 60) (212) 594-9034
Empire State Building # 820
New York NY 10018

세원 회계법인
* 김명승(상대 65) (212) 213-4151
1270 Broadway Suite# 606
New York NY 10001

Sung N. Pak, CPA
박성남 (사대 76) 212-760-2338
481 8th Ave. #1549 New York, NY 10001

2ㄱㄱ 24-32ㄱ_Layout 1 2012-02-12 ㄱㄱ 11:08 Page 5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Kim Lee & Co.
김용배 (인문대 77) (212) 563-2727
1261 Broadway #302 New York, NY 10001

서울공인회계사무소
문주한 (경대원 88) 718-962-4444
150-13 Northern Blvd 2nd Fl
Flushing, NY 11354

Wha Sam Kong, CPA
* 공화삼(농대 64) (201) 868-2255
6135 Bergenline Ave. #2 W.

Young Sik OH, CPA
오영식(법대 72) (201) 569-1177
333 Sylvan Ave. #216
Englewood Cliffs, NJ 07632

Kevin Lee & Co.
이근수(상대 64) (212) 686-0115
1201 Broadway #707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l New York NY 10016

금융 / 재정설계

Genko Financial
유호근(문리 71) ◦ (201) 945-4692
21 Grand Ave., #605 Palisades Park NJ 07650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SK Group, Inc.
우상영 (상대 55) (973) 815-1234
55 Central Ave. Passaic, NJ 07055

E Mart Corp.
김학수(상대 65)◦ (718) 720-4498
195 P.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02

Sun Furniture
정은영(음대 59)◦ (718) 224-3737
250-21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Windsor Wine Shop
이규태(법대 57)◦ (212) 779-4422
3rd Ave. New York NY 10016

Broadway Jewelry
곽선섭(공대 61)◦ (973) 345-1745
72 Broadway Paterson NJ 07505

Caps Unlimited
천병수(공대 70) : (718)293-7711
17 East 170th St. Bronx◦ NY 10452

광고/기획 디자인

Symbol Power Inc.
김원영(미대 81) (212) 967-0874
990 6th Ave. #6M New York NY 10018

변호사

연봉원 변호사
* 연봉원(문리 61) (212) 779-1828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조대영 변호사
* 조대영(공대 61) (212) 779-7770
445 5th Ave., Suite 9E New York NY 10016

Joon Hee Park, Attorney at Law
박준희(인문대 86) (212)813-8383
1001 Avenue of the Americas.#1105
New York, NY 10018

Deloitte & Touch
김영휘(법대 80) (212) 436-2587
2 World Financial Center New York NY 10281

최형무 변호사 법률사무소
최형무(법대 69) (718) 463-3500
36-09 Main St., Suite #208 Flushing NY 11354

Weinstein, LLP
김용학 (법대 70) (212) 616-3007
420 Lexington Ave. #2620 New York, NY 10170

서장석 변호사
서장석(사회과학대 91) (201) 363-0010
460 Bergen Blvd., #206 Palisades Park NJ 07650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718) 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Sang Chin Yom, Attorney at law
염상진(상대 77) (201) 461-1616
1580 Lemoine Ave.,#9 Fort Lee NJ 07024

무역 / 종합상사

Evershine Mt. Corp. (의류)
김우영(상대 60)
350 5th Ave. New York NY 10118

EAC Trading, Inc (전기 상품).
윤정옥(약대 50) ◦ (516) 466-5678
98 Cutter Mill Rd. Great Neck NY 11021

부동산/중개업

Century 21 Infinity Realty
* 이재원(법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 이재덕(법대 60) (201) 944-4949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다니엘게일 소더비 부동산
이영숙(간호 56)◦ (516) 484-1800
1400 Old Northern Blvd. Roslyn NY 11576

Re/max Diamond
류재은(미대 71) ◦ (732) 742-1919
1199 Amboy Ave. Edison NJ 08837

뉴스타 부동산
송응길(신대원 69)◦ (718) 224-3308
214-22, 42nd Ave. Bayside NY 11361

Ji Jay Corp. (부동산/관리)
최한용(농대 58)◦ (718) 268-2553
23 Briarfield Dr. Lake Success NY 11020

바이오테크놀로지

XenoBiotic Lab. Inc.
김혜숙(생활과학대 73)◦ (609) 779-2295
107 Morgan Lane Plainsboro NJ 08536

IBECONS Int'l
김제철(공대 58)◦ (718) 650-0486
1228 Forest Ave. Staten Island NY 10310

서비스

KARLAN Service, Inc.
김영배(공대 78) (973) 278-1015
189 East 7th St.
Paterson, NJ 07524

여행업

아리랑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정영희 (사대 62) (212) 563-3351 *유럽 전지역 투어 (서유럽, 동유럽 러시아 등) 및 성지순례 *전 지역 크루즈 투어 *고국 방문 및 아시아 투어 *전 지역 AIR TICKET 800-223-6225 / Fax : (212)239-0989 16 W 32nd ST, Suite 1106, NewYork, NY 10001 arirangtravel@hotmail.com

세탁소 / 클리너 / 현금정책

C & K Dry Cleaner
김진자(간호 60)◦ (914) 698-1919
965 Mamaroneck Ave. Mamaroneck NY 10543

Kim's Dutch Cleaners, Inc
김규화(상대 63) ◦ (856) 596-5992
750 Route 70, Eveshamplaza Mailton NJ 08003

Alco Lock & Safe, Inc.
정인식(상대 58) ◦ (212) 867-3380
405 Lexington Ave. Crysler Building Arcade NY

수의사 / 스포츠

Ridgefield Park 동물병원
김기택(수의 81)◦ (201) 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보고타 골프센터
김난기(사대 63)◦ (201) 489-2400
30 Cross St. Bogota NJ 07603

언론 / 인쇄

Radio Korea NY
권영대(공대 69)◦ (718) 358-9300
136-56 39th Ave #4F Flushing NY 11354

Korea Broadcasting System
황상무(사회과학대 83) ◦ (212) 246-7709
1776 Broadway #2005 New York NY 10019

B & P Group, Inc.
이석구(문리 69)◦ (201) 585-5063
138 W.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예술 / 갤러리

Nahrah Culture Center
김광현(미대 57)◦ (201) 944-1047
1605 Center Ave. Fort Lee NJ 07024

유통 / 라이팅

Lighting Craftsman, Inc.
조재석(문리 68) Tel: (212)966-4474
173 Bowery New York NY 10002

Penn-Craft Corp (건강기능 식품)
손완배(농대 70) (201) 947-6644
340 Tremont Ave. Fort Lee NJ 07024

운송 / 유통 / 통관

Kiss Products, Inc.
김광호(문리 62) 516-625-929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중앙장의사
(Central Funeral Home)
하혜민(의대 99) 201-945-2009
809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718-353-2424
136-25 41St.Ave.Flushing NY 11355
www.centralfuneral.com

의료 / 내외과 / 전문의

Young S. Hahn, M.D.
한영수 안과(의대 61) (718) 478-3344
40-23 74th St. Elmhurst NY 11373

Ob & Gynecology
손광호(의대 59) ◦ (718) 963-8533
760 Broadway Brooklyn NY 11206

Young Il Lee, M.D.P.A.
이영일(의대 60) ◦ (732) 574-0055
2263 St. George Ave. Rahway NJ 07065

Dai M. Lim, M.D.P.C.
임대묵(의대 58)◦ (518) 393-7434
1370 Union St. Schenectady NY 12308

방병기 일반내과
방병기(의대 67) ◦ (609) 799-4644
9 Schalks Crossing Rd., # 720 Plainsboro NJ 08536

방준재 내과
방준재(의대 64)◦ (718) 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732) 744-9090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Hudson Pain Management
강창홍(의대 67)◦ (201) 894-4786
464 Hudson Terrace #G102 Englewood Cliffs NJ◦ 07632

레이저 전문의료원
최태식(의대 69) (718)281-1100
222-15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마취의원
추재욱(의대 57)◦ (201) 569-6541
136 Hollywood Ave. Englewood Cliff NJ 07632

김연철 산부인과
김연철(의대 66) ◦ (718) 353-5990
41-76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박범렬 소아과
박범열(의대 75)◦ (718) 899-4600
40-10 70th St. #1st Fl. Woodside NY 11377

의료/안과
Bernards Professional Center
김한중(의대 56) 소아과 (908) 766-4660
150 N. Finley Ave. Basking Ridge NJ 07920

2ㄱㄱ 24-32ㄱ_Layout 1 2012-02-12 ㄱㄱ 11:08 Page 6

정진우 비뇨기과
*정진우(의대 66) (718) 461-1515
147-01 41st Ave. Flushing NY 11355

St. James Hospital
김욱현(의대 59) (973) 465-2677
155 Jefferson St. Ndwark NJ 07105

Lee Allergy
이혁엽(의대 73)◦ (201) 568-3800
385 Sylvan Ave. #21 Englewood Cliffs NJ 07632

Thoracic and Cardiovasc. Asso. Inc.
김자억(의대 69)◦ (304) 343-7576
2335 Chesterfield Ave. #300 Charleston WV 25304

Personal Touch PM & R. LLC.
조규웅(의대 60)◦ (516) 783-1577
250 Pettit Ave. #1 Bellmore NY 11710

곽승용 정신과
곽승용(의대 56)◦ (718) 273-8052
2144 Richmond Ave.Staten Island NY 10314

Rockland Psychiatric Center
선종칠(의대 57)◦ (845) 680-8214
140 Old Orangeburg Road Orangeburg NY 10962

Stan S. Choi, M.D.
최승웅(의대 61)◦ (908) 769-1020
34-36 Progress St. #B5 Edison NJ 08820

의료 / 치과

신영수 치과
신영수(치대 64) (914) 997-0812
185 Mapple Ave., #122 White Plains NY 10601

이종의 치과
이종의(치대 62) (212) 947-4742
25W. 32St. #601 New York NY 10001

이성길 치과
이성길(치대 56) (718) 461-2725
136-30 Maple Ave. #1H Flushing NY 11355

계동휘 치과
계동휘(치대 67) (718) 898-9049
49-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박희병 치과
박희병(치대 63) (718) 939-1144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조황환 치과
조황환(치대 65) (718) 463-0253
136-25 Maple Ave. #206 Flushing NY 11355

원도수 치과
원도수(치대 61) (718) 979-7277
2799 Hylan Blvd. Staten Island NY 10306

송재현 치과
송재현(치대 68) (718)494-3940
75-21 Broadway 2FL. Elmhurst NY 11354

의료 / 약국

Merrick Chemists
이승우(약대 63)◦ (516) 378-0119
131 Merrick Ave.Merrick NY 11566

Ray Drug
최구진(약대 54)◦ (212) 795-1240
4061 Broadway New York NY 10032

Raysol Drugs, Inc.
김문경(약대 61)◦ (212) 348-2117
1870 Lexington Ave. New York NY 10029

Kopald's Pharmacy
김성현(약대 56)◦ (718) 823-3443
700 Morris Park Ave. Bronx NY 10462

Sun Pharmacy
김영진(약대 67) (212)695-4232
29 W. 32nd St. New York NY 10001

Smile Drug
성기로(약대 57) (718)358-3800
150-1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제약

Vital Health Tech. Inc.
서정웅(약대 70) (973) 574-8090
409 Devonshire Dr. Franklin Lake NJ 07417

제조업

Jeffrey Allen Corp
이기영(농대 70) (201) 863-5160
Metroway Suite 2 Secacus NJ 07074

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량(상대 61) (201) 440-8500
245 Moonachie Rd MoonachieNJ 07074

컴퓨터 / 컨설팅

Hanco Service LLC
조한수(사대 72) (201) 967-5769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종교 / 교회

든든한교회
김상근 (문리 71) (718) 463-8181
141-33 33rd Ave. Flushing, NY 11354

학원

Cooper Art
손숭덕(미대 77) (201) 886-7275
2134 N. Hudson St.
Fort Lee NJ 07024

중앙일보문화센터 (학원/댄스교습)
진봉일(공대 50)◦ (718) 461-2324
43-27 36th St. L.I.C. NY 11101

조달훈 박사 수학교실
조달훈(사대 66)◦ (718) 224-6284
32-25 Bell Blvd. Bayside NY 11361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보건대학원 61) (718) 353-6207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정영희 한의원
정영희(간호대 72) (201) 658-8505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NV 네바다

의료 / 치과병원

Best Care Dental
김영중(치대 66) 702-384-2828 702-480-7115
5205S.Durango Dr.#103 Las Vegas NV 89113
www.bestcaredentallv.com

OH 오하이오

Charles Sung 수의병원
성홍환(수의 75) (330) 534-8383
47 Hall Ave. Hubbard OH 44425

의료 / 내과 / 전문의

Yong D. Song M.D. Inc. (산부인과)
송용덕(의대 57) (740) 353-3196
1611 27th St. Portsmouth OH 45662

Lancater Radiation
조철영(의대 68) (614) 566-9506
401 North Ewing St.Lancaster OH 43130

OK 아클랜드

Deaconess Hospital
민경환(의대 56) 405-604-4035
5501 North Portland Ave. Oklahoma City OK 73112

Muskogee Pulmonary Clinic
이상강(의대 72) 918-687-3994
615 South 32nD. St. Muskogee OK 74

OR 오레곤

* 엘림 한인교회
최근녕(법대 63) 503-231-1625
6161 SE Stark St. Portland OR 97215

PA 필라델피아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215) 412-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생활과대 77)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공인회계사

Choi & Co., CPA
*최환(공대 68) 302-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mington DE

금융 / 보험 /리테일

More Bank 정홍택(상대 61) 267-251-7260
900 Valley Rd., #C-201 Elkins Park PA 19027

* New York Life
윤경숙(문리 59) (215)441-3240
101 Gibraltar RD. Ste. 150 Horsham PA

비영리법인 / 리테일 / 정학

Jay & CO
제갈은(문리 59) (215) 887-2337
4009 Crescent Ave. Lafayette Hill PA 19444

수의사 / 동물병원

CHEL-WAYNE Animal Hosp.
민홍식 (수의 60) (215) 843-5932
5524 Wayne Ave. Philadelphia PA 19144

Community Animal Hospital
지홍민 (수의 61) (215) 635-2700
8023 Old York Rd. Elkins Park PA 19027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묵 (수의 68)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youngbaekang@yahoo.com
강영배(수의 59) (610) 623-8560
708 Baltimore Ave. EastLandsdowne PA 19050

Community Animal Hospital
이병인(수의 69) (215) 635-2700
8023 Old York Rd. Elkins Park PA 19027

연회장 / 요식업

August Moon 연회장
류용진 (상대 59) 610-277-4008
300 E. Main St. Norristown PA

의료 / 내과 / 전문의

Yung Doo Song M.D.
송영두(의대 56) (215) 342-2015
6816 Caster Ave. Philadelphia PA 19149

Albert Einstein Medi
김영남 (의대 61) (215) 456-6507
5401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141

Neurology Associates
배성호 (의대 65) (302) 731-3017
774 Christina Rd.# 20 Wilmington DE 19713

Riddle Memorial Hospital
심완섭 (의대 67) (610) 891-3321
1068 W. Baltimore Pike Media PA 19063

Hack R. Chung MD. MPH
정학량(약대 56) (215) 641-5323
7170 Layfayette Ave. Fort Washington PA 19034

문대욱 정형외과
문대욱(의대 67) (302) 731-0600
83 Omega Dr. Newark DE. 19713

의료 / 약국

쌍동이 약국
허창기 (약대 67) (215)-455-2411
5304 N. 5Th St. Philadelphia PA 19120

의료 / 치과

김종규 치과
김종규 (치대 63) (215) 745 - 6123
6725 Caster Ave. Philadelphia PA 19149

김국간 치과
김국간 (치대 64) (215) 224 -2110
5438 N. Lawrence St. Philadelphia

TX 유스틴

수의사 / 동물병원

싱코 동물병원
이윤성 (수의 81) (281) 395-4700
24210 Westheimer Pkwy # 300
Katy TX 77494

의료 / 내과 / 전문의

이진현 산부인과
이진현(의대 69) (281) 343-5455
7333 N. Freeway Ste. 260 Houston TX 77076

검수/ 시험/ 컨설팅

선박검수
American Bureau of Shipping
유한창(공대 69) (281)877-6473
16855 Northchase Dr. Houston TX 77060

원유개발 컨설팅
Lamie Petrolium Inc.
명인성(공대 50) (832)722-0075
3131 Rosemary Park Ln. Houston TX 77082

장의사

한국 장의사
조시호(문리 59) (281) 530-5400
13430 Bellaire Blvd. Houston TX 77083

2ㄱㄱ 24-32ㄱ_Layout 1 2012-02-12 ㄱㄱ 11:08 Page 7

UT 유타

서비스/여행사 Asia World Travel&Tour
박종수(공대 60) (801)263-8866
232 E. 3900 South #4 Salt Lake City UT 84107

WA 워싱턴주

서비스 / 기기

The Boeing Company
김재훈(공대 72) (425)373-2858
PO 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의료 / 치과 / 클리닉

김성열 치과 Daniel S. Kim, DDS
김성열(치대 61) (360)254-5900
217SE 136th Ave.Suit#101 Vancouver WA 98684

의료 / 클리닉

Painless Clinic
신창범(법대 73) 425-228-7446
947 Powel Ave. SW Suite 104 Renton WA 98057

컴퓨터 / 소프트웨어

Soft Tech International Inc
유성열(공대 72) (425)643-9662
13916 SE 47th St. Bellevue WA 98006

WI 위스콘신

Gundersen Clinic
윤준(의대 61) 608-782-7300
1836 South Ave. La Crosse WI 54601

"웃으며 삽시다!"

수술하기 쉬운 사람

외과의사 4명이 카페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대화를 하고 있었다.

첫 번째 의사가 수술하기 쉬운 사람에 대해 말을 꺼냈다.

"나는 도서관 직원들이 가장 쉬운 것 같아. 그 사람들 뱃속의 장기들은 가나다 순으로 정열돼 있거든."

그러자 두 번째 의사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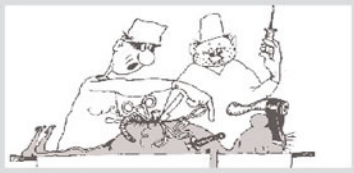
"난 회계사가 제일 쉬운 것 같아. 그 사람들 내장들은 전부 다 일련번호가 매겨 있어서 말이야."

세 번째 의사도 칵테일을 한 잔 쭉 마시더니 이렇게 말했다.

"난 전기 기술자가 제일 쉽더라, 그 사람들 혈관은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잖아."

세 의사의 얘기를 듣고 있던 네 번째 의사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을 받았다.

"난 정치인들이 제일 쉽더라고. 그 사람들은 골이 비어 있고, 뼈대도 없는 데다가 쓸개도 없고, 소갈머리, 배알머리도 하나도 없지. 심지어 안면도 없잖아. 그런데 속을 확 뒤집어 헤쳐 놓으면 '돈' 만 나와~~"



각 지부 회장단

남가주	회장	서치원(공대 69입) 310-719-5422 charliesuh49@gmail.com
	차기회장	
북가주	회장	이장우(문리 72입) 408-891-0200 president@snuaa-nc.org
	차기회장	
뉴욕	회장	김영만(상대 59입) 201-401-8977 ymkim730@gmail.com
	차기회장	김창수(약대 64입) 212-760-1768 changsookimcpa@hotmail.com
뉴잉글랜드	회장	김병국(공대 71입) 781-367-5993 byunggkim@yahoo.com
	차기회장	
달라스	회장	이 준(공대 73입) 469-235-6196 junelee41@yahoo.com
	차기회장	윤수경(음대 77입) 972-248-8811
록키 마운틴스	회장	표한승(치대 58입) 303-822-9370 303-755-1168 drpyo@aol.com
	차기회장	
미네소타	회장	정은옥(간호대 75입)763-773-7227 sallykim75@yahoo.com
	차기회장	
샌디에고	회장	서정용(공대 81입) 858-740-4843 cysuh727@gmail.com
	차기회장	
시카고	회장	김영호(의대 71) 708-922-0748 fhcmcUSA@gmail.com
	차기회장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문리대) yhoh@ratheon.com
	차기회장	
알래스카	회장	윤제중(농대 55입) 907-223-0887 bolt043@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현(농대 58입) 907-561-0818
오레곤	회장	이석진(공대 89입) 503-317-5625 seokjin@gmail.com
	차기회장	
오하이오	회장	송원길(의대 58입) 614-378-2918
	차기회장	
워싱턴DC	회장	송상희(문리 71입) 703-483-0801,503-0864 sanghois@yahoo.com
	차기회장	
워싱턴주	회장	신창범(법대 73입) 425-562-0808 changshin@eschelon.com
	차기회장	
유타	회장	배유한(공대 73입) 801-474-1945 you.bae@ytah.edu
	차기회장	
조지아	회장	박 민(음대 80입) 770-449-0000 minpakhg@yahoo.com
	차기회장	김정호(공대 74입) 770-814-0618 jhkim@noabank.com
중부 텍사스	회장	이명재(상대 59입) 512-591-7739 267-992-1077 yjlee11023@yahoo.com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회장	주기목(수의 68입) 215-990-8717 kmjoo47@yahoo.com
	수석부회장	김정현(공대 68입) 484-744-6785 dhk064@gmail.com
플로리다	회장	박창익(농대 64입) 954-599-3452 changikpark@daum.net
	차기회장	
캐로라이나	회장	김기현(문리 51입) 919-530-6451 gideon@80square.com
	차기회장	
하와이	회장	김용수(수의 75입) 808-394-2369 ykim@hawaii.edu
	차기회장	
하틀랜드	회장	구명순(간호대66입) 913-268-0228 chungmm@yahoo.com
	부회장	
휴스턴	회장	탁순덕(사대 58입) 713-984-2066 taksoond@yahoo.com
	차기회장	이호성(공대 72입) 281-877-6584 hlee@eagle.org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광호(농대 62입) 604-250-0181 604-521-3009 khlee614@naver.com
	부회장	조석기(상대 71입) 604-688-4039 서명희(미대 71입) 778-322-7732
캐나다 앨버타	회장	조용희(자연 82입) 403-620-8261 dalhousiedo@hotmail.com
	부회장	

미주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1대 회장단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강수상(의)·이병준(상)·오인석(법)·이용락(공)·오흥조(치)·이영묵(공)·이전구(농)

명예회장 : 송순영(문)

제11대 회장 : 김은종(상)

차기 회장 : 오인환(문)

관악후원회 부회장 : 노명호(공)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성주경(상)
총무국장 : 백옥자(음)
재무국장 : 강호석(상)
사업국장 : 이경희(문)
섭외국장 : 이상대(농)
감 사 : 김재영(농)·박평일(농)
기금모금위원장 : 이종도(공대)
IT개발위원장 : 김병언(공대)

회보 임원

발 행 인 : 김은종(상)
상임고문 : 방석훈(농)·김건진(문)
편집위원장 : 지인수(상)
편집주간 : 이기준
편집위원 : 박양종(문)·김재영(농)·나철상(문)·이종도(공)·강지영(사)·김성수(문)·이원영(문)·김종하(인문)

논설위원

김일훈(CH)·김기태(LA)·조동준(LA)·최용완(LA)·한창섭(NY)·백 순(WA.DC)·육길원(CH)·이청광(LA)·정홍택(PA)·윤상래(MA)·김창수(NY)·임승괘(SF)·장석정(CH)·이석구(NY)·김재환(WA)·정요진(LA)

회칙위원회

위원장= 서중민(공·PA)
위 원= 한재은(의·IL)·이민언(법·TX)·윤상래(수의·NE)·김지영(사· LA)·신응남(농·NY)·함은선(음·WA)

2ㄱㄱ 24-32ㄱ_Layout 1 2012-02-12 ㄱㄱ 11:08 Page 8

Sea's Gift

A Tasty Gift From The Sea

Korean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Use it as a garnishment on your favorite dish!

Try it as a unique pizza topping!

Tastes great with your favorite soups!

Excellent topping on your favorite salads!

Create your own sushi! Just add rice!

Jaybone Paramount, CA • Ph: 562.633.7400 • Fax: 562.633.7474 • www.jaybone.com

Vermont Automobile
권기상(경영대학원 72)
323-757-1316
85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4

www.duo.co.kr

"서울대 동문에게는 10%특별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김혜정(문리대 82) Since 1995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분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듀오에는 행복한 커플을 만드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듀오
대표이사 김혜정(82入, 문리대)

• 소비자가 인정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 매칭 능력, 서비스까지 고객이 인정하는 No.1 브랜드입니다. • 비테랑 커플매니저 : 전문적이고 노련한 커플매니저가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드립니다.
• 듀오만의 매칭 프로그램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매칭 프로그램으로 만족을 보장해 드립니다. • 본국 회원관리 : 본국 회원과의 만남을 원할 경우, 같은 지역에 있는 회원 중 가장 잘 맞는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듀오 뉴욕지사 1270 Broadway, #1201 New York, NY 10001 /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특별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문의 800-275-2525

"서울대 미주 총동창회의 발전을 축원합니다!"

작가의 집 아트홀

2410 W.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0-3000 Fax: 213-380-3838

▶작가들의 모임(문학·화가·사진·음악인·예술인 등)
▶전시(고서및 희귀도서·문학작품·그림·사진·조각 작품 등)
▶소음악회
▶단체모임연회(~ 150명)
▶세미나(~ 250명)

김병연(공대 68)·김문희
(213)923-0907 byeongkim@yahoo.com

– 여행박사 박평식대표 동행 해외여행 특선 –
"다리 떨리기 전에, 가슴이 떨릴 때 떠나세요!"
인도/네팔 14일 $3,499 출발▶ 3/14/2012
성지순례와 특소관광을 동시에–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15일 출발▶ 1/8/2012 $3,799
삼바축제 남미일주 13일 출발▶ 2/16/12 $4,799
아프리카 6개국 두바이 14일 출발▶3/1/2012 $6,799
SINCE 1984 US아주투어/LA아주관광 www.usajutour.com
아주관광
대표전화 (213)388-4000 1-800-933-3011 서울 02-522-8686
예약/문의 아주크루즈 213·388·7000

서울대 미주동창회
2012년 알라스카 크루즈

"서울대 미주동창회 크루즈 특선여행 세부 일정과 사항"

날짜	경유지	이동	시간	일정
제1일	LA~ SEATTLE	항공	~4:00PM	각 지역 출발, 시애틀 항구에서 만나십니다. 승선 수속 후 승선을 시작하십니다. 초대형 유람선이기 때문에 승선 수속에 다소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점심식사는 선내에서 부페로 제공됩니다. 오후 4시 인사이드 패시지를 향하여 출발한 후, 비상탈출훈련이 있고, 저녁식사 후 자유시간을 가지십니다.
제2일	인사이드 패시지	항해	하루종일	전일 인사이드 패시지(내수면)를 지속 항해 합니다. 알라스카의 인사이드 패시지는 예로부터 인디안들의 수송로로 이용되었으며 아름다운 해안과 장엄한 산맥으로 이루어진 절경을 자랑합니다. 선상 각종 프로그램을 즐기십니다.
제3일	케치칸	관광	6:00AM ~1:30PM	케치칸은 틀링깃족이 여름에 연어낚시를 위해 머물렀던 곳으로, 연어가 주 수입원이던 1930년대는 연간 2백만 통을 생산해내는 11개의 통조림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년 200인치 가까운 강우량에 의해 이루어진 경이로운 신록이 우거진 케치칸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토템폴(장승)이 전시되어있는 도시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4일	쥬노 (알라스카)	관광	2:00PM ~10:00PM	알라스카주의 주도인 주노는 1880년대 골드러쉬 때 생겼으며, 오늘날 알라스카에서 가장 장엄하고 부유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 위치한 몇 개의 거대한 피요르드는 탄성을 지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선택관광을 이용해 웅장한 맨덴홀 빙하를 바로 눈앞에서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5일	스케그웨이 (SKAGWAY)	관광	7:00AM ~8:00PM	오전 7시 스케그웨이에 도착합니다. 스케그웨이란 이름은 알라스카 남부인디언족인 틀링깃족의 언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Skagua' 는 북풍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유콘지역의 클론다이크에서 금광석이 발견되면서, 탐험가들이 금광을 찾아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스케그웨이는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만 명 이상의 탐험가들이 이곳을 거쳐갔으며, 그들이 남기고 간 유흔가는 그 당시의 숨결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6일	글래시어베이	항해	하루종일	만년설과 빙하가 깔려있고 흰 눈이 덮인 환상적인 산봉우리들이 펼쳐져있는 미국의 국립공원 글래시어 베이는 9개의 작은 빙하 피요르드 및 해변에 연결되어있는 많은 섬과 항구들로 구성되었고 알라스카 자연동물들의 천국으로 유명합니다. 협곡과 빙하가 어우러진 알라스카의 장관을 따라 항해하시며, 선내에서 빙하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7일	빅토리아	관광	6:00PM ~11:59PM	오후 6시 브리티쉬 콜럼비아의 주도로 밴쿠버섬 남단에 위치한 매력적인 항구도시 빅토리아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새로이 단장된 올드 타운과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큰(Sunken)정원이 있는 부차드 정원 등을 관광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영주권/미국 복수 비자 필요
제8일	SEATTLE ~LA	항해	7:00AM	오전 7시에 시애틀 크루즈 터미널에 도착합니다. 유람선에서 제공되는 이른 조식을 드시고 하선하십니다. –항공편으로 각 지역 도착/LAX도착 후 자유해산

1) TOUR NAME: 2012 Seoul National University Alaska cruise association

2) TOUR DATE & ITINERARY: JUL.08 ~JUL.15, 2012 7night 8days (일정표 첨부)

3) TOUR FEE:
Inside: IE $1,090 / PP
IC $1,125 / PP
Oceanview: OK $1,250 / PP
OC $1,350 / PP
Balcony: BD $1,800 / PP
BA $1,850 / PP

4) 포함된 사항: 크루즈, 항만세, Government tax

5) 불포함 사항: 항공비, 선내 서비스비, 가이드 서비스비, 기항지 옵션관광비, 공항/항구까지의 Transfer비용, 크루즈 선사 보험, 여행자 보험, 크루즈 선내 식사 이외의 식사 및 음료비, 기타 개인적인 비용

6) 지불방법:
A. Deposit: 계약당시 $300.00/pp
2012년 3월 31일까지 예약 취소시 Deposit 전액 환불
B. 잔 금: 2012년 3월 31일까지 완불

아주크루즈: 213-388-7000 동부: 800-956-3939 O.C: 714-534-1200 토렌스: 310-217-0770 샌디에고: 800-994-1233 833 S. Western Ave #35-A Los Angeles CA 90005